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동북아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과 구조 비교

-한국, 중국, 일본 전승설화를 대상으로-



2014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공 광 철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동북아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과 구조 비교

-한국, 중국, 일본 전승설화를 대상으로-

지 도 교 수 곽 진 석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공 광 철

공광철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주 심 문학박사 박 경 수 인

위 원 문학박사 고 순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최 호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오 세 정 인

위 원 문학박사 곽 진 석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1
2. 기존연구 검토.....	2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6
II. 백조처녀형 설화의 형성과 전승.....	27
1. 동북아 제 민족의 새토템과 백조처녀형 설화.....	27
2. 백조처녀형 설화의 전승.....	38
1) 백조처녀형 설화의 탈상.....	38
2) 백조처녀형 설화의 분포와 전승.....	43
III.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	47
1.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 양상.....	47
2.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68
1) 절의성혼류(竊衣成婚類).....	68
2) 천사성혼류(天賜成婚類).....	75
IV. 백조처녀형 설화의 화소와 구조 비교 분석	78
1.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화소와 구조 비교	78
1) 절의성혼류 설화의 화소 비교.....	78
(1) 한국 절의성혼류 설화의 화소.....	78
(2) 중국 만주-통구스족 절의성혼류 설화의 화소.....	81
(3) 일본 절의성혼류 설화의 화소.....	87
2) 절의성혼류 설화의 구조 비교.....	92

(1) 한국 절의성혼류 설화의 구조.....	92
(2) 중국 만주-통구스족 절의성혼류 설화의 구조.....	96
(3) 일본 절의성혼류 설화의 구조.....	111
3) 절의성혼류 설화에 나타난 화소와 구조의 변별적 의미.....	119
(1) 절의성혼류 설화에 나타난 화소의 차이와 의미.....	119
(2) 절의성혼류 설화에 나타난 구조의 차이와 의미.....	138
2.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화소와 구조 비교.....	143
1)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비교.....	143
(1) 한국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144
(2) 중국 만주-통구스족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145
(3) 일본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148
2)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비교.....	149
(1) 한국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149
(2) 중국 만주-통구스족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151
(3) 일본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156
3) 천사성혼류 설화에 나타난 화소와 구조의 변별적 의미.....	158
(1)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차이와 그 의미.....	158
(2)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차이와 그 의미.....	159
V. 동북아 백조처녀형 설화의 문학적 의미.....	162
1.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난 의미.....	163
1) 이야기 주인공의 통과 의례.....	163
2) 여성 정체성의 확립.....	167
3) 인간의 자연 극복.....	170
2.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난 의미.....	174

1) 도덕관념의 체현.....	174
2) 통치관념의 실현.....	176
3) 샤머니즘 세계관의 재현.....	179
 VI. 결론.....	 186
 참고문헌.....	 192
부록.....	208



A Comparative Study of Northeast Asia Swan Maiden Tale of
the type and structure
- focused on Korea, China, Japan, the story of heritage objects

GONG GUANG Z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thesis, Comparative study Swan Maiden Tales, it circulated widely in the Han nation and Manchu Tungusic nation and the Japanese nation, live in Northeast Asia, as the purpose of the thesis research. Its research is the formation Swan Maiden Tales, distribution and evolution of morphology, type stories analysis, narrative structure analysis, and other aspects of cultural implication.

The first chapter to determine the research data and research object of Swan Maiden Tales and to analyzed finishing the existing research data of Swan Maiden Tales.

This thesis research data have been used in all the literature, because the field of literature compared to collect and record data of field operations have a higher stability and credibility, therefore, the study of this thesis to cancel collect and record traditional links.

The second chapter papers selected above three nations Swan Maiden Tales of the more typical 36 story, the stories of the formation, distribution and evolution of morphological analyzes described. First, described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 faith and the narrative literature, and thus clarifi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original settlers and primitive religious ideas and narrative literature .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Northeast Asia the original settlers of various nationalities during the contact with nature in the world is considered a world full of elves, is human untouchable and encroach, and then to produce worship and beliefs to the unsolvable mystery of

nature. Under this belief, primitive ancestors bred original myth, and under the bird totem beliefs to forming Swan Maiden Tales.

Swan Maiden Tale is a worldwide scope of the story, in Northeast Asia have also been various ethnic heritage.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in Japan and Korea story of Swan Maiden Tale greatly influenced by Southern story genre, affected northern factions darker story.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in Japan and Korea Swan Maiden Tale greatly influenced by Southern story genre, and Manchu Tungusic nation story greatly influenced by the story of the northern faction.

Japan and China the territory of Manchu Tungusic of Swan Maiden Tale affected by many cultures and many ethnic, the type of its stories more than heritage in Korea.

Dì sān zhāng duì tiān'è chūnǚ xíng gùshi delèixíng jìnxíng fēnlèi.

The third chapter were classified the Swan Maiden Tales.

First,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of Swan Maiden Tale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three major areas of south factions, north and central factions. To "stealing clothing marriage class" and "Godsend married category" two classes divided according to the married nature of stories. Type of Swan Virgin. After the classification of "lost Wife," "founding ancestor type", "ancestor originated type", "origin of the type", "devil disposition type", "where men become immortal type", "problem type", "Tanabata type", "Underworld type", "compensation type", "Heroes birth type" of 11 sub-type.

The fourth chapter in the story of the structure and motifs were compared, and clarifies the differences and significance.

First, the structure analysis unit has been describ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story development time under.

Separation 26 narrative factor, and the corresponding 20 Motif.

Then, based on the story of the marriage contract relationship, separation the two contractu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vents summed up the correspondence between motif and events.

According dualistic relationship of story divided into 8 antagonistic items, and 4 space antagonistic relationship, according to differences of structural and motif to clarify its significance.

The fifth chapter use mythology research, psychological analysis, folklore research methods such as multi-disciplinary research approach to cultural implication of the Swan Virgin type stories were analyzed.

In the "stolen clothing marriage class," the story of the hero of the story reflects the rites of passage, changes in the status of women in the evolution of the social system, and efforts to adapt to these changes carried out, and the human struggle awareness of its own aspects are described.

By analyzing the results of Swan Maiden Tale not only reflected by a man should grow into adulthood experiences and evolution of life through the ceremony, also reflected by the matriarchal society to a patriarchal society during the evolution of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s different, and women to adapt to this kind of social regime change efforts, and a woman in a patriarchal society, the social image of the remodeling process. In addition, the story also reflects the consciousness of the human instinct to fight against nature.

In the "providential marriage class story," embodied in the story, "what goes around" moral values, and the "divine right of kings," the ruling ideology, and the story presents the phenomenon of shamanic remain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in the story with the "what goes around" folk Ethics, as well as the concept of the rule of the ruler as a "divine right of kings" thinking, and to promote their own legitimacy as a ruler.

The story also reflects the shamanic of the universe, God, and flora and fauna worship content, the characters in the story clearly has the shaman image factor, and the Implement, articles, assisted gods in the story presented are that affect Swan Maiden Tale obvious of Shamanism.

In Northeast Asia various ethnic of Swan Maiden Tale showing shamanic remains phenomenon, it will be possible to study the contents of the Swan Maiden Tale leads to another level space.

I. 서론

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본고에서 연구할 백조처녀형 설화는 범세계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방대한 설화군을 이루고 있는 설화의 한 유형이다.

스티스 톰슨은 『설화학원론』에서 백조처녀형 설화의 세계적 분포에 대하여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프리카 전역과 오세아니아의 일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각 문화권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자마이카, 유카탄, 기아너 인디언들에서도 가끔씩 보고되고 있다.”¹⁾ 또 “놀랍게도 북극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스미스 사운드 에스키모 (smith sound Eskimo)들에게서도 목욕하는 소녀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²⁾라고 설명하였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각 지역에 따라 그 명칭도 다양하다. 백조처녀형 설화를 일본에서는 ‘우의전설(羽衣傳説)’이라 부르고 유럽에서는 ‘백조처녀전설’ (swan maiden tales)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나무꾼과 선녀’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천아처녀형고사(天鵝處女型故事)’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동북아 경내에 있는 한국과 중국 만주-통구스족, 그리고 일본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주로 설화의 유형 분류와 설화의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게 되며 비교 분석을 통하여 나

1) 스티스 톰슨, 윤승준·최광식 역,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108쪽.

2) 스티스 톰슨, 위의 책, 같은 쪽.

타나는 변별적 의미를 밝혀내고, 또한 설화에서 나타나는 문학적 의미를 밝혀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진행한 연구로 보면 아직 지역적으로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그 민족들 속에서 전승되는 이 유형의 설화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본고의 연구는 동북아 경내의 7개 민족을 걸친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유형을 분류하며, 이 유형 설화의 문학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은 필연코 자체로서의 깊은 연구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면들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백조처녀형 설화의 자료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백조처녀형 설화의 형성과 전승을 밝히고, 동북아 제 민족 선민들의 세토텐 숭배와 백조처녀형 설화의 형성을 밝힌다. 그다음으로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를 진행하며, 각 민족 별로 설화의 화소³⁾와 구조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비교 분석을 통하여 화소와 구조상의 차이를 밝혀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변별적 의미를 밝혀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연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백조처녀형 설화의 문학적 의미를 구명하기로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인 범주 내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분포와 발상 및 설화의

3) 화소는 모티프를 한국어로 이르는 말이다. 이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모티프’란 용어는 원저에 기준하여 그대로 기술하는 외 모두 화소로 통일한다.

계보, 설화에 나타나는 혼인의 성질, 설화의 구성, 설화의 유형과 문화적 의미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이 유형의 설화 자체가 갖는 범세계적인 분포 특성과 구성 특성으로 인하여 그 연구 결과는 시종 학계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분기점을 해소하고 공인을 얻지는 못하였다. 본고의 연구의 시발점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시도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연구하여 온 학자와 연구 결론을 국가별로 나누어서 아래와 같이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에서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손진태는 조선의 「금강산 선녀」 설화와 중국, 몽고, 만주족의 백조처녀형 설화를 비교한 바, 이 유형 설화는 내용으로부터 볼 때 몽고의 것이 가장 원시적이고, 만주족의 것은 몽고의 것과 서로 전과 관계를 가지고, 중국과 조선의 것은 매우 후세에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의 것은 복잡하고 또한 선녀가 ‘천정’을 뚫고 나간 것을 특징으로 보면 본래 몽고 계통에 속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⁴⁾

최인학은 22 편의 민담을 바탕으로 이 유형의 설화를 ‘이별형’, ‘행복형’, ‘난제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별형’과 ‘난제형’은 일본과 중국의 『수신기』 등에 나타나는 유형과 일치하지만, ‘행복형’은 일본과 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극히 드물다고 하였다.⁵⁾

김기창은 이 유형의 설화 27 편을 대상으로 전승 양상에 따른 유형구조, 구성특징, 교훈대상의 특징,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설화의 기본형을 설정하고 불행—행운—불행—행운 네 개의 단락으로 구명하였으며, 선녀의 천상회귀인 불행의 결말을 제 1 변형으로 분류하고, 나무꾼이 천상에

4) 손진태, 『韓國民族說話的研究』, 을유문화사, 1981, 193-198쪽.

5)樋口淳, 「민담의 국제비교」, 최인학 외 편저,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 민속원, 2004, 640쪽 재인용.

서 겪는 시련, 즉 난제형을 제 2의 변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나무꾼이 지상으로 회귀하고 금기 위반으로 인하여 천상으로 오르지 못한 것을 제 3 변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인물, 장소, 시간에 따라 설화의 구성 특성을 밝혔고, 초자연적 존재인 선녀와 인간인 나무꾼의 이별에 따른 비극적 성격의 원인을 선녀의 신성이 인간성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⁶⁾

최운식은 우선 이 설화의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하여 4가지로 분류하였다. 27 편의 자료에 근거하여 기본형, 승천담 탈락형, 혼사장에 극복담, 지상회귀담 첨가형 등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전승양상을 살폈다. 또한 설화의 구조를 고난과 의외의 행운이 대립적으로 반복되다가 서로 교체되어 순환하는 순환구조라고 밝혔으며, 나무꾼과 선녀의 혼인은 속과 성의 결합인 신성혼이라고 밝혔다.⁷⁾

황경숙은 심리학적 시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설화의 상징적 의미를 살폈다. 유형에 대한 구조 분석을 진행하면서 남성이 성인으로 발전하는 통과 의례적 성격을 밝히고, 설화에 나타난 두 가지 금기의 설치는 “성인식, 혼인, 성생활 등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며,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의 원인이 모성 콤플렉스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⁸⁾

배원룡은 145 편의 이 유형 설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선녀와 나무꾼의 결혼 특성에 의하여 ‘신성혼’ 설화로 정의하고, 각기 부동한 대립의 공간에서 오고가는 남녀 주인공의 행동 방향에 따라 구조적인 측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선녀 승천형, 나무꾼 승천형, 나무꾼 천상시련극복형, 나무꾼 지상회귀형, 나무꾼 시신승천형, 나무꾼과 선녀 동반하강형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설화의 공간적 구조 특성과 구조 분석을 통하여 보이

6) 김기창, 「금강산선녀 설화 연구」, 국제어문 제5집, 국어국문학과, 1984, 19-36쪽.

7) 최운식, 「〈나뭇꾼과 선녀〉설화의 고찰」, 청람어문학, 제1권 제1호, 한국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 59-85쪽.

8) 황경숙, 「〈나뭇꾼과 선녀〉설화의 심리학적 시론」, 국어국문학 제32집, 국어국문학회, 1995, 49-74쪽.

는 문화적 의미와 현대 문학작품의 수용에 대하여서도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⁹⁾

박계옥은 중국과 한반도의 백조처녀형 설화의 전승과정과 변이를 중국 ‘모의녀’가 한반도에 전파된 후 금강산팔선녀전설과 사슴보은형 이야기가 결합되어 ‘나뭇꾼과 선녀’ 설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난제형’은 농경문화와 관련되어 있고, 조선의 경우는 지력과 용맹을 숭상하는 민족특성과 인간미가 들어있다고 했다. 중국의 조선족 속에서 전승되는 각편들의 차이점을 통하여 한반도의 모체문화와 중국 현지의 본토문화에 대한 수용의 이중성을 설명하였다.¹⁰⁾

장장식은 한국과 몽골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내용, 구조 면의 비교를 진행하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혔고, 중국의 설화와도 겹쳐 비교를 진행하였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 설화는 몽골 설화와 친연성이 높고 중국의 설화와도 일정한 공통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남주인공 형상의 부동에 의하여 한국 설화는 정착 농업문화를 보이고, 몽골 설화는 수렵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결혼’의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설화 속에 약탈혼의 잔영이 반영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의 이 설화에 여주인공이 ‘선녀’로 등장하는 것은 도교 영향 외에 어쩌면 한반도에 거주하던 재래의 한 부족의 시조와 관련된 족조설화 내지 시조신화일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였다.¹¹⁾

김대숙은 ‘나무꾼과 선녀’ 설화는 시조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화보다 민담의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하고, 설화의 주제를 ‘남성들의 꿈과 소망’으로 보며, 결말의 변이와 삽화의 증대도 나무꾼의 일방적 욕심에

9)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9.

10) 박계옥, 「백조처녀형 설화의 조선반도에서의 전승과 변이」, 『중조한일민담 비교연구』, 김동훈, 료녕민족출판사, 2001, 제518-544쪽.

11) 장장식, 「한·몽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비교연구」, 최인학 외, 『비교 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 민속원, 2004, 881-912쪽.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설화의 혼인을 ‘약탈혼’이라고 보고 전승자의 객관적 요인에 의하여 유형변이가 생겼고 주제의 애매성에 의하여 다양한 방향으로의 전승의 가능성을 피력하였다.¹²⁾

전영태는 통합적인 연구방법으로 민담의 심층적 의미를 확충하려 하였다. 저자는 이 설화를 18 개의 단락소로 나누고 단락마다의 내재적 구조와 의미를 해명하면서 설화의 주제인 ‘결혼생활’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¹³⁾

서은아는 이 설화 속에 나타나는 ‘나무꾼과 선녀 사이의 갈등’, ‘나무꾼과 처가와 의 갈등’의 형성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고안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부부갈등의 양상과 해결방안이 현재 실제 부부갈등의 해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문학치료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그 해명을 시도하였다.¹⁴⁾ 그러나 문학치료로서의 가능성만을 탐색하였을 뿐, 치료과정과 결과에 대하여서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신태수는 인간과 동물, 천상계와 지상계, 천녀와 지남의 관계 등 상대되는 항을 세 쌍으로 구분하고 설화의 필수적 공동 존재로 보고 있다. 설화를 기본형과 변이형으로 분별하였을 때, 기본형에 다른 화소가 덧붙여 질 때, 기본형에서 내세우는 대칭적 세계관과는 멀어지면서 신화성격이 약하여지고, 대칭 세계관이 많이 반영될수록 신화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설화의 변이는 그 원인이 전승자의 삶의 태도가 이입되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12) 김대숙,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미담적 성격과 주제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제 137집, 국어국문학회, 2004, 329-351쪽.

13) 전영태, 「‘나무꾼과 선녀’에 대한 통합적 해석」, 신청어문, 제3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2005, 219-249쪽.

14)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부부갈등 연구』, 제이앤씨, 2005.

15) 신태수,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신화적 성격」, 어문학 제89집, 한국어문학회, 2005,

김중대는 이 설화에 나타나는 ‘나무꾼’의 혼인생활 유지에 있어서의 조력자들에 주목을 하면서, 그중에서도 쥐의 역할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었다. 쥐는 선녀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천상에서 겪는, 선녀로서도 도울 수 없는 관건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인물이라고 지정하였다.¹⁶⁾

중국의 경우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연구로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자와 연구 견해가 있다.

鐘敬文은 하틀랜드, 덴니스(Dennys)와 西村真次の 연구성과를 소개하였으며, 중국의 幹寶의 『搜神記』와 郭璞『玄中記』, 句道興의 『搜神記』에 기록된 백조처녀형 설화를 소개하고, 이상의 문헌 속에 기재된 설화는 시간적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이며, 또한 제일 원형에 접근한 텍스트라 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유전되던 20 편의 설화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牛郎型’, ‘難題型’, ‘尋母型’, ‘百鳥衣型’ 등 네개의 유형¹⁷⁾으로 구분하였다. 설화의 형태에 대하여서는 모티프의 변화, 기본형에 혼합된 기타 모티프, 설화 성질의 변화 등 세 방면으로 분석하였고, 또한 변형, 금기, 목록, 동물 혹

157-178쪽.

16) 김중대·이주홍,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조력자 사슴과 쥐의 역할」, 어문논집 제43집, 중앙어문학회, 2010, 175-194쪽.

17) 여기에서 말하는 설화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 종경문은 다만 ‘牛郎型’과 ‘百鳥衣型’ 유형에 대하여 명명을 하였다. ‘難題型’과 ‘尋母型’의 유형은 본고의 필자가 설화의 내용에 따라 재추리하여 명명을 한 것이다. 漆凌雲은 『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에서 종경문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 다시 ‘牛郎型’, ‘百鳥衣型’, ‘術士指引型’, ‘報恩型’ 등으로 명명을 하였다. 그러나 ‘術士指引型’이란 그 기본내용으로 볼 때, ‘선녀의 아기가 어머니 찾기’로 되어 있고 ‘報恩型’은 전형적인 ‘난제형’의 설화이다. 박계옥은 「백조처녀형 설화의 조선반도에서의 전승과 변이」에서 鐘敬文의 네 가지 유형을 ‘牛郎織女型’, ‘百鳥衣型’, ‘七星仙女型’ 등 세 가지로 적었다. 종경문은 원저에 분명히 네 가지로 밝혔지만 박계옥은 세 가지로 개괄하였다. 이는 원저와 아주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저자가 원저를 제대로 읽어보았는가가 의심된다. 그리고 ‘七星仙女型’이라고 개괄한 것은 실상 원저에서 제기한 ‘칠성형’과 ‘칠석형’을 이르는데, 이 두 유형을 단순히 ‘七星仙女型’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때문에 필자는 종경문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 다시 명명한 것이다.

은 신선의 도움, 선정에 머물기, 막내의 승리, 선녀의 인간계 머뭇, 연분, 술사의 예견, 난제제기 등 10 개의 모티프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¹⁸⁾

托和羅·路는 중국을 백조처녀형 설화의 고향으로 보며, 幹寶의 『搜神記』에 기재되어 있는 「毛衣女」를 제일 오래된 문헌기재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凌純聲의 『松花江下游的赫哲族』에 기록된 「木竹林」설화가 백조처녀형 설화라고 밝혔고, 허저족에도 ‘새토템’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木竹林」설화는 북방 소수민족의 특수한 생활양식인 ‘不落夫家’의 예로부터 전해온 혼인풍속이 체현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鰲花姑娘」와 「金鹿故事」도 백조처녀형 설화의 변이라 하였다.¹⁹⁾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 두 설화는 여주인공이 모두 ‘조선(鳥仙)’이 아니고 기타의 동물로 되어있어 백조처녀형 설화라기보다 ‘동물보은형’의 설화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金文學은 백조처녀형 설화를 ‘남방설’과 ‘북방설’ 두 개의 유파로 정리하고, ‘남방설’은 중국 장강 이남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설화로 ‘여조조의(女鳥鳥衣)’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방설’은 사슴이 출현하는 장강 이북의 설화로서 ‘칠석형’을 위주로 ‘鳥衣’가 ‘天衣’로 변화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남방설’의 설화 유형과 매우 유사하며 중국 대륙을 축으로 하여 전파되었다고 한다.²⁰⁾

陳建憲은 백조처녀형 설화는 원시 ‘새토템’ 숭배에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幹寶의 『搜神記』에 기재되어 있는 「毛衣女」를 이 유형의 ‘원형’으로 취급하고, ‘원형’, ‘난제구혼형’, ‘아내의 미모로 해를 당하는 형’, ‘죽원전

18) 鐘敬文, 「中國的天鵝處女型故事」, 『鐘敬文學術論著自選集』, 首都大學出版, 1994, 제 328-366쪽.

19) 托和羅·路, 「赫哲族天鵝處女型故事的異式」, 黑龍江民族叢刊 第4期, 黑龍江省民族研究所, 1988, 86-89쪽, 100쪽.

20) 金文學, 「中國日本韓國鵝處女型傳說譜系比較研究」, 社會科學輯刊 第6期, 遼寧省社會科學院, 1994, 137-141쪽.

설형’, ‘동물보은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난제구혼형’을 다시 ‘홍수이민아형(洪水移民亞型)’, ‘우랑직녀아형(牛郎織女亞型)’, ‘공작새공주아형(孔雀公主亞型)’ 등 세 개의 아류형으로 분류하고, ‘아내의 미모로 해를 당하는 형(妻美造害型)’을 다시 ‘무명찾기아형(尋無名亞型)’과 ‘백조의아형(百鳥衣亞型)’ 등 아류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설화에 대한 유형분류를 류수화의 네 개 발전단계 분류법칙에 비추어 ‘족원전설형’은 제1대 설화유형이고, 기본형은 제2대 설화유형이며, ‘우랑직녀형’과 ‘아내의 미모로 해를 당하는 형’, ‘새아기 엄마찾기형’, ‘동물보은형’ 등은 제3대 설화유형으로 되고, ‘공작새공주형’은 제4대 설화유형으로 된다고 하였다.²¹⁾

萬建中은 이 유형의 설화는 ‘觸犯異類’와 ‘重拾外衣’의 두가지 금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원인은 류수화가 구분한 이 유형설화의 제2대 변이문으로서의 기본형에 두 가지 금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설화 속에 ‘금기 설치—금기 위반—징계’의 과정은 인간과 자연과의 모순관계와 대립관계에 대한 민간적인 은유라고 보고 있다.²²⁾

王青은 백조처녀형 설화의 원 출처는 『百道梵書』의 「洪呼王與廣延天女故事」에서 기인된다고 하였다. 설화의 인물은 「梨俱吠陀」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중국의 문헌에 기재된 설화보다 더욱 오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설화는 고대 인도에서 형성되고 불전에 수록된 후 藏傳불교와 南傳불교, 北傳불교 등 세 갈래의 부동한 노선을 통하여 동남아 전반에 전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나는 ‘우의’는 앞에서 언급한 문헌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라고 하였다.²³⁾

21) 陳建憲, 「論中國天鵝仙女故事的類型」, 民間文學論壇 第2期, 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研究所, 1994. 62-68쪽.

22) 萬建中, 「一切關於人與自然關係的深刻對話」, 北京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6期, 北京師範大學, 2000, 42-50쪽.

23) 王青, 「天鵝處女型故事淵源再探」, 民族文學研究 第1期, 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研究所, 2004, 53-59쪽.

彭松喬는 생태학적 분석방법으로 백조처녀형 설화는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의 ‘이항대립’ 구조모식과 금기주제의 방식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는 상호대립과 상호의존의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²⁴⁾

萬桂紅은 남권중심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창작심리와 사회적인 변천이 포함하고 있는 문화측면, 언어체계 등 면에서 접근하여 백조처녀형 설화는 전통적인 중국사회의 남성 가정생활 理想과 성적 수요에 대한 체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설화 또한 母權制度에서 父權制度로 전변하는 시기에 여성 항거의 심리상태와 여성주체의 지위가 점차 상실되는 표징이며 남권제도하에서 여성의 부속과 발언권의 상실이라고 하였다.²⁵⁾

漆凌雲은 국내외의 기존 연구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일부 학자들의 이 설화의 발상과 전과도경 및 연구방법에서의 오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설화군’이란 전제에서 ‘시조류(始祖類)’, ‘득처류(得妻類)’, ‘순모류(尋母類)’ 등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17개의 아류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프롭프의 ‘기능도식’에 대하여 재수정을 하고 설화의 내재적 서사구조와 논리적 관계 및 설화가 여러 복합형을 이루게 되는 규율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설화의 문화적 이미지 해명에서 ‘신모’가 ‘선처’로 전락되고, 남주인공이 하층으로부터 신분적 상승을 거쳐 ‘선녀’의 배우자가 된 것은 사회적 신분의 상승으로 되며, 여권사회로부터 남권사회로의 발전을 보여준 것이라 하였다. 또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설화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²⁶⁾

郭俊紅은 중국 고대의 문헌 속에 기재되어 있는 백조처녀형 설화와 기타 민족 속에서 유전되어 온 이 유형의 설화들에 대하여 소개를 진행하였

24) 彭松喬, 「禁忌藏“天機”」, 民族文學研究 第4期, 2004, 59-63쪽.

25) 萬桂紅, 「男權文化下的“天鵝處女型”故事的解讀」, 湖北教育學院學報 第7期, 湖北第二師範學院, 2006, 24-25쪽.

26) 漆凌雲, 『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 中國戲劇出版社, 2008.

고, ‘凡男窺浴尋妻’와 ‘婚後違禁失妻’ 및 ‘凡男追尋妻子’ 등 세 가지 모티프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설화를 ‘牛郎織女型’과 ‘畫中人型’, ‘難題型’ 등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²⁷⁾

일본의 경우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연구로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자들이 있다.

西村真次는 세계적 범위내의 백조처녀형 설화 근 50 편을 수록하여 연구를 하였고,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설화의 ‘본래의 형식’인, 즉 ‘기본형’을 개괄하고 지구상의 기타 지역의 유전들은 모두 이 유형에서 분화되고, 일부의 요소가 첨가되거나 탈락되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²⁸⁾ 또한 그는 이 설화가 전파되기 시작한 시간은 적어도 신석기시대 중말 전의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⁹⁾

石原綏代는 일본 ‘천인여방담’ 중의 ‘羽衣’가 많은 경우 벗단 밑에 숨겨진 것에 대하여 “異類의 아내가 벗짐 아래에서 ‘우의’를 발견하고 하늘로 날아올라간다”는 묘사에는 일본인의 ‘稻魂信仰’이 들어있다고 한다.³⁰⁾

山田慶兒은 중국 고대의 臨床醫學 저작 「五十二病方」에 대한 연구로 고대의 ‘咒術療法’을 접촉하게 되면서 「姑獲鳥」설화를 담론하게 되었다. 그는 중국 고대에 「姑獲鳥」와 「毛衣女」의 결합형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문헌 비교를 통하여 ‘羽衣型’의 「毛衣女」형 설화는 후기에 「姑獲鳥」설화에 첨부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 형성 시기가 비교적 이른바

27) 郭俊紅, 『天鵝處女型故事』, 中國社會出版社, 2010.

28) 鐘敬文, 「中國的天鵝處女型故事」, 『鐘敬文學術論著自選集』, 首都大學出版, 1994년, 328-329쪽, 331쪽.

29) 鐘敬文, 위의 책, 362쪽, 주해4 인용.

30) 石原綏代, 「天人女房」, 『昔話の歴史』, 至文堂, 1966, 坪井洋文, 『民俗再考—朝向多元世界的視角』, 日本編輯學校出版社, 1990, 66쪽 인용, 漆凌雲, 『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 中國戲劇出版社, 2008, 13 쪽 재인용.

문헌에 기록된 것도 모두 중국 당조 이후의 것이며, 모두 후에 첨부된 것이라고 밝히고 두 설화는 원래 부동한 설화라고 해명하였다.³¹⁾

水野欲은 羽衣傳說是 북방권 백조처녀형 설화 계통의 전설이 북방으로부터 시베리아 연해주를 거쳐 樺太, 北海道, 本州의 關東에 유입되었으며, 이와 전후하여 西日本 어민에 의해, 동남아시아의 羽衣傳說을 가진 민족의 유입으로 남방계 신화전설이 함께 羽衣傳說을 이루어 전승하게 되었다고 한다. 彌生時代 대륙 중앙권의 우의전설이 몽고, 만주, 조선반도를 거쳐 조선의 신화, 전설 요소를 혼입하면서 신혼전설의 요소를 갖고 들어와 지역적 혼입이 되어 더욱 복잡화 되면서 어로민과 수렵민의 전설과 함께 확산되었다고 한다. 그 후 중국 한민족과 조선민족의 신선사상이 조선반도를 거쳐 일본에 들어와 羽衣傳說과 신녀전설이 결합되면서 일본의 羽衣傳說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기록에 적히게 되었다고 피력하고 있다.³²⁾

坪井洋文은 ‘天人女房譚’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성행하던 ‘燒田農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고 한다. 그리고 ‘天(이계)’은 수전재배의 농민형 사회와 부동한 ‘燒田’ 농민형 사회를 상징한다고 인식하였다.³³⁾

君島久子是 중국 瑤族 백조처녀형 설화의 ‘난제형’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남주인공에 대한 고힘으로서의 난제는 ‘刀耕火种’의 방식인 농업 생산능력에 대한 고힘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 민족의 오랜 생산방식의 체현이라고 밝히고, 일부의 각편들은 남주인공의 ‘성인식’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의 설화들은 라오스, 중국의 해남도, 복건성, 절강성, 일본의 沖繩과 宮古島, 池間島에서도 모두 유전되고 있다고 하였

31) 山田慶兒, 「夜鳴鳥」, 劉俊文 主編, 『日本學者研究中國史論著選譯(第十卷 科學技術)』, 中華書局出版, 1992, 231-269쪽.

32) 水野欲, 『羽衣傳說の探求』, 産報, 1977.

33) 坪井洋文, 「天人女房の世界—作為異人の燒田農民」, 『民俗再考—朝向多元世界的視角』, 日本編輯學校出版社, 日本編輯學校出版社, 1990, 63-80쪽, 漆凌雲, 『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 中國戲劇出版社, 2008, 13쪽 재인용.

다.³⁴⁾ 이외 기미시마는 「동양의 선녀들」 논문에서 중국의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난제형과 칠석형·칠성시조형으로 나누었다.³⁵⁾ 한편 기미시마는 난제형과 칠석형을 비교·검토하며 민간전승의 차원에서 ‘천인여방’을 살펴본 결과, 난제형이 시기적으로 다소 앞서며 그것이 중국의 한민족 사이에서 견우·직녀의 칠석형으로 변형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³⁶⁾

宮岡洋子は 『일본설화사전(日本昔話事典)』에 수록된 약 130 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별형 · 천상방문형 · 칠석결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宮岡洋子は 선녀가 벼단아래(천장, 집 중앙에 있는 기둥, 함)에서 날개옷을 찾아내어 아이를 데리고 (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이별형’이 기본형으로 된다고 하였다.³⁷⁾

远藤庄治는 류큐권에서 보고 된 57편의 ‘천인여방(天人女房)’을 ‘銘刈子型’, ‘察度王型’, ‘星女房型’, ‘天の川由來型’, ‘天女泉型’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³⁸⁾

樋口淳은 동서방의 ‘천인여방’ 설화에 대하여 유형과 구조적으로 비교적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일본·한국·중국 등 나라의 학자들이 이 설화에 대하여 진행한 연구와 유형 분류의 상황을 설명하고, 각기 부동하게 분류한 설화 유형들 지간의 대응관계를 밝혔다. 비리고 한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유형과 일치하며, 중국 소수민족과 일본의 경우는 난제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远藤가 말하는 ‘星女房型’과 기미시마의 ‘칠성시조형’³⁹⁾은 중국 남부 해안에서 대만에 이르는 연안지역을 거

34) 君島久子, 「非稻作民의民俗与传承」, 民間文學論壇 第3期, 中國民間文藝家協會, 1997, 34-63쪽.

35) 樋口淳, 「민담의 국제비교」, 최인학 외,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 민속원, 2004, 640쪽 재인용.

36) 樋口淳, 위의 책, 같은 쪽.

37) 樋口淳, 위의 책, 637쪽.

38) 樋口淳, 위의 책, 638쪽.

39) 樋口淳은 「민담의 국제비교」에서 君島久子の ‘난제형’과 ‘칠석형’은 宮岡洋子の

쳐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과 일본의 본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유럽에 전하는 이 설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설화의 기본 요소로서의 11 개 모티프는 동서방의 설화에 모두 공동적으로 출현된다고 밝혔다.⁴⁰⁾

高木立子は 백조처녀형 설화는 약탈혼인제도의 체현이며 선녀는 비교적 높은 계층의 공동체 성원으로서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전파시킬 수 있음으로 하여 법술과 신성을 갖는 선녀로 표현되게 되었다고 한다. 남주인공은 설화의 구술자 및 청중과 같은 공동체 성원으로서 그의 형상은 선량한 사람으로 묘사되게 된다고 하였다. 선녀의 목욕 과정을 훔쳐보는 것은 신성성의 계발을 받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함으로써 남주인공으로 하여금 윤리도덕적인 질책을 회피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설화의 ‘난제형’은 주로 남주인공의 지혜와 생산능력에 대한 고함이라고 지적하였다.⁴¹⁾

小澤俊夫는 문체적인 각도로부터 출발하여 일본 설화는 ‘天’이라는 극히 신성한 개념을 일상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서 일본의 ‘천인여방담’ 설화에는 ‘농민식의 天女’ 형상이 출현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외에 또 일본의 ‘천인여방담’에는 부부이별의 결말로 끝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와 같은 결말은 일본 민중의 문예의식의 특수성과 관계된다고 하였다.⁴²⁾

歐美의 경우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연구로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자와 연구 견해가 있다.

‘천상방문형’과 ‘칠석결합형’과 일치하며, ‘칠성시조형’은 远藤庄治의 ‘星女房型’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40) 樋口淳, 위의 책, 637-652쪽.

41) 高木立子, 「被欺負の女婿」, 民間文化 5-6, 民間文藝家協會, 2000, 73-74쪽.

42) 小澤俊夫, 『昔話の宇宙觀—人與動物の婚姻譚』, 講談社, 2002. 162-165쪽, 201-202쪽, 漆凌雲, 『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 中國戲劇出版社, 2008, 13-14쪽 재인용.

영국의 하트랜드(Dr·E·S·Hartland)는 『동화의 과학』(science of Fairy-Tales)에서 이 유형의 설화에 대하여 장편 논술⁴³⁾을 하였고 또한 이 유형 설화를 ‘海生式’, ‘平陽侯式’, ‘海豹女郎式’, ‘星女兒式’, ‘梅露西妮式’, ‘夢魘式’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⁴⁴⁾

구라파 학자 덴니스(Dennys)는 『중국의 민속(19세기)』에서 중국使臣이 기록한 류큐의 백조처녀형 설화를 구라파의 설화와 비교한 후 중국 본토에는 이 유형의 설화가 없다고 하였다.⁴⁵⁾

요셉 조크부스(Mr·Joseph Jacobs)가 수정한 골드(S·Bring Gould)의 『印度歐羅巴民間故事型式』에서 백조처녀형 설화를 기록하였다. 보편적이고 단순적이며 원형에 가까운 설화의 기본 단락을 네 가지로 개괄하였다.⁴⁶⁾

스티스 톰슨은 『說話學原論』⁴⁷⁾에서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 아르네-톰슨의 「모티프 색인」에 D361(백조 소녀)의 모티프로 설정되어 있고, 「타이프 색인」에서 AT313(주인공의 탈출을 도와주는 소녀), AT400(잃어버린 아내를 찾아다니는 사람), AT465(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AT465a(운명의 아내에 대한 탐색) 등에 백조처녀형 설화를 포함시켰다.⁴⁸⁾

43) 鐘敬文, 「中國的天鵝處女型故事」, 『鐘敬文學術論著自選集』, 首都大學出版, 1994, 제 362쪽 주해1.

44) 鐘敬文, 우의 책, 330쪽.

45) 鐘敬文, 「中國的天鵝處女型故事」, 『鐘敬文學術論著自選集』, 首都大學出版, 1994, 제 329쪽.

46) 鐘敬文, 우의 책, 제330-331쪽.

47) 스티스 톰슨 저, 윤승준·최광식 역, 『說話學原論』, 계명문화사, 1992년, 제107-114쪽.

48) 스티스 톰슨 저, 우의 책, 제618, 619, 620, 632쪽.

3. 연구 대상과 연구방법

본고는 주로 동북아 경내에 처한 한국과 중국 만주-통구스족, 일본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한정하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민족과 중국 동북 경내에 거주하는 만주-통구스어 계 민족, 그리고 일본민족 속에서 전해지는 백조 처녀형 설화(Swan Maiden Tale)에 대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상의 여러 민족을 보면 지역적으로 모두 동북아 경내에 집중되어 생활하는 민족들로서 언어, 문화, 인종적인 면에서 일련의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비교 연구에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언어 사용 면을 놓고 볼 때 이 민족들은 모두 동일한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있으며 그 언어의 특성도 일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필십(畢昶)은 중국 경내의 알타이어족을 논함에 있어 “만주-통구스어족에 속하는 언어로는 만주어, 시버족어, 허저족어, 에벤키족어, 오르첸족어가 있으며 이외에 조선어도 있다.”⁴⁹⁾라고 설명하였다. 이로 보면 저자는 중국 만주-통구스어족의 사용언어와 조선어를 모두 알타이어의 한 갈래로 취급하였다. “알타이어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일본어 단어의 음운 구조나 문법 혹은 문장구조의 형식 등에 많은 일치점이 있기 때문이다.”⁵⁰⁾이 말에서 보면 일본어도 역시 알타이어에 속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남송시기의 문인인 홍매(洪邁)는 『夷堅志』에서 거란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거란족 애들이 글을 익힐 때 말의 순서를 바꾸어서 익히곤 한다. 한 글자를 두세 자로 늘여 쓰기도 한다. 금나라(金國)에 사신으로 나갈 때 동행하는 부사(副使)와 매번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서로 웃곤 한다. 예를 들면

49) 奇文瑛, 『滿通古斯語族民族宗教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5, 서론 2쪽.

50) 손대준,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도서출판, 200년, 40쪽.

‘鳥宿池邊樹，僧敲月下門.’란 두 구절을 ‘명월 속에 중이 문을 두드리고, 물 속의 나무 위에는 까마귀가 앉아 있다(月明里和尚門子打，水底里樹上老鴉坐).’로 읽는다.”⁵¹⁾ 위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보아 거란족의 어순은 “주어-목적어-술어”로 되어 있다. 거란족은 선비족에서 생겨났으며 선비족의 후예로서는 지금의 시버족이 있다. 이로 보면 거란족의 언어도 오늘날의 만주-통구스어에 속하는 시버족의 언어와 별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어순 관계는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 만주-통구스어에도 보여지고 있다. 아래에 허저족어와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에서 보아지는 어순관계에 대하여 간단한 비교 분석을 하기로 한다.

허저족어:	bi	puda	ɕəfəmi. ⁵²⁾
한국어:	나(는)	밥(을)	먹(습니)다.
일본어:	わたし (は)	ごはん (を)	たべ <u>ます</u> .

허저족어에서 ‘bi’는 ‘나’이고, ‘puda’는 ‘밥’이란 단어이며 ‘ɕəfə’는 ‘먹다’란 뜻을 나타낸다. “bi puda ɕəfəmi”의 어순을 보면 “주어-목적어-술어”로 되어있다. 이상 세 가지 언어를 비교할 때 모두가 “주어-목적어-술어”의 어순으로 되어 있어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술어로 나타난다. 목적를 생략한다하더라도 “주어-술어”의 기본 어순을 이루면서 “명사+동사”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중국어에서의 동사가 명사 앞에 놓이는 체계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허저족어에서의 ‘mi’는 어미로 되어있으며 이는 한국어에서의 ‘니다’와 일본어에서의 ‘ます’와 유사한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외 어휘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정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예로 단

51) 洪邁, 『夷堅志』, 卷十八, 「契丹詠詩」.

52) 凌純聲, 『松花江下游的赫哲族(下冊)』, 民族出版社, 2012, 504쪽.

어 ‘버드나무’와 ‘파랑’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버드나무’를 ‘버들’이라고도 한다. 만주어에서는 ‘fodo’라 하며 그 읽기는 한국어 음으로 ‘보도’로 발음된다.⁵³⁾ 그리고 ‘파랑’은 만주어로 ‘pilan’, 혹은 ‘pelan’으로 되어있다.⁵⁴⁾ 한국어로 ‘피란’, ‘퍼란’으로 발음이 된다. 이 발음은 한국어에서의 ‘파랑’, ‘퍼랑’과 유사하다. 예로서 더 보면 한국어에 ‘어머니’란 ‘어머니’, ‘엄마’로 되어있다. 이 단어는 만주어에서 ‘əmə’, 시버족어에서 ‘əni’, 허저족어에서 ‘əniə’, 에벤키족어에서 ‘əniə’, 오르첸족어에서 ‘ənə’로 부른다.⁵⁵⁾ 이상의 단어는 발음상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 문장의 어순과 단어의 발음에서 보면 한국어와 만주-통구스어, 그리고 일본어는 언어적 차원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예로부터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 속하며 중국 만주-통구스족도 중원으로부터 오는 한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인종으로 볼 때 이상 민족들은 모두 황색인종에 속하는 만큼 인종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東北古文化』에서는 황색인종에 대하여 아종(亞種) 분류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장강 이북 지역, 동북 지역, 조선인과 일본인을 모두 동아인종(東亞人種)인 황색인종으로 분류하였다.⁵⁶⁾ 이는 이상 민족들이 인종적으로도 친연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으로 볼 때 이상 민족들에서 역시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지리적 원인에 의하여 중국과 조선, 일본 등 동아시아 각 나라의 고대문화는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다.”⁵⁷⁾ “빙하시기 바다의 수면이 130 미터나 하강하여 일본 열도와 아시아 대륙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일본해도 내

53) 차해봉, 『朝鮮民族與滿一通古斯諸民族神話傳說中的意象 母題比較研究』, 延邊大學 亞非語言文學, 博士論文, 2009, 246쪽 참조.

54) 王慶豐, 『滿語研究』, 民族出版社, 2005, 166쪽, 위의 책, 같은 쪽 재인용.

55) 胡增益, 『鄂倫春語言研究』, 民族出版社, 2001, 201쪽, 위의 책, 같은 쪽, 재인용.

56) 高青山 외, 『東北古文化』, 春風文藝出版社, 1992, 38-39쪽 참조.

57) 高青山 외, 위의 책, 40쪽.

해(內海)로 되었다. 이와 같은 지형은 일본문화와 대륙사이에 천연적인 연결을 이루게 하였다.”⁵⁸⁾ 그리고 일본 구석기문화의 유입에 대하여 추정되는 세 가지 경로 중의 한 갈래로 조선반도에서 대마도해협을 거쳐 일본 규슈(九州)에 이르렀다고 한다.⁵⁹⁾ 이상으로 보면 빙하기시기를 비롯하여 예로부터 동북아의 특수한 지형은 경내에 거쳐하는 여러 민족 사이에서 문화교류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상 민족들의 문화 교류와 관련하여 신화와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문헌들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걸친 ‘신들의 내왕’이 기록되어 전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 기록에 보이는, 태양신인 ‘연오랑과 세오녀’ 이야기 그리고 일본 기록에서는 하늘에서 일본 열도로 내리는 중간 경유지로 한반도가 일본 신에 의해서 선택되어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보일 수가 있다. 이 밖에 일본 측의 소위, ‘아마노 히보코(天日槍)’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례도 추가해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⁶⁰⁾ 이외에 『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는 素戔鳴尊에 관한 설화에서도 素戔鳴尊가 신라에 머물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데 대하여 명확한 기술이 있다.⁶¹⁾ 朴湧植은 한반도와 일본의 天降神話を 북방유목민족 신화의 화소로 보고, 그 전파에 대하여 “東北아시아의 광활한 터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夫餘·高句麗의 騎馬民族은 기후가 온화한 한반도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에 젖어 갔고, 일부는 대거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 정착했던 것이다.”⁶²⁾라고 설명하였다. 실상 동북아 경내에 있는 이상의 민족들은 그 선조로부터 인류의 이동과 사회의 변천에 따라 밀접한 교류와 융합이 형성된 것은 많은 문헌들에서도 보이고 있다.

58) 高青山 외, 위의 책, 같은 쪽.

59) 高青山 외,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60) 김열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2004, 10쪽.

61) 황폐강, 『日本神話의 研究』, 지식산업사, 1996, 64-65쪽.

62) 朴湧植, 『韓國說話의 原始宗教思想研究』, 一志社, 1992, 66쪽 참조.

종교적으로 보면 한반도와 중국 만주-통구스족, 일본 등 지역의 민족 속에서는 예로부터 샤머니즘과 새토템 등에 대한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지금까지도 일부의 지역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 거주하는 이 민족들은 지역, 언어, 신앙과 문화 등 면에서 일정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도 문화,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상호적인 교류가 진행되었던 것은 많은 사료(史料)를 통하여 고증될 수 있다.

이상의 요소에 근거하여 필자는 동북아 경내에 거주하는 한민족과 일본 민족, 만-통구스어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에 대하여, 민족과 지역, 문화를 넘어선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식하였고,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보다 계통적이고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논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자가 수집한 기초 자료로는 이상 제 민족 속에서 백조처녀형 설화가 기재된 문헌자료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민족에 관련된 문헌자료로는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분단 이후 북한의 구전설화집』(김기창·이복규)과 중국에서 출판된 문헌자료로 『金德順故事集』(배영진), 『과경노』(김재권, 박창목), 『民間文學資料集』(中國民研會延邊分會)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만주-통구스어족의 연구대상이 되는 문헌자료는 아래와 같다.

만주족의 자료: 『滿族民間故事選』(烏丙安), 『滿族民間故事選』(中國民研會東三省分會), 『滿族神話故事』(傅英仁), 『滿族古神話』(新覺羅·烏拉希春), 『滿族三老人故事集』(張其卓·董明).

시버족의 자료: 『錫伯族民間故事選』(忠錄), 『錫伯族民間故事集』(關寶學), 『靈芝姑娘』(張新泰·馬雄福).

오르첸족의 자료: 『鄂倫春族民間故事集』(巴圖寶音), 『鄂倫春民間故事選』(張鳳鑄·蔡伯文), 『鄂倫春民間故事集成』(峻林), 『鄂倫春民間故事集』(內蒙古人民出版社 編), 『鄂倫春族民間故事選』(隋書今), 『중국소수민족신화전집』(박련옥).

허저족의 자료: 『赫哲族民間故事選』(王士媛), 『松花江下游的赫哲族』(凌純聲), 『撫順郊區資料本(一)』(撫順郊區民間文學集成領導小組 編).

어벤키족의 자료: 『鄂溫克族民間故事』(杜梅).

일본민족의 문헌자료로는 『日本民間故事選』(關敬吾), 『日本民間故事選粹』(西本雞介), 류큐설화집『유로설전』(鄭秉哲), 『羽衣傳説の探究』(水野祐), 『羽衣・竹取の説話』(静岡総合研究機構) 등을 연구의 기초자료로 선정하였다.

본고는 이상 연구 자료에서 민족별로 나누어 본고에서 진행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에서 각기 대표 예화로 될 수 있는, 한국 자료 5편⁶³⁾(한국구비문학대계 3편과 임석재전집 2편), 일본 자료 10편, 만주족 자료 8편, 오르첸족 자료 5편, 어벤키족 자료 2편, 시버족 자료 4편, 허저족 자료 2편 등 36편의 설화를 본고의 설화 연구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설화의 분석에서 화소와 에피소드, 타이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설화의 유형 분류와 구조 분석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은 설화 분석 구조 단위에 대한 정의에서 각기 일정한 차이성들은 보이고 있다.

일본의 설화학자 關敬吾는 설화의 내부 구조를 기본적 요소(motif)→要素群(挿話)→挿話群(説話型)의 3단 구조로 파악하였다.⁶⁴⁾

63) 한국의 백조처녀형 설화는 「나무꾼과 선녀」로 되어 있으며 그 수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타 민족의 설화와 비교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의 유형 분류에 따라 해당 유형에 속하는 전형성을 갖는 설화 5편만을 선정하였다.

64)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82쪽, 주석2 참조.

라이엔(F·von der leyen)은 “설화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모티프가 모여 이루어지는데 모티프가 몇개 모인 것을 에피소드라 하고, 에피소드와 모여 하나의 설화를 형성한다.”⁶⁵⁾고 모티프와 에피소드, 설화의 삼자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하였다. 스티스 톰슨은 “타이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전설화이며, 다른 설화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화라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다른 설화와 함께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구연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타이프는 단 하나의 모티프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여러개의 모티프로 구성될 수도 있다.”⁶⁶⁾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설화를 분류하려고 했을 때 부딪히는 난관 중의 하나는 이 三者의 구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 三者가 반드시 縱的인 피라미드型的의 聯繫 관계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橫的인 等質關係를 가질 때도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⁶⁷⁾ 그러므로 타이프와 에피소드, 모티프는 서로 종속되는 상하위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횡적으로 동등 기능의 역할을 하게도 된다.

이상 학자들의 견해로 놓고 볼 때 설화는 모티프를 최소의 구성단위로 하고 모티프가 모여 타이프보다 하위적 단위인 에피소드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스티스 톰슨은 모티프를 구전설화가 전승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설화의 가장 작은 구성요소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대부분 모티프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유형은 설화의 등장인물이다 — 神이나, 이상한 동물이나, 마녀, 도깨비, 요정과 같은 신기한 존재나 친절한 막내, 잔인한 계모와

65) 조희웅, 『韓國說話의 類型研究』, 韓國研究院, 韓國研究叢書 第四十八輯, 1983, 1쪽 재인용.

66) 스티스 톰슨, 윤승준·최광식 역,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507-508쪽.

67) 조희웅, 『韓國說話의 類型研究』, 韓國研究院, 韓國研究叢書 第四十八輯, 1983, 2쪽.

같은 전형화된 인물 등 이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항들로, 마법의 물건, 특이한 관습, 이상한 신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유형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들로 통상적으로 모티프라고 하면 이것을 일컫는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진정한 설화 타이프로 기능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구전설화 타이프는 이러한 단순 모티프들로 구성되어 있다.”⁶⁸⁾라고 모티프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하였다.

배원룡은 “모티프에 플롯이 개입하게 되면, 플롯의 구성력에 의해서 소재가 선택 동원되어, 그 조화에 따라 이야기의 골격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플롯의 개입으로 형상화된 이야기의 최저 단위의 골격이 話根(root)이다. 즉, motif+plot→root이다.”⁶⁹⁾고 모티프와 화근에 있어서의 플롯의 작용을 설명하였다. 배원룡은 플롯을 “이야기를 형성한 줄거리, 또는 줄거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로 엮어 짜는 일과 그 수법, 즉 구성의 뜻으로 썼음”⁷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화근과 모티프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하위단위에 해당하는 종적 체계가 아니라, 동일 선상에 놓이는 횡적 체계로 화근의 내용을 집약한 것이 모티프이고, 모티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화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드러진 차이점은 모티프는 유형 차원을 넘어선 공동된 관념의 집약인데 반해, 화근은 그 유형 또는 각편 안에서 플롯의 개입으로 형상되었다는 데 차이가 있다.”⁷¹⁾고 모티프와 화근 양자 간의 관계성을 해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화의 3단 구조는 내부적 구조에 대한 해명으로서 설화의 구조와 유형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68) 스티스 톰슨, 윤승준·최광식 역,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508쪽.

69)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84-85쪽.

70)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85쪽, 주석10 참조.

71) 배원룡, 위의 책, 85-86쪽.

프로프는 러시아 민담을 대상으로 민담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분석단위로 삼아 ‘기능’ (function)이라 명명하고, ‘기능’을 31개로 추출하였으며 민담의 ‘기능’은 31개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미국의 알란 던디스(Alan Dundes)는 프로프의 ‘기능’을 ‘단락소’ (motifeme)로 바꾸고 단락소보다 더 작은 화소를 ‘allomotif’라 하여 케네드 파이크(Kenneth Pike)의 언어학 용어를 빌어와 프로프의 ‘기능’의 개념과 톰슨식의 ‘화소’의 개념을 연결해 주고 있다.⁷²⁾

프로프는 설화에서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기능’이라고 불렀다.⁷³⁾ 던디스가 파이크의 모티팜(motifeme)이라는 분석 단위가 프로프의 ‘기능’과 일치하다 하였으며 모티팜은 기능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기능에서 보지 않는 기점상황(initial situation)도 포함시켰다고 하였다.⁷⁴⁾ 이와 같은 설화의 사건 발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차적 구조는 설화 구조상의 배열 규칙을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부동한 화소와 에피소드의 삽입으로 설화의 유형과 구조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유형 분류와 구조 분석에서 삼자지간의 관계에 유의하면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에서 우선 동북아와 동남아에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의 특성에 따라 남방계, 북방계, 중원계 등 세 개의 계열로 나누고, 다음 백조처녀형 설화의 변이단계 특성에 따라 3개의 단계로 나눈다. 그리고 선녀가 취하는 혼인 태도에 따라 ‘절의성혼류 (竊衣成婚類)’와 ‘천사성혼류 (天賜成婚類)’로 나누고, 그 아래에 하위유형으로 11개의 아류형을 분류하였다.

72) 김열규, 『민담학개론』, 일조각, 1997, 151-152쪽 참조.

73)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94쪽, 주석2 참조.

74) 김화경, 위의 책, 98쪽 참조.

백조처녀형 설화는 순차적 구조와 이항 대립 구조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순차적 구조는 설화의 시간적 발전순서에 따라 단락소를 구분하고 매 단락소마다 대응 화소를 밝히며, 혼인관계에서 보이는 두 개의 계약 관계를 구분해 낸다. 이항대립구조는 화소의 대립구조와 공간의 대립구조로 나누어, 행동대립항에 “결핍-결핍해소”, “구제-정보획득”, “금기-금기타파”, “난제-난제해결”, “천강-승천”, “출발-발견” 등 6개의 대립항과 인물대립항에 “조력자-가해자”, “주인공(범인)-선녀” 등 2개의 대립항을 설정한다.

공간 대립구조로는 “1차적 지상공간 통일”, “천상공간의 통일”, “천상과 지상의 공간대립”, “2차적 지상공간 통일” 등 4개로 나눈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구조 분석에서 주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화소와 구조의 차이, 그에서 나타나는 변별적 의미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고의 연구방법에 있어서 주로 비교설화학의 연구방법에 중심을 두며, 신화학, 인류학, 심리분석학, 구조주의, 역사지리학, 민속학, 비교문학 등 여러 학과의 이론과 방법을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 1 장에서 연구의 대상을 확정하고, 지역 별로 기존연구를 검토한다.

제 2 장에서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형성과 전승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 3 장에서는 주제유형분류의 방법을 사용하여 동북아 제 민족의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하나의 통일된 분류 원칙에 기준하여 체계적인 유형 분류를 진행한다. 우선 학자들의 기존 유형 분류의 성과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필자의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구조주의적 방법으로 설화의 화소와 구조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그 차이와 변별적 의미를 분석한다.

제 5 장에서는 신화학적 연구방법과 심리분석학적 방법, 민속학적 연구방법 등 여러 학과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나는 문학

적 의미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문학적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우선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주인공의 통과의례, 여주인공 여성 정체성의 확립, 인간 자연 극복사상의 체현 등 면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천사성혼류 설화에서는 설화에 나타나는 민중 도덕관념의 체현, 지배계층 통치관념의 체현,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재현 등 면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앞서 진행한 각 장의 분석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가치와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족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II. 백조처녀형 설화의 형성과 전승

1. 동북아 제 민족의 새토텐과 백조처녀형 설화

원시종교와 신화는 그 형성과 존재로 보아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류 고대의 신화는 원시시대의 정신적 산물이다.”⁷⁵⁾ 신화는 원시선민들이 인류의 기원, 자연현상과 인간사회에 대한 원초적인 인식이며 인류 동년기의 심리적 활동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普列汉诺夫는 “히브라이어 ‘MHØ’ (신화)는 곧 고사(故事)란 뜻이다. 사람들은 어떤 현상—진실한 것과 허환(虛幻)한 것을 물론하고—에 대하여 경이롭게 생각될수록 더욱 그 현상의 발생 원인을 알고자 한다. 신화는 바로 이렇게 산생되었다.”⁷⁶⁾고 신화의 형성을 해명하였다.

신화에는 인류가 자연계에 대한 원초적인 인식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허다한 미지의 현상들은 원시선민들에게 있어서 모두 신화를 생성하게 할 수 있었다. 즉 신화 속에는 원시선민들의 원초적 세계관이 안받침 되어 있다.

신화는 원시선민들의 관념형태의 반영이고 원시적 심리와 념원의 반영이다. 신화에 대한 분석과 연구의 의의는 신화 본 자체가 갖고 있는 원시적 의미에 있는 것이다.

원시선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자연계와 접촉하는 과정 중에서 미지의 세계와 묵계(默契)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종 원시적 종교사상을 형성시켰고,

75) 富育光, 위의 책, 184쪽.

76) 富育光, 위의 책, 같은 쪽.

그 사상과 행위의 전달과 전승으로 신화가 형성되었다. 종교와 신화는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인류문화의 발전과정 중에서 계속되는 상호적인 영향을 지속하였다. 신화 또한 서사문학의 한 형태로서 후기의 전설과 민간이야기의 발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생산력의 저하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의 산생과 존재에 대하여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생각하였다. 애니미즘적 원시사유에 기초하여 대자연 속의 그 어떤 사물이 자기의 씨족과 모종의 친연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인식이 장기간 전승되는 과정에서 신비로운 토템숭배가 형성되었다.”⁷⁷⁾

인류는 발전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자연계에 의탁하여 왔다. 인간은 자연계에 대하여 경위의 심정을 가졌으며 또한 자연으로부터 생활의 필수용품을 취득하였다. 신변의 자연계와 생존을 위한 생활필수품, 그리고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색을 진행할 때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자연계로부터 인간에게 급여하는 물품들에 대하여 감지(感激)의 심정과 경위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간들의 사상에 의하여 원시적인 토템관념이 형성되게 되었으며, 또한 이 토템관념의 반영으로 토템신화도 형성되게 되었다. 즉 원시선민들은 인간과 인간의 생존과정 중에서 숭배하여 오던 토템과의 관계에는 해명하기 힘든 그 어떤 친숙관계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富育光은 중국 북방민족의 샤머니즘 동물숭배에 대한 해석에서 “자연계의 동식물에 대한 숭배는 한 민족이 장기적으로 생활하는 지역 및 환경과 관계된다. 또한 어렵생산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⁷⁸⁾고 설명하였다.

77) 王肯 等著, 『東北俗文化史』, 春風文藝出版社, 1992, 507쪽.

78) 富育光, 『薩滿教與神話』, 辽宁大学出版社, 1990, 40쪽.

W.스미츠(Schmidt William)는 토템의 형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을 진행하였다. “초기문화에 속하는 고급 어렵부족이 점차적으로 모계씨족 시기의 원예민족 후기에 출현되었다. (어떤 시기는 동시에 출현) 이 부족 속에는 일종 괴이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즉 토템숭배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모종 동물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와 친속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그 동물에 대하여 종교적 의미를 띤 경위감을 나타낸다. 이로써 토템숭배 속에는 보다 오래 된 종교형식이 새롭게 발견된 듯하다.”⁷⁹⁾ 계속하여 그는 「토템론(제9장)」에서 “토템숭배는 일부 민족 중에 존재하는 일종의 기이한 현상이다. 즉 그들은 자기의 가족 혹은 부족이 모종의 동물과 혈연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계는 사람과 사람들 지간의 친속계통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⁰⁾ “초민들은 매개 씨족마다 모종 동식물 혹은 무기물과 친속 또는 기타의 특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 물체가 바로 그 씨족의 토템이며 혈연관계의 상징이다.”⁸¹⁾

이상의 토템 형성에 관한 각 설에서 원시적 토템숭배의 형성 원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즉 토템의 형성은 원시선민들이 자신의 생존환경 속에서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동식물에 대하여 경위심을 갖게 되고, 점차 자신들이 그 동식물인 토템물과 모종의 혈연적 친속관계를 가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원시적 토템숭배는 모두 원시선민들의 인지능력의 저하단계에서 인식되고 산생되었던 사상인식이다.

79) 施密特 著,『原始宗教與神話』,上海文藝出版社,1987,13쪽.

80) 施密特 著, 위의 책, 131쪽.

81) 富有光,王宏剛 著,『薩滿教女神』,遼寧人民出版社,1995,241쪽.

“토템숭배는 자연숭배에서 시조숭배로 과도하는 단계이다.”⁸²⁾ “토템 숭배는 자연숭배의 기초 상에서 모계사회제도의 수요에 의하여 발전되었다.”⁸³⁾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인지능력이 저하한 모계씨족시기에 출현한 원시토템숭배 사상은 역시 원시종교의 한 부분인 만큼 종교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공동으로 출현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논하게 되는 동북아 경내에 거처하는 만주—통구스어족의 제 민족들에게도 원시종교로서의 한가지인 토템숭배가 예로부터 전해져 왔다. 아래의 실증을 통하여 그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북 고대 소수민족들은 대자연에 대한 숭배 후에 영적 동물에 대하여 숭배를 진행하였다. 그것은 동식물이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으며 지어 보호신으로 받들렸고 군체의 표지로 되었다. 이렇게 토템숭배가 되었으며 토템으로부터 시조신으로 변하였다.”⁸⁴⁾ “토템숭배의 잔여현상은 해방 직전까지도 우리 동북부 알타이어족의 일부 민족 중에서 보류되고 유존(遺存)되어 있었다.”⁸⁵⁾

“청 중엽 이후로부터 오르첸, 어벤키족이 점차 형성되었다. 20세기50년대 자연환경의 제약에 의하여 그들 중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어렵경제를 위주로 하였으며 사회발전은 부계씨족사회의 말기단계에 처하여 있었다.”⁸⁶⁾

“생존환경과 생산력 저하의 제약에 인하여 어렵경제를 위주로 하는 상황이 개변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허저족의 샤머니즘신앙 속에는 아직 비교적 전형적인 자연과 동물숭배의 내용이 남아있다.”⁸⁷⁾ “오르첸족의 사회

82) 奇文瑛, 『滿-通古斯語族民族宗教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5, 108쪽.

83) 王肯 等 共著, 『東北俗文化史』, 1992, 30-31쪽.

84) 王肯 等著, 『東北俗文化史』, 春風文藝出版社, 1992, 31쪽.

85) 王肯 等著, 위의 책, 31쪽.

86) 奇文瑛, 위의 책, 2쪽.

87) 奇文瑛, 위의 책, 10쪽.

력사의 발전이 매우 느리어서 해방 전까지만 하여도 원시사회 말기단계에 처하여 있었다.”⁸⁸⁾ 이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중국 동북부의 만주—통구스어족 중에는 20세기 중엽까지 일부 민족은 아직 원시적인 사회단계에 처하여 있었으며 동물숭배와 같은 토템숭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富有光은 『샤머니즘과 신화』에서 중국 동북부 만주—통구스어족의 샤머니즘 속에서 세대로 전하여 내려온 동식물숭배에 대하여 더욱 심도 깊게 해명을 진행하였다.

“토템숭배는 특정된 함의를 갖고 있으며 그 범위가 비교적 협소하다. 그러나 동식물 숭배는 부동하다. 그것은 모두가 토계씨족시기 친연관계 관념 하에서 산생된 토템숭배의식만은 아니다. 그것은 원시초민의 생산력의 제고, 생산구역의 확대, 생산대상의 증가에 따라 부단하게 풍부화 된다. 원시초민들은 생활의 수요와 정복에 대한 환상, 공제, 크고 흉악한 각종 동물 및 수역(水域), 지역, 초지에 대한 점유욕을 만족하기 위하여 당시 특정지역의 부동한 동식물에 대하여 모종의 신비감과 숭배감을 산생시켰다. 모종 동물에 대한 숭배를 통하여 그것을 정복할 수 있거나 혹은 비교적 순리롭게 그것을 포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로써 숭배관념이 산생되었다. 공포는 신을 산생시킬 수 있으며 수요와 기대도 신을 산생시킬 수 있다.”⁸⁹⁾

이상으로서 보면 중국 북방의 만주—통구스어족 속에도 예로부터 토템숭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종교도 동반하여 전해졌다.

토템의 형성과 북방 제 민족 속의 토템 유전에는 새토템 현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동북아 제 민족을 보면 만주—통구스어족,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놓고 보더라도 예로부터 토템숭배와 샤머니즘 숭배가 존재한다

88) 張風鑄, 蔡伯文 編寫, 『鄂輪春民間文學選』, 內蒙古人民出版社, 1990, 1쪽.

89) 富有光, 『薩滿教與神話』, 辽宁大学出版社, 1990, 40쪽.

는 것은 여러 문헌 속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 속에 토
템숭배가 존재하는 만큼 동물토텐에 속하게 되는 새 숭배의 흔적도 허다하
게 존재한다. 아래에 일부의 논저 속에서 나타나는 새 토텐에 대하여 보기
로 한다.

『동북속문화사』에서는 “동북에서 제일 오랜 부여족의 신화는 梟(부)
를 씨족의 토텐으로 삼고 있다. 梟는 물새의 한 종류이다.”⁹⁰⁾ “呼倫貝爾
盟 陳巴爾虎旗 일대의 에벤키족 중에서 어떤 씨족은 물새를 토텐으로 삼
고, 어떤 씨족은 매를 토텐으로 삼고, 어떤 씨족은 백조를 토텐으로 삼는
다. 어떤 씨족은 작은 새를 토텐으로 삼는다. 그들은 자기 씨족의 토텐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또한 토텐으로 된 새와 짐승을 존경한다. 토텐동물에
대하여 본 씨족성원들이 해쳐서는 안 되며 다른 씨족의 성원들이 해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⁹¹⁾

만주족의 「삼선녀 전설(三仙女傳說)」에서도 까치에 대한 숭배사상이
엿보인다. 만주족의 시조로 받들리는 ‘뿌쿠리용순(布庫裡雍順)’은 백두산
선녀 佛古倫이 까치가 물어다 준 빨강 과일을 먹고 낳았다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까치를 신으로 받들었으며 까치를 토텐으로 보고 숭배를 진행하
고 제를 올리며 종래로 까치를 해치지 않는다.”⁹²⁾ 이와 같이 만주족들은
예로부터 까치를 숭배하고 그에 대하여 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만주족의 제천의식(祭天儀式)을 설명함에 있어서 “민간의 신간
(神杆)은 흔히 구척이나 되는 곧은 나무를 취하여 끝을 깎고 희생제품의
피를 바르고 천신을 대접한다. 끝에 접근하는 부분에는 벼짚을 묶고 우에
오곡과 신에게 올리는 검정돼지의 내장과 온정한 생식기를 놓는다. 이는

90) 王肯 等著, 『東北俗文化史』, 春風文藝出版社, 1992, 32쪽.

91) 王肯 等著, 위의 책, 제33쪽

92) 王肯 等著, 위의 책, 같은 쪽.

까마귀신과 까치신에게 제로 올리는 것이다.”⁹³⁾라고 까마귀와 까치에 대한 만주족의 숭배를 설명하였다.

『中國神話學』에서 葉舒憲은 “상나라 사람들의 선조가 동이인(东夷人)임을 알게 되었고 동이인에게 배일숭조(拜日崇鳥) 풍습이 매우 성행하였다. 상나라 사람 역시 현조(玄鳥)를 숭배하였으며 ‘현조생상(玄鳥生商)’의 신화가 있다.”⁹⁴⁾라고 고대 중국의 상나라 속에도 새숭배 사상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상나라 사람들은 동이(東夷)에 속한 만큼 역시 북방민족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叶舒宪은 계속하여 “하남으로 옮겨간 상나라 사람은 새를 토tem으로 삼았다. 그러나 동방에 남은 동이인의 다른 갈래들 역시 새를 토tem으로 삼았다.”⁹⁵⁾고 기술하였다. 童书业선생의 「魏書·高句麗傳」, 「論衡·吉驗」 등에 대한 고증에서 얻어진 결론인 ‘조이(鳥夷)’에 관한 견해로서의 “그 ‘조이(鳥夷)’란 새를 토tem으로 삼는 부족을 말한다. 더 넓혀서 말하면 고대 중국 동부의 주민들은 많이는 새를 토tem으로 삼았기에 ‘광의적인 조이(鳥夷)라 부른다, 심지어 동북부의 부족 속에도 역시 새를 토tem으로 삼은 유적이 있다.’”⁹⁶⁾를 인용하면서 새 숭배의 증거로 덧붙였다.

『쏘련 원동고고학의 새발견(蘇聯遠東考古學新發現)』에 원동지구 여진족 선민이 남겨놓은 암벽화(薩卡奇—阿梁岩畫)에 물오리 모양의 그림과 백조모양의 그림, 사람의 얼굴모양에 사방으로 불빛이 비치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 그림들로부터 추측하면 여진족의 선조 역시 오랜 옛날로부터 새 토tem 의식과 같은 종교의식과 신화사상이 출현된 것으로 보인다.”⁹⁷⁾고 적혀져 있다. 에벤키족에도 새 숭배가 존재한다. 에벤키족에도 새숭배가 존

93) 富育光, 王宏剛 著, 『薩滿教女神』, 遼寧人民出版社, 1995, 177-178쪽.

94) 叶舒宪, 『中國神話學』, 中國社科學出版社, 1925, 284쪽 재인용.

95) 叶舒宪, 위의 책, 285쪽.

96) 叶舒宪, 위의 책, 같은 쪽.

97) 富育光, 『薩滿教與神話』, 辽宁大学出版社, 1990, 5쪽 참조.

재한다. “에벤키족은 ‘까러뿌러(嘎勒布勒)’를 숭배한다. 즉 일종의 목이 길고 몸이 가는 회색의 물새이다. 이 씨족은 특별하게 그 새를 존경하여 새를 치거나 놀라게 하지 않았다. ‘靠鬧克特’ 씨족의 ‘嘎勒布勒’는 일종의 韩卡流特鳥이다. ‘那妹他’ 씨족의 ‘嘎勒布勒’는 일종의 이름이 ‘烏魯嘎斯’인 새이다. ‘西拉那妹他’ 씨족의 ‘嘎勒布勒’는 ‘海嘎嘶’ 새(몸이 검고 머리 위가 흰 ‘嘎嘶’ 새)이다. ‘造魯套特’ 씨족의 ‘嘎勒布勒’는 매이다. ‘杜拉爾’ 씨족의 ‘嘎勒布勒’는 ‘給連恩道勒’라 부르는 산이다. ‘我烏特巴亞基爾’ 씨족의 ‘嘎勒布勒’는 백조이다.” 98) 여기서 말하는 “嘎勒布勒”는 토렘물에 대한 명칭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허저족 등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신앙이 있다. 허저족의 민간 구두문학(民間口頭文學) ‘依瑪堪’에서 가송(歌頌)하는 인격화된 토렘조신(鳥神)으로서의 ‘闊里’는 매신(鷹神)이다. 또한 여샤먼으로서의 神武无敌의 상징이다. 허저족의 창세신화에서 최초의 인류를 ‘卡德’라 불렀다. 어떤 것은 ‘霍代’라 불렀다. 오르첸족은 ‘霍斗’, ‘哈斗’ 등으로 불렀는데 모두 중국어 현조(玄鳥)의 동명이음(同名異音)이다. 허저족이 후에 부계씨족으로 진입한 후 ‘卡德’를 남성으로 불렀다. 그러나 역시 여성시조의 본래 면모가 엿보인다.” 99)

이 상은 북방 만주-통구스어족 등에 대한 논저에서 나타나는 새토템 숭배의 문헌적 실증들이다. 이외에 이와 같은 민족 속에서 전하는 설화들을 통하여서도 역시 새토템 숭배의 실증들을 엿볼 수 있다. 黃任遠은 『통구스-만주어족 신화 연구』에서 “새토템 신화전설 — 만주족에 「신웅(神鷹)」, 「백조선녀」, 「鄂多瑪發」, 「沙克沙思都历」, 「多龍格格」; 허저족에 「闊力」, 「백조처녀」, 「기러기처녀」, 「원앙새」, 「巴托力与爱赫思」; 오

98) 富育光, 『薩滿教與神話』, 辽宁大学出版社, 1990, 제39쪽.

99) 富育光, 위의 책, 같은 쪽.

르첸족에 「비룡조(飛龍鳥)」의 전설; 시버족에 「독수리」, 「까마귀」, 「기러기부부(夫妻雁)」, 「빠꾸기」, 「제비」, 「물고기 잡는 새(捕魚鳥)」, 「앵무새의 전설(鶯歌的傳說)」 등¹⁰⁰⁾으로 통구스-만주어족 속에서 전승되는 토템색채가 짙은 동식물신화를 분류하면서 새토템 설화를 앞과 같이 열거하였다.

이 외에도 새토템 내용을 나타내는 설화들로 만주족의 「삼선녀」, 「백조의 이야기」, 「앵가령(鶯歌嶺)」, 오르첸족의 「삼선녀(三仙女)」, 「안타나(安塔奈)」, 「송탄모르겐과 선녀 애미연(松坦莫日根和仙女埃米艷)」, 「건강보호신의 전설」; 에벤키족의 「오누이」, 「비둘기의 복수」; 시버족의 「독수리와 두 형제」; 허저족의 「백조호의 이야기」; 그리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민족 속의 「연오랑과 세오녀」; 일본민족의 「백조릉(百鳥陵)」, 「일곱마리 백조」, 「선학처(仙鶴妻)」, 「백조누나(百鳥姐)」 등의 설화들을 들 수 있다. 물론 이상에서 말한 설화들 외에도 더 많은 새토템을 보이는 설화들이 있다.

“대량의 민족예술 자료를 통하여 보면 알타이어계 통구스어족 계통의 각 북방민족이 공동으로 매, 비둘기, 새, 까치 등 조류에 대한 숭배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생활 자체와 종교신앙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다.”¹⁰¹⁾

북방 제 민족 속에서 형성된 원시문화 인식은 근거 없이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자체의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들은 북방의 자연생활 조건하에서 생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 중에 북방의 지역적 특색을 띤 의식형태를 형성시켰다. 중국의 동북부와 시베리아 및 원동지역은 세계상에서도 조류들의 집거지의 하나로 되어있다. 이 지역은 많은 조류의

100) 黃任遠, 『通古斯—滿語族神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45쪽.

101) 黃任遠, 위의 책, 278쪽.

서식지로 될 뿐만 아니라 북방 제 민족 선민들의 생활거주지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원시선민들은 조류들과 공존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많은 조류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원시선민들에게 있어서 조류는 먹이사슬의 한 고리로도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실용성적인 도움을 가져다준다.

“인간은 그 어떤 초인간적인 실체를 빌어 동물계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물에 의존하여서 동물계로부터 이탈하였다. 인간 생존의 최초에는 완전하게 동물에 의존하였다. 때문에 인간의 생명력이 의외하게 되는 사물은 최종 필연적으로 신성화되고 인류자신의 이상에 거처하게 된다.”¹⁰²⁾ 엔겔스는 “인간은 자아발전 과정에서 기타 실체로부터 오는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체는 고급적인 실체가 아니며 천사도 아니다. 다만 저급적인 실체인 동물인 것이다. 이로써 동물숭배가 산생되었다.”¹⁰³⁾고 인류발전에 있어서의 동물의 존재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상의 학설로 보아 생산력이 낙후한 원시선민들에게 食物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 되었으며 그것은 동물로부터 섭취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고급동물로서의 인간이 동물계와 벗어나게 됨에는 동물들의 공헌이 무엇보다도 크다.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다준 동물들에 대하여 감격을 표시하게 된다. 이는 역시 동물숭배의 근본원인의 하나로 된다.

생산력이 약하고 과학지식이 빈약한 원시선민들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신비감을 느끼게 되고 숭배하게 된다. 새들에 대한 원시선민들의 인식도 역시 이에 적용될 수 있다. 새는 원시선민들에게 있어서 초인간적 능력을 갖춘 대상으로 인

102) 朱狄, 『原始文化研究』, 三聯出版社, 1988, 532쪽.

103) 朱狄, 위의 책, 532-533쪽.

식되게 된다. 새는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심지어 바다와 같은 깊은 물속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또한 따뜻한 봄철에는 해가 높이 떠있는 남방에서 날아오고 추위가 오는 늦가을에는 따뜻한 남방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로써 새는 원시선민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자(使者)로도 보이게 되고, 빛과 열을 가져다 주는 태양의 대용물로도 된다. 그리고 봄과 가을, 계절의 바뀜을 정확하게 맞추어 오가는 새들은 또한 원시선민들의 농경과 어렵, 제의 등에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의 수송자로 된다. 이와 같은 초인간적 능력에 의하여 새는 신격화 되고 숭배의 대상으로도 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부의 새가 태양조(太陽鳥)로도 토렘화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을 듯하다. 인간들이 모종의 자연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어느 정도 그의 숙박을 받게 될 때 자연적으로 인간 자신의 감수성에 의하여 경위감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인간화적인 추론을 하게 되고 지어 숭배하게 된다.

새토템의 형성은 원시선민들의 인지능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 자신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새들에 대한 숭배는 먹이(닭, 오리, 거위 등이 그 예로 될 수 있다)로 되어주는데 대한 고마움뿐만이 아니라 다만 경위심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까마귀와 까치 등에 대한 숭배가 바로 경위심에서 산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한 원시적 상상력에 의하여서 형성될 수도 있다. 신화 속에 자주 나타나는 봉황(鳳凰), 봉새(鵬), 삼족오(三足鳥) 등을 보면 바로 인간의 상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에 대한 숭배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제 민족 원시선민들의 영금숭배는 고대문화관념의 반영이며 또한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동북아 제민족 속의 이와 같은 새에 대한 숭배사상은 기타 지역 민족의 새토템 현상과도 일정한 공통성을 갖고 있을 것이며 그 산생과 형식도 대

동소이(大同小異)할 것이다. 다만 다른점이라면 생활구역의 차이성에 의하여 일어나는 지역적 특수성의 존재일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중국 동북부와 시베리아 및 원동지역은 지구상에서도 큰 조류들의 집거지의 하나인 만큼 이 지역은 백조와 학 등 새들의 주요 서식지가 된다. 백학과 백조는 모두 중국 북방과 시베리아 등 지역에서 번식하며 월동기에는 중국의 남방에서 생활한다. 중국의 파양호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백학 월동기지로서 전 세계 98% 이상의 수를 차지하며 28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동북아 제 민족 원시선민들은 백조, 학 등 조류들과 장기적인 공존 속에서 그들에 대하여 신비감을 느끼게 되고, 신격화하고, 숭배를 진행하면서 설화와 같은 서사문학 작품 속에 체현시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동북아 제 민족 속에 전승되는 각양각색의 백조처녀형 설화의 형성도 이와 같은 원인과는 분리할 수 없다.

2. 백조처녀형 설화의 전승

1) 백조처녀형 설화의 발상

동북아 제 민족 속의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그 분포와 전승 양상, 그리고 설화의 내용과 구조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필자 나름대로 이 유형 설화들의 분포와 발상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가 다루는 지역범위는 동북아시아로 한정되어 있으나,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시베리아와 중국 내륙지대, 티베트, 심지어 인도와 타이, 베트남 등 남아시아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 지역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후 다시 그 중심을 동북아 경내란 연구범위와 제 민족들에 집중시킨

다면, 동북아 제 민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전파과정과 발상, 전승 양상의 면모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설화를 크게 내용과 화소, 구조 등 면으로 나누어보고, 다음으로 설화 속에서 출현되는 인물, 보조자, 동식물, 민족특색을 띤 특수한 풍속 등과 같은 일부의 미세한 점들에 대하여 대비 분석을 진행하면 대체적으로 이 유형 설화들의 분포와 발상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전승 양상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로 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대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우선 이 유형 설화를 크게 3개의 범위로 확정하였다. 즉 남방계 설화, 북방계 설화, 그리고 중국 내륙지대를 포함한 중원계 설화이다.

남방계 설화는 주로 불전(佛典)설화들을 그 내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서 예를 들면 중국 남부의 타이족(傣族) 속에서 전승되는 「召樹屯」¹⁰⁴⁾설화가 그 전형이 될 수 있다. 「召樹屯」설화의 근원 설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이 설화는 중국 타이족(傣族) 속에서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승범위가 타이, 미얀마의 북부 지역에서도 유전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설화가 인도의 고전불전과 베트남, 티베트 등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의 특성을 보면 모두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리고 설화 속에 나타나는 지역민들의 생활방식도 농경과 수렵생활을 위주로 하고 있다. 설화의 여주인공도 똑같이 열대에서 생활하는 공작새가 변신한 여조(女鳥)의 형상이다.

북방계의 설화들을 보면 주로 중국의 북부, 시베리아 등지에서 생활하는 수렵을 위주로 하는 수렵민족과 유목민족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04) 「召樹屯」설화는 중국 남부의 타이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한 유형이다. 설화 속의 선녀는 공작새가 변한 선녀이다. 주인공이 선녀의 날개옷을 숨기고 그와 결혼을 한다. 후에 선녀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주인공이 갖은 고난을 겪은 후 선녀와 다시 상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화들은 새토템 사상과 북방 샤머니즘 등의 원시 종교사상의 흔적들이 다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설화들에서 남주인공은 사냥꾼으로, 여주인공은 백조, 학 또는 북방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물새들로서 역시 변신 능력을 갖춘 여조(女鳥)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중원계 설화는 주로 중국 내륙지방의 한족(漢族)들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들로서 기타의 두 계열과 비교하면 그 유형이 비교적 단일하다.

한족(漢族)민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는 주로 “毛衣女” 유형과 “우랑직녀(牛郎織女)” 형의 “칠석(七夕)” 풍속과 관련한 설화들로 구성된다. 이 설화들은 신귀괴담설(神鬼怪談)과 도가의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毛衣女”의 여주인공은 물새로서 변신능력을 가진 여조들이다. “우랑직녀”의 여주인공은 하늘의 선녀 형상으로서 이미 새와는 무관한 천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설화들은 모두 벼농사와 같은 농경생산의 생활방식이 바탕으로 되어있다.

남방계 설화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고 형성되었으며 또한 불전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에 불전설화라고도 볼 수 있다. 북방설화들은 유목민족들의 시조와 영웅의 탄생, 그 생활지역의 풍속, 어원(語源) 등에 대한 해석들로 되어 있기에 시조설화, 석원(釋源)설화로도 볼 수 있다. 중원계의 설화들은 괴담(怪談)설화와 천상(天象)과 풍속에 관한 석원(釋源)설화라고도 볼 수 있다.

중국의 유수화(劉守華)는 중국 백조처녀형 설화의 변이과정에 대하여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제1대 이문(異文)은 사람과 새의 결합이다. 어떤 새를 시조로 삼아 숭배한다; 제2대 이문은 사람과 새의 결합 정절(情節)이 첨가되었다. 옷을 훔쳐 결혼하고 선녀가 우의(羽衣)를 찾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제3대 이문은 남편이 아내를 찾는

정절이 첨가되었다; 제4대 이문 중에는 남녀 주인공의 신분이 왕자와 공주로 승화되었고 그들이 혼인의 이별과 상봉 과정 속에서 전쟁, 종교 충돌 등등을 삽입하여 더욱 복잡한 정절을 구성시켰다.”¹⁰⁵⁾

이상의 단계적 분류는 내용발전 상으로 진행한 분류인 만큼 선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상 백조처녀형 설화들의 출처와 산생 시기 혹은 문헌적 기록상의 시간을 따져 보면 일정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앞에 예를 들었던 남방계 설화에 속하는 「召樹屯」설화의 근원설화 기록을 보면 「毛衣女」와 같은 사람과 새의 결합인 ‘女鳥’ 설화보다도 기록시간이 꽤 오랜 시기로 고증된다. 이 근원 설화들에서 어떤 설화의 인물은 ‘왕자’와 ‘공주’ 등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다. 또한 ‘전쟁’, ‘아내 찾기’, ‘우의를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다’는 등 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 즉 「召樹屯」의 근원설화들은 유수화의 제4대 이문의 형태와 같으나 그 시기로는 제1대와 제2대의 기록 시기보다도 오래다.

필자는 이전 학자의 단계적 분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고, 백조처녀형 설화의 변이 특성에 따라 단계적 변이과정을 새로 세 개의 단계로 확정하였다.

제1단계는 여주인공이 사람과 새의 변신능력을 가진 여조(女鳥)형상의 단계이다.

제2단계는 여주인공의 신분이 여조에서 여신으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설화 속의 여주인공 형상이 일부 종교사상의 영향 하에 새로부터 동물적 속성을 벗고 선녀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설화의 후반부(혹은 다른 부분)에 기타의 삽입형이 결합되어 여러 아류형을 낳는 단계이다.

105) 陳建憲, 「論中國天鵝仙女故事的類型」, 『民間文學研究』, 제2기, 1994, 67쪽 재인용.

이와 같은 단계적 분석은 설화들의 발상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대체적인 맥락을 보여줄 수 있다.

동북아 제 민족 속에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발상을 놓고 볼 때 필자는 다원발생설(多元發生說)을 주장하고자 한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형성은 그 어느 한 지역, 혹은 어느 한편의 설화에서 기원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그 원인은 아래와 같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설화 자체가 여러 개의 부동한 화소를 갖고 있고, 이 화소들은 설화의 주제 하에서 합리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또한 그 설화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역할을 한다. 설화의 기본 화소들이 설화구성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그 ‘정형화’된 구조에 기타의 모티프와 내용의 첨가로 더욱 많은 복합형 설화를 형성시킨다. 그 ‘정형화’된 구조와 주제를 놓고 보면 일정한 민족적,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한 지역과 민족 속에서 이루어진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설화들은 일정한 설화 유형의 기본형으로 되어 설화의 발상으로 될 수 있다. 때문에 필자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발상을 어느 한편의 원형, 한 시점에서 발전되었다는 견해보다 다원적 발생설에 더욱 찬동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의 설화들에서 역시 일원적인 발생이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설화 자체는 일종의 문학창작물로서 구연자가 충분한 상상력과 창작능력을 지니고 있고, 청중들이 능히 수용할 수만 있다면, 이 유형의 설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많은 새로운 유형을 낳을 수도 있다. 다만 현대 매체의 발전에 따라 구전문학의 주된 지위가 상실되고, 연행 장소가 점점 적어지며 이 유형의 설화가 재창작되고 새 설화로 정착되는 시간이 모자람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출현은 더욱 힘들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2) 백조처녀형 설화의 분포와 전승

동북아 백조처녀형 설화들은 앞서 이야기한 남방계 설화, 북방계 설화, 중원계 설화에서 주로 북방계 설화에 속한다. 그리고 여러 문헌 속에서 보고된 동북아 제 민족 속에서 전승되는 설화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 만주-통구스족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보면 민족별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볼 수 있다.

만주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은 「女真族源傳說」, 「三仙女」, 「滿洲의起源」, 「布庫裡雍順」, 「天池緣」, 「天女浴窮池」, 「天鵝仙女」 등 설화 외 기타 설화를 포함하여 모두 12편이 각 문헌 속에 기록되어있다.

시버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보면 「鵝娘鵝聶納納」, 「放牛娃和仙女」, 「짜루산과 메이추이(扎魯山與梅翠)」, 「洁汾皇帝无妻家, 力微皇帝无母家」¹⁰⁶⁾ 등 4편의 설화가 있다.

오르첸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를 보면 「건강보호신의 전설(健康保護神의傳說)」, 「安塔奈」, 「攸來」, 「松坦和仙女埃米艷」, 「小伙與太陽姑娘」 등 설화 외 모두 6편이 있다.

허저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를 보면 「무쭈린 탄생설화(木竹林)」과 「칠녀봉전설(七女峰傳說)」 등 2편의 설화가 있다.

에벤키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로는 「本迪安本の 전설」, 「에벤키인이 이야기하는 우랑(鄂溫克人講的牛郎)」 등 설화 2편이 있다.

한국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는 수량 상으로 중국 만주-통구스족에 비하여 훨씬 많다. 한국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는 「나무꾼과

106) 「洁汾皇帝无妻家, 力微皇帝无母家」는 북위 개국황제 전설이다. 欠寶學 主編, 「錫伯族民間故事集」, 辽宁民族出版社, 2002, 133-134쪽.

선녀」로 되어 있으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45편 이상이 되는 각편들이 있으며, 기타의 문헌과 채집자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배원룡은 『나무꾼과 선녀설화연구』에서 한국에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 145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서은아는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부부갈등 연구』에서 56편의 설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반도의 백조처녀형 설화는 기본상 난제형이 많으며, 설화의 형성도 본토 형성이 아니라 외부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손진태는 「금강산선녀전설」과 브리야트족의 죽원설화와 비교를 진행하면서 몽고 설화에서 그 근원을 찾아보았다.¹⁰⁷⁾ 그러나 브리야트족의 전설에 여주인공은 백조가 변한 여인이고, 아내를 찾는 모티프와 난제해결의 화소가 없다. 그러나 「나무꾼과 선녀」는 여주인공이 여조(女鳥)가 아니라 선녀로 되어 있으며 아내를 찾는 화소와 난제해결이 존재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한반도의 「나무꾼과 선녀」는 남방계의 난제형 설화가 유입되었다가 도가(道家) 신선사상에 영향을 받아 여조가 선녀로 바뀐 듯하다. 또한 한반도 전승의 백조처녀형 설화는 비교적 단일하며 기타 지역과 같이 여러 유형의 설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거의 없다.

일본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는 ‘羽衣傳説’이라고도 불리우며 전반 일본 열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고 그 양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宮本岡洋(미야오카 히로코)의 연구로 보면 『日本昔話事典』에 수록되어 있는 백조처녀형 설화만 하여도 약 130편이나 된다. 遠藤莊治(엔드쇼지)는 류큐권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인 ‘天人女房’ 57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羽衣傳説’은 그 설화 모두가 본고에서 말하는 백조처녀형 설화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설화들은 본고에서 다루는 백조처

107) 손진태 저, 「손진태선생전집6」, 태학사, 1981, 297-302 참조.

녀형 설화와 달리 선녀의 ‘羽衣’에 중심을 두고 인간 남성과 ‘혼인’을 이루는 주제가 아닌 설화들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백조처녀형 설화는 그 유형으로 놓고 볼 때 동북아 제 민족 속에서도 다른 민족에 비하여 설화의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는 아마 일본의 지역적 특색과 관계된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북쪽은 러시아와 인접하여 있고, 남쪽은 류큐군도까지 뻗어 남아시아와 접근하여 있고, 바다를 두고 한반도와 중국 연해지대와 마주하고 있다. 또한 해상으로 남쪽 태평양에서 일본해협까지 난류가 지나감으로 옛부터 일본은 해상통로를 통하여 인접 나라와 교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본 민족의 구성을 보더라도 6개 인종의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백색인종인 옛 아이누족, 황색인종인 남 통구스족, 인도 지나(支那)인, 중국의 한인(漢人), 흑인종인 니그리토(negrito)인, 인도네시아인 등 6인종이 혼합하여 근대 일본인을 형성하였다.”¹⁰⁸⁾ 인종은 문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인류학 상의 일대 원칙이다. 일본 민족을 구성하는 6개의 인종이 각기 부동한 문화를 일본에 가져왔으며 일본문화의 구성에는 적어도 시베리아문화, 중국문화, 인도문화 등 3대요소가 들어있다.¹⁰⁹⁾ 때문에 인종과 문화의 기원이 복잡한 만큼 유전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도 유형상으로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제 민족과 남아시아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의 분포와 전승 양상을 도표로 귀납하여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108) 西村真次 著, 「文化移動輪」, 李宝瑄 譯, 上海文化出版社, 1989, 17쪽 참조.

109) 西村真次 著, 위의 책, 제18쪽 참조.

표1 백조처녀형 설화의 아시아 분포와 전승 양상¹¹⁰⁾

유과 지역 양상	남방계					중원계		북방계						
설화	緊那羅	普蘭天故事	召樹屯	나무꾼 선녀	余與胡的天女	毛衣女	牛郎女	烏爾策和庫克基	브리트인의원	本迪安木的傳說	攸來	扎魯山與梅翠	木竹林	만주 의 기원
지역	인도	중국 티베트	중국 운남	한반도	일본	중원지역		시베리아	중국 북방					
민족	인도	티베트족	타이족	한국	일본	한족(漢族)		에벤키족	몽고족	에벤키족	오르첸족	시버족	허저족	만족
여주인공	女鳥	선녀	女鳥	선녀	女鳥	女鳥	仙女	女鳥	女鳥	女鳥	仙女	仙女	仙女	仙女
속성	女鳥	仙子	女鳥	仙子	女鳥	變身	仙子	女鳥	女鳥	女鳥	仙子	仙子	仙子	仙子
남주인공	왕자	국왕	사냥꾼	나무꾼	사냥꾼	농민	목동	사냥꾼	사냥꾼	사냥꾼	사냥꾼	나무꾼	칸汗	천신
선녀강신방식	날개 옷	목걸이	날개 옷	天衣	우의	날개 옷	天衣	날개 옷	날개 옷	날개 옷	날개 옷	선학	선학	天衣
沐浴	×	√	√	√	√	√	√	×	√	×	√	√	√	√
결혼방식	자원	자원	강박	강박	강박	강박	자원	강박	강박	자원	강박	강박	강박	강박
결국	재상봉	재상봉	재상봉	이별	이별	이별	이별	재상봉	이별	이별	재상봉	재상봉	이별	이별
자녀	×		×			√	√	×	√	√	√	√	√	√
종교양상	불교	불교	불교	도교	도교		도교	샤머니즘		샤머니즘	도교, 샤머니즘	도교	도교	도교
結局	희극	희극	희극	비극	비극	비극	비극	희극	비극	비극	희극	희극	비극	비극

110) 이 표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분포와 비교에 요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구대상 외의 지역과 설화들을 첨가하였다.

Ⅲ.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

1. 백조처녀형 설화 유형 분류 양상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유형분류를 앞서 백조처녀형 설화란 무엇인가와 그 기본구조의 형식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백조처녀형 설화를 일본에서는 ‘羽衣傳説’¹¹¹⁾라 부르고 유럽에서는 ‘백조처녀전설’ (swan maiden tales)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나무꾼과 선녀’라 하고, 중국에서는 ‘天鵝處女型故事’로 부른다.

水野裕는 “전 세계에 이 전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총괄하여 백조처녀설화(swan-maiden tale)라고 부른다. 혹은 鳥女說話(Bird-maiden tale)라고도 말하고 있다. 백조가 여자로 변신하여 인간의 남자와 결혼하는 형태가 원형으로 되고, 백조처녀설화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다. 지리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나 백조에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鵠, 鳩, 鴨, 小鳥, 鷹, 鸚鵡, 海鳥로 나타나기도 한다.”¹¹²⁾라고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중국의 彭松喬는 “소위 백조처녀형 설화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한 총각이 백조 혹은 백학 등 조류로 변하여 인간계에 내려온 선녀와 부부를 맺은 민간이야기를 말한다.”¹¹³⁾라고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111) 손진태,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을유문화사, 1981, 193쪽.

112) 水野裕, 『羽衣傳説の探究』, 産報, 1977, 98쪽.

113) 彭松喬, 「禁忌藏“天機”」, 『民間文學研究』, 2004, 제4기, 59쪽.

요셉 죠크부스(Mr. Joseph Jacobs)가 수정한 골드(S. Bring Gould)의 『印度歐羅巴民間故事形式』에서도 백조처녀설화를 적었는데 그 내용이 아래와 같다. 1. 한 남자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것을 보았다. 그녀는 “법술 지닌 옷”을 언덕에 벗어놓았다. 2. 남자가 그 옷을 훔친다. 그녀는 남자의 권력에 속박된다. 3. 몇 년 후 그녀는 옷을 다시 찾아입고 달아난다. 4. 남자는 다시 그녀를 찾을 수 없게 된다.¹¹⁴⁾

일본의 西村真次는 이 설화의 ‘본래형태’를 1. 백조가 우의를 벗고 천녀(인간인 여성)로 변하여 목욕한다. 2. 남자(주요한 것으로서 사냥꾼 혹은 어부이다)가 우의를 훔치고 천녀를 강박하여 결혼한다. 3. 결혼 후 아이 몇 명을 낳는다. 4. 아이를 낳은 후 부부관계가 파멸되고 천녀가 승천한다. 5. 파멸된 원인은 바로 전에 결혼의 원인으로 숨겨진 우의 때문이라고 귀납하고, 현재 지구상 각지에 전승되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은 모두 이 “기본형”에서 분화되고 가감되어 이루어졌다고 한다.¹¹⁵⁾

스트스 톰프슨은 “주인공은 여행을 하다가 물가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소녀들을 보게 된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백조의 옷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사실은 백조로 변한 소녀들임을 알게 된다. 주인공은 백조의 옷 가운데 하나를 훔치고 그 옷의 주인인 백조 소녀에게 만일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소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백조로 변하여 그를 태우고 아버지의 집으로 날아가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¹¹⁶⁾라고 설화의 줄거리를 귀납하였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인간과 이계 여성과의 혼인을 주로 다룬 설화로서 神婚故事(여주인공이 선녀일 때) 혹은 인간과 동물과의 교혼으로 된 怪婚故事(여주인공이 백조 등 새로 나타날 때)로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여주인공

114) 鐘敬文, 『鐘敬文學術論著自選集』,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4, 330-331쪽 참조.

115) 鐘敬文, 위의 책, 331쪽 참조.

116) 스티스 톰슨, 『설화학원론』, 윤승준·최광식 역, 계명문화사, 1992, 107쪽.

은 새 (鳥) 로 나타나거나 혹은 선녀로 나타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초인간적 능력을 갖춘 인간과 대립되는 異界의 존재로 되어있다.

한 인간계에 속하는 남자가 어떤 계기를 전제로 하여 물속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한다. 그 목욕하는 여자(들)은 남자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외의 異界에 소속되어 있는 영(靈)적 존재 대상이다. 그녀들에게는 하늘을 날아 오르내리는 신기한 옷(天衣 혹은 羽衣)을 갖고 있다. 남자는 교혼의 욕망으로 한 여인의 신기한 옷을 숨긴다. 옷을 잃은 여인은 자기의 영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며 남자와 부부로 맺어진다. 결혼한 후 그녀는 어떤 계기로 하여 숨겨졌던 신기한 옷을 발견하고 자기의 원 영지로 돌아간다. 위의 내용은 세계 범위 내에서 유전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의 기본 타이프로 볼 수 있다. 기타의 많은 유형들은 모두 이와 같은 기본 타이프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그 속에 다른 에피소드 혹은 화소들이 삽입되어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스티스 톰슨은 일찍 『설화학원론』에서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한적이 있다. 스티스 톰슨은 백조처녀형 설화의 세계적 분포에 대하여 “한 구전담으로서도 널리 분포되어 있다.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프리카 전역과 오세아니아의 일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각 문화권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자마이카, 유카탄, 기애너 인디언들에서도 가끔씩 보고되고 있다. …… 놀랍게도 북극에서 수백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스미스 사운드 에스키모(smith sound Eskimo)들에게서도 목욕하는 소녀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였다.¹¹⁷⁾

117) 스티스 톰슨, 윤승준·최광식,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108쪽.

스티스 톰슨의 서술에 의하면 백조처녀형 설화는 범세계적 범위내에서 여러 부동한 민족 속에서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와 같이 범 세계적 범위내에서 전승하는 설화인 만큼 그 유형도 단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 범위내의 많은 학자들이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에는 이 설화의 유형분류에 대하여 연구작업을 진행한 학자들도 적지 않으며 각기 귀중한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다.

우선, 구미(歐美)학자들이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연구를 보기로 한다.

하트란드(Dr · E · S · Hatrland)는 『동화의 과학』(science of Fairy-Tales)에서 설화의 인물과 주요특징에 의거하여 설화를 해생식(海生式), 평양후식(平陽侯式), 바다표범여랑식(海豹女郎式), 별소녀식(星女兒式), 메로시닉(梅露西尼式), 악몽식(夢魘式)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¹¹⁸⁾

그러나 종경문은 하트란드의 분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제기하였다. “여기에서의 각 유형은 상호간에 고도로 되는 차이성을 갖고 있다. 심지어 우리들을 놀랍게 하고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이 설화들이 원래 한개의 유형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¹¹⁹⁾

스티스 톰슨은 『설화학원론』에서 이 설화를 타입 465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타입 313 <주인공의 탈출을 도와주는 소녀>, 타입400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다니는 사람>, 타입465A <익명의 아내에 대한 탐색> 등 세가지 유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부의 모티프 D361.1 <백조소녀>, 모티프 D671 <변신탈출>, 모티프 D672 <장애물탈출>, 모티프H310<사위과제>등은 다른 설화에서도 공동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¹²⁰⁾

118) 鍾敬文, 『鍾敬文學術論文自選集』,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4, 330쪽, 362쪽 주석1 참조.

119) 鍾敬文, 『鍾敬文學術論文自選集』,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4, 330쪽.

120) 스티스 톰슨, 윤승준·최광식,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107-114쪽.

丁乃通은 『中國民間故事類型索引』에서 중국 경내에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를 독자적으로 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313A<소녀가 영웅을 도와 탈출하다>, 313A<영웅과 신녀>, 400 <남편이 아내를 찾다>, 400 <신선반려의 실종(仙侶失蹤)>, 400D <기타 동물이 변한 처>, 465 <아내의 총명과 미모 때문에 남편이 해를 받다>등 타이프에 귀속시켰다.¹²¹⁾

중국학자들의 분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종경문은 중국경내에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최초로 분류작업을 진행한 민간문화 연구가이다. 그는 중국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진행하였다. 종경문은 백조처녀형에 대하여 네개의 조로 분류하고 다만 ‘우랑식(牛郎式)’과 백조처녀형 설화의 한두 가지 정절을 포함한 「공작새 옷」(孔雀衣)과 같은 설화를 ‘백조의 형(百鳥衣型)’이라고 명확히 말하였을 뿐 기타 두 조의 설화에 대하여서는 명명하지 않았다. 필자는 나머지 두 조 설화의 내용과 기본형태에 의하여 ‘난제형’, ‘엄마찾기형’으로 유형 분류를 하였다.¹²²⁾ 즉 종경문의 유형 분류는 ‘우랑식(牛郎式)’, ‘백조의형(百鳥衣型)’, ‘난제형’, ‘엄마찾기형’으로 된다.

종경문의 중국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분류연구 작업은 후세 학자들의 연구에 보다 큰 기여를 하였지만 오늘날의 연구 각도로 보면 일정한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번째 종류의 분류에서 우리들은 남자가 옷을 훔쳐 아내를 얻거나 혹은 아이가 옷을 훔쳐 어머니를 찾는 모티프를 찾기 힘들다”¹²³⁾고 郭俊紅은 자신의 저서『天鵝處女型故事』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피력한 바 있다.

121) 丁乃通, 『中國民間故事類型索引』,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8, 52쪽, 54쪽, 70쪽, 72쪽, 78쪽, 96쪽.

122) 鐘敬文, 위의 책, 제336-346쪽.

123) 郭俊紅, 『天鵝處女型故事』, 中國社會出版社, 2010, 134쪽.

汪玢玲은 「天鵝處女型故事研究概觀」에서 중국 경내의 20여개 민족 속에서 전승되는 부동한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창세기조형(创世始祖型)’, ‘공작새공주형(孔雀公主型)’, ‘백조의형(百鳥衣型)’, ‘우랑직녀형(牛郎織女型)’, ‘천우금형(千羽錦型)’ 등 5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다. “난제형은 각 유형 속에 거의 다 출현하기에 특별하게 한 유형으로 논술하지 않는다.”¹²⁴⁾고 汪玢玲은 자신의 분류에 대하여 부차적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설에서 汪玢玲은 ‘난제형’의 존재를 분명히 의식하면서도 단독으로 한개의 유형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여러 유형 속에 거의다 출현하기에 유형의 명확한 분류에 많은 애로를 겪었음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분류의 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난제형’은 분류하지 않았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즉 汪玢玲의 분류 역시 일정한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 학자들의 수궁을 받기 힘들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진건헌(陳建憲)은 「論中國天鵝仙女故事的類型」에서 백조처녀형 설화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원형(原型)’, ‘새아이의 엄마 찾기형(鳥仔尋母型)’, ‘난제구혼형(難題求婚型)’, ‘미모의 처로 해를 입는 형(妻美遭害型)’, ‘족원전설형(族源傳說型)’, ‘동물보은형(動物報恩型)’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난제구혼형’에 ‘홍수이민아형(洪水移民亞型)’, ‘우랑직녀아형(牛郎織女亞型)’, ‘공작새공주아형(孔雀公主亞型)’과 ‘미모의 처로 해를 입는 형’에 ‘무명찾기 아형(尋無名亞型)’, ‘백조의 아형(百鳥衣亞型)’ 등 두 유형에 한하여서는 그 아류형까지 분류하였다.¹²⁵⁾

진건헌은 「모의녀(毛衣女)」를 중국 백조처녀형 설화의 제일 오래되고,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원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124) 汪玢玲, 「天鵝處女型故事研究概觀」, 『中國民間文學論壇』, 1983, 제1기, 40-50쪽 참조.

125) 陳建憲, 「論中國天鵝仙女故事的類型」, 民間文學研究 第2期, 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研究所, 1994. 62-68쪽.

진건현의 일원설(一源說)의 출발점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내의 기타 민족 속에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유형과 그 형태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일원설’이 가히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가 문제점으로 된다. 필경 현행 연구의 상태로 보아 백조처녀형 설화의 원두를 찾아내기란 아주 힘든 일이며, 또한 여러 민족과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발굴되는 백조처녀형들은 ‘다원설(多源說)’의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원설’은 어딘가가 당돌한 감을 주기도 한다.

유수화(劉守華)는 중국 백조처녀형 설화는 4개의 발전단계를 거쳤다고 설화의 변이에 근거하여 분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류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제4대와 같은 이문의 경우는 문헌기록으로 보면 제2대와 같은 이문보다도 시간적으로 더욱 오래다. 심지어 제1대 이문보다도 더 오랜 시기로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한 설화의 원형과 설화의 출현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단계적 분류를 과도하게 세밀화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옹당히 문헌 기록의 시간과 설화의 내용 구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피면하고 통합적인 고찰 하에 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정확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칠릉운(漆凌雲)은 『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에서 ‘시조류(始祖類)’, ‘득처류(得妻類)’와 ‘순모류(尋母類)’로 세개의 ‘유’로 나누고 ‘득처류’의 하위 유형으로 ‘목욕계열(沐浴系列)’에 ‘수전과괴형(破壞水田型)’, ‘보은형(報恩型)’, ‘우랑직녀형(牛郎織女型)’, ‘보물찾기형(尋寶型)’, ‘왕자와 공작새공주형(王子與孔雀公主型)’, ‘요괴처지형(除妖型)’, ‘탐욕으로 벌 받는 형(貪心受罰型)’과 ‘우의계열(羽衣系列)’에 ‘도작형(稻作型)’, ‘우렁각시형(田螺姑娘型)’, ‘용녀형(龍女型)’, ‘기이한 동반자형(神奇伙伴型)’, ‘화중인형(畫中人型)’으로 나누었다. ‘순모류’의 하위유형으로 ‘술사인도형(巫師指引型)’과 ‘난제형(難題型)’으로 나누었다.¹²⁶⁾ 칠릉운의 유형분류는 이 유형의 설화들

을 한개의 설화군으로 간주하고 상위유형과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비교적 세밀한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류에서 보다 세밀화한 분류 작업에 치중하다보니 여러 유형의 구분상에서 모호한 점들이 많이 나타난다. 저자는 ‘목욕계열’과 ‘우의계열’로 나누고 있지만 실상 설화들을 읽어보면 ‘우의계열’의 설화 속에 ‘목욕’의 모티프가 동반하는 설화가 많고 ‘목욕계열’의 설화 속에도 선녀가 ‘우의’를 갖춘 설화들이 상당히 많다. 이상의 문제점으로 보아 칠릉운의 분류작업에서의 시발점은 찬동할만하나 지나친 세분화의 작업으로 오히려 유형들 지간의 계선이 불명확한 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일본 학자들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분류를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宮本岡洋(미야오카히로코)는 『日本昔話事典』에 수록되어 있는 약 130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별형(離別型)’, ‘천상방문형(天上訪問型)’, ‘칠석결합형(七夕結合型)’이라는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¹²⁷⁾ 미야오카 히로코는 ‘이별형’은 목욕을 하던 선녀의 날개옷을 숨어서 엿보던 남자가 감추고 그녀를 아내로 삼으며 아이를 낳은 다음 선녀가 숨겨진 날개옷을 되찾고 하늘로 날아가버린다고 하였으며 이 유형을 기본형으로 보고 있다. ‘천상방문형’은 남자가 선녀를 뒤쫓아가서 재회하는 유형으로서 금기의 타파로 인하여 선녀와 결별하게 된다고 하였다. ‘칠석결합형’은 남자가 금기타파로 홍수에 밀려가면서 선녀가 만나자는 날을 잘못 듣고 칠월 칠일에 만나자로 들으며 일년에 한번씩 칠석날에만 만나게 되었다는 유형이다.¹²⁸⁾

126) 漆凌雲, 『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 中國戲劇出版社, 2008, 48-64쪽.

127) 樋口淳, 「민담의 국제비교」,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 민속원, 2004, 637쪽.

128) 樋口淳, 「민담의 국제비교」,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 민속원, 2004, 637-638쪽 참조.

遠藤莊治(엔드쇼지)는 류큐권에서 전해지는 57편의 ‘天人女房’을 ‘銘剱子型’, ‘察度王型’, ‘星女房型’, ‘天川の由來型’, ‘天女泉型’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¹²⁹⁾

‘銘剱子型’은 銘剱川(메카루가와)라는 강에서 목욕하는 선녀의 날개옷을 銘剱主(메카루누시)라는 남자가 감추고 선녀를 아내로 삼는다. 후에 선녀는 하늘로 날아가고 아들은 왕으로 딸은 무녀로 되었다는 유형이다. ‘察度王型’은 하늘로 날아간 선녀의 아들이 엄청난 황금을 가지고도 초라하게 살지만 후에 왕의 사위로 되고 샛토(察度)왕이 되었다는 설화유형이다.

‘星女房型’은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 북두칠성의 하나로 되고 그의 아이도 작은 별이 되었다는 유형이다. ‘天川の由來型’은 하늘로 떠나간 선녀를 남자가 뒤쫓아 하늘로 오르지만 선녀의 부모가 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1년에 한번씩 天の川 (아마노가와)를 사이에 두고 만나게 되는 유형이다. ‘天女泉型’은 선녀가 목욕을 했다는 샘이 후일 성지(聖地)로 되어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유형이다.¹³⁰⁾

이상의 설화분류를 보면 銘剱子型은 시조탄생설화에 속하고 ‘察度王型’은 한국의 ‘서동(薯童)’에 관한 설화와 유사한 시조탄생설화로 보인다. ‘天川の由來型’은 칠석형에 속하는 설화이고, ‘星女房型’은 칠성형에 속하는 설화이고, ‘天女泉型’은 지명 유래담에 속하는 설화로 구성된다.

君島久子(기미시마히사코)는 『文學』 제40권 제2호(1992년2월)의 「東陽の天女—中國における變遷の過程」에서 중국의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칠석형(七夕型)’, ‘칠성시조형(七星始祖型)’, ‘난제형(難題型)’ 등 세가지로 유형분류를 진행하였다. 그는 ‘칠석형’은 우의설화와 칠석전설의 복합이며 주

129) 樋口淳, 위의 책, 638쪽.

130) 樋口淳, 위의 책, 638-639쪽 참조.

로 양자강 이북 지대부터 내몽고 동북에까지 분포되어있으며, ‘칠성시조형’은 우의전설과 칠성전설의 복합형으로 양자강 이남 일대로부터 廣海, 廣西까지의 연해지대에 분포되어있으며, ‘난제형’은 우의전설과 난제형설화의 복합형으로 묘족, 타이족 등 소수민족이 사는 대륙 서남쪽의 오지(奧地)로부터 산둥성, 내몽고 등 문화가 비교적 박약한 지역에 분포되어있다고 한다.¹³¹⁾

關敬吾는 『昔話の歴史』에서 「天人女房」을 ‘시조탄생형(始祖誕生型)’, ‘씨족신형(氏神型)’, ‘이별형(離別型)’, ‘재회형(再會型)’, ‘행복한 혼인형(幸福な婚姻型)’, ‘양녀형(養女性)’, ‘난제구혼형(難題求婚型)’, ‘피리부는 사위형(笛吹婿型)’ 등 8개의 아형으로 분류하였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문헌자료와 전설을 널리 인용하여 고증을 진행하였다.¹³²⁾

石川純一郎(이시가와 준이찌로우)는 일본지역에 유전되는 「天人女房」 설화들에 대하여 ‘지상체류형(地上滯留型)’, ‘이별형(離別型)’, ‘재회형(再會型)’, 칠석형(七夕型)’, ‘난제형(難題)’, ‘칠성유래형(七星由來型)’, ‘피리부는 사위형(笛吹婿型)’ 등 7가지로 유형을 나누었다. ‘지상체류형’은 천인이 지상에 내림을 말하고, ‘이별형’은 우의설화의 원형으로 북 일본부터 서남의 여러 섬에 걸쳐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재회형’은 이별 후 천상에서 재회하는 것으로 전국에 분포되어있고, ‘칠석형’은 우의설화와 재회형, 칠석전설과의 복합형이며 주로 일본의 서남쪽에 분포되어 있고, ‘난제형’은 우의설화와 재회형, 칠석전설과의 복합형이며 주로 일본의 서남에 분포되어있고, ‘칠성유래형’은 우의설화와 별전설(星傳說)의 복합형으로 薩南諸島로부터 琉球諸島에 걸쳐 분포되어있고,

131) 石川純一郎, 「羽衣·竹取説話の源流と展開」, 『静岡と世界を結ぶ羽衣·竹取の説話』, 静岡総合研究機構, 静岡新聞社, 2000, 110쪽, 154쪽 참조.

132) 위의 책, 154쪽 참조.

‘피리부는 사위형’은 우의설화와 ‘그림속의 아내(繪姿女房)’, ‘피리부는 사위’의 복합형이며 일본 북부에 분포되어 있다.¹³³⁾

水野裕(미즈노유우)는 『羽衣傳説の探究』에서 세계범위 내의 여러 민족 속에는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놓고 북방권의 우의전설, 중앙권의 우의전설, 남방권의 우의전설 등 세 개의 전승권으로 나누었다.¹³⁴⁾

다음으로 한국학자들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분류를 보기로 하면 아래와 같다.

최상수는 한국내 이 유형의 설화를 선녀승천, 나무꾼승천, 나무꾼 지상회귀, 수탉유래, 생남 후 선녀만 승천하는 4개 유형으로 나누었고, 조희웅은 A형: 선녀승천, B형: 나무꾼승천, C형: ‘나무꾼 지상회귀’, 수탉유래, D형: 나무꾼시련 중 지상하강·빠꾸기의 유래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권영철은 전형: 선녀승천, 제1변형: 1생남후 선녀만 승천, 제2변형: 나무꾼승천, 제3변형: 수탉유래담, 제4변형: 견우·직녀성과 무지개의 유래담 등 5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¹³⁵⁾

김기창은 한국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 27편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형, 제1변형, 제2변형, 제3변형, 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여기서 기본형은 나무꾼과 선녀의 천상 재회로 되어있고 제1변형은 선녀가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며 나무꾼과 이별하는 이별형으로 되어 있다. 제2변형은 나무꾼의 천상 시련으로 되는 난제해결형에 해당된다. 제3변형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무꾼이 금기 타파로 다시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수탉으로 변한다. 기타 형도 하늘에서 내려온 나무꾼이 의외의 원인으로 다시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빠꾸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제3변형과 기타형을 다시 귀납하면 유래담으로 볼 수 있다.¹³⁶⁾

133) 石川純一郎, 위의 책, 121-122쪽 참조.

134) 水野裕, 『羽衣傳説の探究』, 産報, 1977, 102-177쪽.

135)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집문당, 1993, 24-25쪽 참조.

장작식은 단순형: 선녀승천, 확장형1: 나무꾼승천, 확장형2: 시험 해결, 확장형3: 지상하강, 확장형1의 변형: 나무꾼의 승천실패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³⁷⁾

최운식은 「〈나뭇꾼과 선녀〉설화의 고찰」에서 이 유형의 설화를 기본형, 변이형Ⅰ, 변이형Ⅱ, 변이형Ⅲ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기본형은 나무꾼과 선녀의 천상재회로 되어있고, 변이형Ⅰ은 선녀가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나무꾼과의 이별로 되는 승천담 탈락형이고, 변이형Ⅱ는 나무꾼이 하늘에서 난제를 해결하는 혼사장애, 극복담 첨가형으로 되어있고, 변이형Ⅲ은 금기의 타파로 나무꾼이 지상의 수탉이 되었다는 지상회귀담 첨가형으로 되어있다. 실상 기본형은 천상재회형으로 변이형Ⅰ은 이별형, 변이형Ⅱ는 난제형, 변이형Ⅲ은 유래형으로 볼 수 있다.¹³⁸⁾

이지영은 결합형과 분리형으로 나누고 또 결합형의 하위유형으로 승천상봉형(나무꾼승천형)과 천상 시련-승천 상봉형(시험해결)과 분리형의 하위유형으로 수탉유래형(지상회귀형)과 천상시련-수탉유래형(지상회귀)등으로 분류시켰다.¹³⁹⁾

배원룡은 『나무꾼과 선녀설화연구』에서 한국에 전승되는 이 유형설화 145편을 대상으로 선녀승천형, 나무꾼승천형, 나무꾼 천상시련 극복형, 나무꾼 지상회귀형, 나무꾼 시신 승천형, 나무꾼과 선녀 동반 하강형 등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⁴⁰⁾

136) 김기창, 「金剛山仙女說話研究」, 『국제어문』, 제5집, 국제대학 국어국문학과, 1984, 20-27쪽 참조.

137)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집문당, 1993, 25쪽 참조.

138) 최운식, 「〈나뭇꾼과 선녀〉설화의 고찰」, 『청람어문학』, 제1집, 1988, 61-67쪽 참조.

139) 배원룡,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140) 배원룡, 위의 책, 47-80쪽 참조.

서은아는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부부갈등 연구』에서 56편의 설화를 대상으로 A유형 선녀만 승천, B유형 ‘나무꾼승천’, C유형 ‘나무꾼지상화귀’, D유형 ‘동반하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⁴¹⁾

최인학은 「韓國昔話の研究」에서 22편의 민담을 대상으로 선녀의 아내와 헤어지는 이별형, 이후에 남편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이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행복형, 그리고 남편이 하늘로 올라갔지만 어려운 문제를 부여받아 결국 실패하여 비운으로 끝나는 난제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¹⁴²⁾

이상 여러 나라들의 학자들이 진행한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로 보면 각기 부동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이 유형 설화들에 대한 유형 분류에서 기본 타입에 삽입되는 각기 부동한 에피소드에 중심을 두어 유형을 분류하였다고 보면, 한국 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설화속의 인물들이 하늘과 지상이라는 대립되는 두 공간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결과에 중심을 두며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형성될 수 있는 원인은 아마 중국, 일본과 같은 경우 설화들의 유형이 비교적 많음으로 동질적인 설화 속에서 각기 부동한 아류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설화와 설화 사이에 차이가 되는 에피소드에 치중을 하게 되고 한국의 경우는 설화의 구성이 비교적 단일화 되어 있기에 차이성의 구분을 위하여 설화의 구조면에 치중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유형 분류를 보면 설화의 분류를 위하여 많은 애로를 겪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설화들의 유형을 분류하자면 우선 이 설화군을 이루는 설화의 기본형태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유형분류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분류기준이 있어야 한다. 일본학자 水野裕는 “전 세

141)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부부갈등 연구』, 제이앤씨, 2005, 26-27쪽 참조.

142) 樋口淳, 「민담의 국제비교」,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 민속원, 2004, 640쪽 참조.

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백조처녀설화 혹은 우의전설이라 불리는 하나의 설화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전승된 것인지가 의문이다. — 즉 바꾸어 말하면 이 전설의 기원 문제를 명확히 밝힌다는 것은 오늘날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¹⁴³⁾라고 이 유형설화의 기원연구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漆淩雲은 “더구나 많은 학자들은 모두가 유형의 설화가 중국에 있어서 그 원두는 다만 한 개 뿐만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한 지역과 부동한 민족의 백조처녀형 설화는 그 산생시간이 왕왕 차이성을 갖고 있고 문헌 속에 기록된 시간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목전 이 유형설화의 기원과 전파경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¹⁴⁴⁾고 말하였다.

여러 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연구에서 이 유형설화의 기본형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앞서 이야기한 골드(S·Bring Gould)의 기술이든가 西村 真次와 스티스 톰슨의 기술 외에도 중국과 한국, 일본 학자들의 후기 연구를 보면 거의 비슷하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서 많은 학자들은 부동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이 설화의 두 주인공이 인간과 이계의 교혼으로 되었다하여 무분별하게 ‘우렁각시’, ‘호처 (虎妻)’, ‘용녀 (龍女)’ 등 동물변신 설화들을 이 유형에 소속시키고 있다. 그들의 이유로는 이물교혼 설화인 만큼 동물의 변신과 인간의 혼인관계가 있으면 모두가 유형에 속한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유사한 내용의 기타 유형설화도 이에 귀납시키고 있다. 여기서 그 예를 들어본다면 아래와 같은 실례들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다. 托和羅·路의 논문「赫哲族天鵝處女型故事異式」¹⁴⁵⁾에서 연구자는 논문 속에서 중국 허저족 속에 전승되는 백조처

143) 水野裕, 『羽衣傳説の探究』, 産報, 1977, 196쪽.

144) 漆淩雲, 『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 中國戲劇出版社, 2008, 18쪽.

145) 托和羅·路, 「赫哲族天鵝處女型故事異式」, 黑龍江民族叢刊, 第四期, 1988, 86-89

녀형 설화와 그 변이형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전형성을 띤 백조처녀형 설화 「木竹林」 외에 「鰲花姑娘」과 「金鹿的故事」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실상 「鰲花姑娘」은 鰲花魚가 어부인 총각의 口弦琴소리에 감동되어 여자로 변하고 총각의 아내로 된다. 그러나 巴彥瑪(지주)가 그 미색을 탐내어 총각에게 어려운 과제를 부과하나 처의 도움으로 과제를 해결한다. 후에 巴彥瑪가 鰲花魚처녀가 만든 백 마리 물고기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게 되고 그 백 마리 물고기가 악인을 삼켜버린다. 또 「金鹿的故事」는 한 젊은 사냥꾼이 다리를 상한 노루 한 마리를 구한다. 이 노루는 사냥꾼이 병으로 앓을 때 처녀로 변하여 환양초(還陽草)를 먹고 사냥꾼을 구한다. 후 사냥꾼과 처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한 사면의 말을 듣고 사냥꾼은 노루가죽을 불 속에 넣는다. 노루가 변한 아내가 돌아와 불 속에서 노루가죽을 다시 얻어내고 거울로 사냥꾼을 비취 환양초를 토하게 한다. 여인은 노루가죽을 입고 떠나간다. 얼마 후 사냥꾼은 병들어 죽고 노루가 아이를 데려 가서 훌륭한 사냥꾼으로 키운다.

이상 두 편의 설화에서 첫번째 설화는 ‘백조의(百鳥衣)’ 설화와 같은 유형이고 두번째 설화는 동물보은의 설화이다. 비록 저자는 “깃털옷을 입으면 새로 되고 깃털옷을 벗으면 여인으로 변하다”는 백조처녀형의 한 모티프를 인용하여 이상 설화도 백조처녀형 설화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 두 편의 설화와 백조처녀형 설화는 본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본다.

팽송교(彭松喬)는 「禁忌藏‘天機’」란 설화에서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할 때 소위 백조처녀형 설화는 보통 인간인인 한 총각이 백조 혹은 백학 등 새로 변하여 인간 속에 날아온 선녀와 부부로 결합한 민간이야기라 밝히고 “여기서 채용한 것은 협의적인 백조처녀형 설화의 범주이고

쪽, 100쪽.

광의적인(거시적인) 것은 취급되는 동물이 더 많고 내용도 더 광범하다” 146)고 설명을 덧붙였다.

실상 이와 같은 견해는 저자가 아마 백조처녀형 설화의 범주 확정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테서 오게 된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스티스 톰슨은 『설화학원론』에서 “백조소녀는 종종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타이프465)의 발단부로 사용되기도 한다. …… 결국 주인공은 초자연적 아내 — 백조소녀, 변신의 능력을 가진 동물, 또는 神에게서 직접 받게 된 아내 — 를 차지하게 된다. …… 주인공은 일정한 변이가 일어난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이 설화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47)라고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변이과정이 초자연적 아내의 부동함에 따라 변이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백조소녀, 변신의 능력을 가진 동물, 神에게서 받은 아내는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초인간적 인물이지 결코 「백조처녀형」 설화 속에 ‘변신능력을 가진 동물’이 인물로서 등장한다는 말은 아니다. 아마 이상의 학자들과 같은 견해는 스티스 톰슨의 설명에 대한 오독과 같은 경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漆淩雲은 하트란드의 백조처녀형에 대한 6가지 유형분류에서 星女儿式과 梅露西尼式은 백조처녀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의 주석으로 보면 星女儿式은 한 남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바구니를 타고 인간계에 내려온 미녀를 보고 쥐로 가장하여 미녀와 결혼을 한다. 그러나 형제를 생각하는 미녀는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몇 년 후 남편도 하늘로 데려간다.

146) 彭松喬, 「禁忌藏 “天機”」, 『民間文學研究』, 2004, 제4기, 59쪽.

147) 스티스 톰슨, 『설화학원론』, 윤승준·최광식 역, 계명문화사, 1992, 114쪽..

梅露西尼式的 설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녀가 마왕(魔王)의 주술에 의하여 매 토요일마다 가슴 아래로부터는 뱀의 형상으로 변한다. 그녀는 이 날만은 남편이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남편은 그날에 금기를 어기고 그녀를 보게 된다. 그 후 그녀는 사라져버린다.¹⁴⁸⁾

이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이 유형설화의 분류에서 학자들 나름대로 분류 기준의 상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때문에 한 유형의 설화에 대하여 유형 분류를 진행할 때 명확하고 과학적인 분류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에서 유수화의 단계적 분류 방법과 칠릉운의 백조처녀형 설화군에 대한 ‘유’와 ‘계열’, ‘형’의 분류 방법에 대하여 동감을 갖고 있다. 유수화의 단계적 분류법은 이야기 정절의 발전 방향에 따라 구분하였으므로 분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혼합의 현상을 피면할 수 있다. 다만 단계적 분류에서 설화의 문헌적 기록 시간과 설화의 내용구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도한 세밀화 분류 작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하면서 통합적인 고찰 하에 분류를 좀더 엄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정확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칠릉운의 분류방법은 우선 백조처녀형 설화를 한 개의 설화군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주제에 의하여 ‘유’를 나누었다. 다시 그 아래에 ‘계열’로 나누고, 또 주요 화소에 의하여 ‘형’으로 하위유형을 나누었다.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백조처녀형 설화를 하나의 독립된 설화군으로 취급하는데서 의의를 지니고 있고, 또한 유형 분류에서 단계성이 강하므로 유형의 파악에 이로운 점을 갖고 있다. 다만 지나친 단계성에 대한 구분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오히려 분류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이룰 수 있다.

148) 漆波雲, 『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 中國戲劇出版社, 2008, 45쪽.

필자는 본고에서 진행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분류에서 이상 학자의 분류상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자체의 분류원칙을 주장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의 분류 과정을 취하기로 한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분류를 진행함에서 우선 중국, 일본과 한국 더 나아가서 동남아세아 등을 포함한 지역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에 대하여 북방계와 남방계, 중원계 등 세 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나누는 원인은 이 지역에서 전승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크게 지역별로 보았을 때 네개의 선명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첫번째 특성으로는 설화에 대한 종교의 영향이 각기 부동하다. 남방계의 설화들은 아주 선명한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타이족의 「召樹屯」과 인도의 「繁那羅」와 같은 설화는 그 출처가 불경에 근원하고 있음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북방계설화들은 선명한 새 토템사상과 샤머니즘 등 원시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에벤키족의 「本迪安本」에도 여샤먼의 형상들이 출현된다.

중원계의 설화들은 주로 한족들의 생활지역에서 전승되는 것으로서 「우랑직녀」와 같은 도교의 신선사상이 영향을 받는 설화가 전승된다. ‘모의녀(毛衣女)도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는 고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모의녀’ 설화 형성의 민족은 한족이 아님으로 밝혀져 있지만 한문 문헌에 기술되어 있기에 여기서 언급하게 된 것이다.

君島久子は “「予章」은 지금의 江西省 鄱陽湖라 불리는 큰 호수의 서쪽에 있는 南昌일 것이지만 당시 新喻縣이라 말하는 것은 더욱 서쪽으로의 지방입니다.”¹⁴⁹⁾라고 ‘모의녀’의 발생지에 대하여 천명하였다. “‘君島久子は 「모의녀(毛衣女)」의 산생지— 豫章은 六朝시기 원 苗族과 瑤族의

149) 君島久子, 「東陽の天女と三保の羽衣」, 『静岡と世界を結ぶ羽衣・竹取の説話』, 静岡総合研究機構, 静岡新聞社, 2000, 19쪽 참조.

집거지이다. 때문에 이 설화는 최초로서는 苗族과 瑤族의 설화이다. 장기적인 역사발전 중에서 전파를 겪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이 유형설화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방의 이 유형설화의 발상지이다' ……

‘楊紅梅는 …… 兩晉시기의 豫章郡은 百越의 주요 집거지역이다. 그리고 百越人은 鳥를 토tem으로 삼았기에 사람과 새가 결합된 설화를 산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毛衣女」설화는 완전히 百越의 전설일 것이다.’ ”¹⁵⁰⁾라고 漆凌雲의 저서에서도 「毛衣女」의 출처에 대하여 천명하였다. 「毛衣女」는 비록 한문문헌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중국 소수민족의 전설이다. 이 러고 보면 「毛衣女」도 女鳥의 혼인설화로 된다. 女鳥의 존재로 이 설화 역시 남방계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할 것이라 본다.

두번째 특성으로는 설화 속의 여주인공의 형상이 부동하다. 남방계와 북방계 설화는 여주인공이 많이는 백조와 학 등 女鳥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중원의 「우랑직녀(牛郎織女)」는 직접 선녀의 신분으로 나타나며 날개 옷(羽衣)이 없다.

세번째 특성으로는 설화의 주된 유형이 다르다. 남방계설화는 난제형설화가 주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방계 설화는 시조기원 등 기원형의 설화가 주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방계 설화는 시조기원 등 기원형의 설화가 주된 지위를 차지하고 중원계는 칠성 혹은 칠석 등 천상(天象)과 풍속에 관한 설화로 되어있다.

네번째 특성으로는 설화 형성의 문화배경이 서로 다르다. 남방계 설화는 농경과 수렵문화가 배경으로 되어있고 북방계 설화는 수렵과 유목문화가 배경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중원 설화들은 수전과 같은 도작문화(稻作文化)가 그 배경으로 되어있다.

150) 漆凌雲,『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中國戲劇出版社,2008,5쪽 참조.

백조처녀형 설화의 특성과 결부하여 백조처녀형 설화의 발전단계를 보면 아래와 같은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논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3개의 발전단계로 추정하였다. 즉 제1단계는 여주인공이 사람과 새의 변신능력을 가진 여조 형상의 단계이다. 제2단계는 여주인공의 신분이 여조에서 여신으로의 발전단계이다. 제3단계로는 설화의 후반부(혹은 기타 부분)에 기타 복합형이 결합되어 여러 아류형이 형성된 단계이다. 이는 앞의 부분에서 이미 논술한바 있으므로 이상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유과와 단계적 발전에 대하여 분류를 진행한 후 보다 세밀한 유형분류 작업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분류원칙과 방법에 기준하여 유형을 나누기로 한다. 우선 백조처녀형 설화는 혼인을 주제로 하여 다룬 설화들이기에 혼인이란 주제를 전반 설화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혼인이란 주제는 인간의 종의 변식과 생명연속의 체현으로서 인류발전사의 전반에 시종 관통되어 왔으며 인류 생활 속에서도 보편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보편성에 의하여 백조처녀형 설화는 구연자들에 의하여 부단한 개인 창작 의식이 첨가되면서 하나의 공동한 혼인주제를 다루는 설화군을 형성케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보편적 의미에 의하여 민중의 보편적 심미욕구가 충족되고, 민중 속에 수용되면서 한 설화의 유형으로 그 생명력을 지속하여 왔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설화 속에 나타나는 여주인공에 의하여 혼인의 성질이 결정된다. 즉 여주인공이 인간이 아닌 선녀의 속성을 띠기에 이 혼인은 신성혼으로 되게 된다. 또한 여주인공이 혼인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에 따라 피동에 의한 강박혼인과 주동에 의한 주동혼인으로 결정된다. 이로써 설화유형의 제1차적인 분류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즉 강박에 의한 혼인을 다룬 설화들을 ‘절의성혼류(窈衣成婚類)’로 나누고 선녀의 주동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다룬 설화들을 ‘천사성혼류(天賜成婚類)’로 크게 두개의 유(類)로 나눌 수 있다.

비록 많은 설화에서는 남권사회의 문화를 상징하고 있으며 남주인공을 주요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선녀의 신적인 속성을 떠난다면 이 유형의 설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게 될 것이며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기본형태에서 보면 핵심을 이루는 화소를 ‘선녀(백조)’, ‘날개옷’, ‘목욕’, ‘절의(飭衣)’, ‘결혼’ 등 5개의 화소로 설정할 수 있다. 간혹 ‘목욕’과 ‘절의’와 같은 화소는 일부 설화 ‘천사성혼류’와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유형의 설화에서 ‘목욕’을 한개의 중요한 고리로 취급하고 있지만 실상 이 설화가 혼인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 혼인의 형성과 혼인의 결과가 전반 설화구성의 관건으로 된다. 때문에 혼인의 형성에서 ‘절의’에 의한 강박혼인을 다룬 ‘절의성혼류’에서는 ‘목욕’과 ‘날개옷’, ‘절의’는 설화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되게 된다. 그러나 ‘천사성혼류’에서는 강박에 의한 혼인이 아니라 자원에 의하여 형성된 혼인관계이기에 이 설화유형에는 ‘절의’, ‘목욕’과 같은 강박혼인 형성의 기초로 될 수 있는 화소가 나타나지 않게 되며, 더구나 “선녀가 날개옷을 찾아 입고 날아가다”는 혼인도주의 화소가 출현되지 않게 된다.

“라이엔(F.von der Leyen)의 말을 빌면 설화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모티프가 모여 이루어지는데 모티프가 몇 개 모인 것을 에피소드라 하고 에피소드가 모여 하나의 설화를 형성한다.”¹⁵¹⁾ 그리고 “민담의 전체로 볼 때에는 모티프가 삽화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¹⁵²⁾

151) 조희웅, 『韓國說話의 類型的研究』, 韓國研究院, 1983, 1쪽.

152) 關敬吾, 『民話』, 岩波書店, 1955, 조희웅, 『韓國說話의 類型的研究』, 韓國研究院, 1983, , 2쪽 재인용.

설화와 에피소드, 모티프 때로는 횡적인 동질관계를 가질 때도 있다.¹⁵³⁾ 이라고 보면 설화와 에피소드, 모티프 3자의 관계는 반드시 종적인 관계만은 아니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5가지 핵심화소를 한 개의 서술단위로 본다면 “남자가 날개옷을 벗고 목욕하는 선녀(백조)와 결혼하다”로 된다. 간혹 이 서술단위를 하나의 타이프나 혹은 에피소드로 보든 간에 불문하고 이 중의 일부 화소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서술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남자가 선녀(백조)와 결혼하다”란 서술부가 남게 된다. ‘선녀(백조)’와 ‘결혼’ 등과 같은 불변의 모티프를 내놓고 기타의 모티프는 변화될 수 있다. 화소에 의한 에피소드도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화소와 에피소드에 의하여 백조처녀형 설화는 제 2차적인 분류작업으로 여러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기본 서사구조에서 여러 각편들이 보이는 부동한 에피소드와 모티프들의 가감변화에 따라 ‘실처형(失妻型)’, ‘개국시조형(開國始祖型)’, ‘시조기원형(始祖起源型)’, ‘유래형(由來型)’, ‘마귀퇴치형(魔鬼退治型)’, ‘범남성신형(凡男成仙型)’, ‘난제형(難題型)’, ‘칠석형(七夕型)’, ‘칠성형(七星型)’, ‘보상형(補償型)’, ‘영웅탄생형(英雄誕生型)’ 등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1) 절의성혼류(竊衣成婚類)

절의성혼류에는 ‘절의’ 모티프를 핵심으로 하고 동반하여 ‘목욕’, ‘날개옷을 입고 떠남’, ‘금기’ 등 모티프가 주요 모티프로 나타난다. 이는 또 설화

153) 조희웅, 위의 책, 2쪽 참조.

의 구성에서 주요 기능을 하며 “천사성혼류”와 근본적인 구별이 되는 핵심 부분이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각편들의 변이는 주로 설화의 기본 서사구조에서 일정한 구조부분이 모종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서사 내용이 첨가되거나 일부의 구조가 탈락되어 형성된 것이다.

우선 백조처녀형 설화를 단락소로 세분화 하면 아래와 같은 26개의 단락소로 나눌 수 있다.

- A 옛날에 어떤 곳이 있었다. (지역, 풍속, 가족 등 배경으로의 설명 부분)
- B 어떤 한 주인공(나무꾼, 사냥꾼, 어부 혹은 기타)이 있었다.
- C 주인공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 D 주인공이 위험에 처한 어떤 동물을 구한다.
- E 동물이 구명의 보답으로 선녀에 관한 비밀을 알려준다.
- F 동물이 선녀(백조 등)와 결합의 금기 사항을 알려준다.
- G 주인공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 H 선녀(형제)가 하늘에서 살고 있다.
- I 선녀(혹은 백조로 변하여)가 지상의 못(강)으로 날아내려온다.
- J 선녀가 날개옷을 벗고 못에서 목욕을 한다.
- K 주인공이 못에서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한다.
- L 주인공이 선녀의 날개옷(천의)을 숨긴다.
- M 주인공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는 선녀와 부부로 된다.
- N 주인공과 선녀사이에 아이가 생긴다.
- O 주인공이 모종 원인으로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준다.(혹은 선녀가 옷을 발견한다.)
- P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 (혹은 아이를 데리고 간다.)

Q 주인공이 아내를 찾아 길을 떠난다.
 R 동물이 나타나 선녀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S 선녀를 찾는 길에서 기타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T 주인공이 하늘로 올라간다.
 U 주인공이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V 선녀의 부모(혹은 형제)가 혼인을 반대하여 나선다.
 W 선녀의 부모가 시험문제를 낸다.
 X 선녀(혹은 기타 조력자)가 난제해결을 도와 나선다.
 Y 주인공에게 부과된 난제가 해결된다.
 Z선녀와 주인공이 하늘(혹은 인간)에서 행복하게 산다.

A부터 Z까지는 설화의 각 단락소의 표기로 되고 매 단락소에서 이루어지는 변이는 “ $A_1, A_2, \dots, B_1, B_2, \dots$ ” 등의 순서로 표시한다. A에서 P까지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전반부분으로서 설화의 기본구조로 되며 단순구조를 이루고있다. Q에서 Z까지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후반부분으로서 복합구조로 볼 수 있다.

A에서 Z까지의 26개 단락소에서 보면 주로 B, L, M, N, O, P, T, V, Y, Z 등에서 변이가 일어난다. 그 구체적인 변이로서는 아래와 같다.

B에 해당하는 단락소에서 변이는 주인공의 신분 변이로 되어있다. 일부 설화에서 주인공의 신분이 천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신, 혹은 왕, 칸, 족장 등으로 되어있어 변이형 B_1 을 이룬다.

L에 해당하는 단락소에서 변이는 ‘절의’의 형식에서 나타난다. 그 변이로서 보면 4가지로 되어 있다. L_1 주인공이 기타의 방식으로 선녀를 붙잡는다. L_2 선녀가 주인공에게 나체를 보였으므로 결혼을 해야 한다. L_3 선녀의

부모가 조동으로 선녀를 주인공에게 보낸다. L_4 선녀가 주동으로 주인공에게 결혼을 요구한다.

M에 해당하는 단락소에서 변이는 결혼의 방식에 나타난다. 그 변이로서는 두가지로 되어있다. M_1 선녀가 과일을 먹고 잉태한다. M_2 주인공이 선녀와 다른 방식으로 결합한다.

N에 해당하는 단락소에서 변이는 ‘후대’의 운명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 변이로서 4가지가 있다. N_1 후대가 개국시조로 된다. N_2 후대가 씨족의 시조로 된다. N_3 후대가 모종 지방풍속의 유래로 된다. N_4 후대가 영웅으로 성장한다.

O에 해당하는 단락소에서의 변이는 선녀가 날개옷을 찾는 방식에서 일어난다. 그 변이로는 두가지로 되어있다. O_1 선녀가 저절로 숨겨진 날개옷을 발견한다. O_2 날개옷이 숨겨진 곳을 아이가 누설하거나 자장가를 통하여 찾게 된다.

P에 해당하는 단락소에서의 변이는 선녀가 주인공을 떠나게 되는 방식에서 일어난다. 그 변이로는 4가지로 되어있다. P_1 선녀가 마귀에게 납치된다. P_2 선녀가 권세자에게 납치된다. P_3 선녀가 지상체류하면서 모종 풍속의 유래로 된다. P_4 선녀가 천상 조례의 위반으로 벌을 받는다.

T에 해당하는 단락소에서의 변이는 주인공의 승천에서 이루어진다. 그 변이로는 두 가지가 있다. T_1 주인공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죽어서 어떤 동물로 된다. T_2 주인공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혼자 지상에 남는다.

V에 해당하는 단락소에서의 변이는 혼인 가해자에서 일어난다. V_1 마귀(혹은 기타)가 혼인을 방해한다.

Y에 해당하는 단락소에서의 변이는 주인공에게 부과된 과제에서 일어난다. 그 변이로는 Y_1 주인공에게 부과된 과제가 모종 원인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Z에 해당하는 단락소에서의 변이는 난제 해결의 결과에서 일어난다. 그 변이로는 Z₁하늘에서 부부가 강(홍수)에 의하여 갈라지게 된다. Z₂선녀가 지상체류를 하면서 모종 신으로 받들린다. Z₃부부가 가해자에 의하여 갈라지면서 칠석유래가 된다. Z₄선녀와 아이가 하늘에서 칠성으로 된다.

이상과 같은 단락소에서 일어나는 변이에 의하여 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는 아래와 같은 유형들로 분류되게 된다.

① 실처형 (失妻型)

A에서 P까지는 주로 주인공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선녀의 날개옷을 숨기고 선녀와 결혼을 하게 되며, 후 선녀가 원래의 날개옷을 다시 찾아 입고 하늘로 돌아가는 기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여주인공인 선녀가 다시 자기의 소속 영역으로 떠나 남주인공과 각기 부동한 인간과 이계의 대립 세계를 이룸으로서 남주인공의 실처 상태를 구성하고 있다. 때문에 백조처녀형 설화의 기본양상을 갖춘 기본형태로는 바로 실처형으로 되어있다.

② 개국시조형 (開國始祖型)

흔히 이 설화의 한 변이 유형으로서 N의 서사단락을 이어 P까지 발전한 후 설화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즉 남주인공과 선녀 사이에 생긴 아이가 장차 커서의 운명이 거론되곤 한다. 그 후대의 운명에 따라 변이형 N₁ “그 아이가 나라의 개국시조가 되었다”는 “실처형 + N₁”의 개국시조형이 이루어진다.

③ 시조기원형 (始祖起源型)

설화는 또한 실처형의 기초 상에서 N₂ “그 아이가 한 씨족의 선조가 되었다.” 는 부분이 첨가되면서 “실처형 + N₂” 의 시조기원형으로 유형이 분류된다.

④ 유래형 (由來型)

설화는 또T에서 계속하여 남주인공의 최종 운명적 결정이 설치되곤 한다. 즉T₁ “선녀가 떠나고 이별의 고통 끝에 남주인공이 죽어 수탉, 빠구기 등 동물로 변한다.” 는 “실처형+P₁” 의 유래형을 이루게 된다.

⑤ 마귀퇴치형 (魔鬼退治型)

설화의 P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변이형은 유래형 외에 또 P₁ “선녀가 악마에게 납치되고 주인공이 악마를 처단하고 선녀를 되찾다” 는 “실처형+P₁” 의 마귀퇴치형이 이루어진다. 이 변이형에서 나타나는 악마는 괴물, 귀신 혹은 강한 세력을 가진 권세자로 나타날 수도 있다.

⑥ 범남성신형 (凡男成仙型)

설화는 P까지 서사가 진행된 후 이어서 T가 이루어지면서 범남성신형이 이루어지곤 한다.

⑦ 난제형 (難題型)

설화는 A-P까지의 첫 서사군을 이룬 다음 다시 선녀의 이별로 설화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두번째 서사군을 이루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흔히 혼인을 반대하는 이계의 반대자가 나서거나 혼인의 성사를 돕는 보조자가 나타난다.

설화는 “실처형+Q+R+S+T”의 구성으로서 다른 조력자의 도움이란 에 피소드가 한층 더 첨가되면서 범남성신형의 다른 한 변이형태를 이룰 때도 있지만 또 “실처형+S+T+V+W+X+Y+Z” 구성으로 이루어지면서 난제형 이 이루어진다.

⑧ 칠석형 (七夕型)

난제형 설화에서는 난제의 해결과 난제의 미해결로 인한 다른 한 변이 양상을 보여준다. “실처형+S+T+V+W+X+Y+Z”의 난제해결로서 남주인 공이 승천하여 하늘에서 살게 되는 범인승천의 변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이 외에 또 난제의 미해결로 반대자의 위력에 의하여 부부가 갈라지면서 Z₁ “강에 의하여 갈라진 부부는 일년에 한번밖에 만나지 못한다.”는 “실처형+난제형+Z₁”의 칠석형이란 유형도 이루어진다.

⑨칠성형(七星型)

칠성형 설화에서는 설화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D-E에서의 구제와 정보 획득, F-O에서의 금기와 금기의 파괴, I-T에서의 천강과 승천의 T항이 탈락 되어있고, 후반부에 “실처형+Z₄”의 구조를 이루면서 선녀의 아이가 하늘에서 태어나 칠성 중의 子持星이 된다는 칠성형을 이룬다.

표2 설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 기본 자료

유형	민족	자료	설화	자료출처
실처형	한국	자료1	나뭇군과 선녀	한국구비문학대2-7(420-424)
	일본	자료2	東海道名所記	羽衣傳説の探求 (31)
	허저족	자료3	木竹林 (1)	松花江下游的赫哲族 (下冊) (559-561)

절 의 성 혼 류	개국시조형	만족	자료4	滿洲의起源	滿族古神話 (15-23)
			자료5	布庫裡雍順	滿族民間故事選 沈秀清 主編(11-13)
	시조기원형	일본	자료6	伊香小江	帝王編年紀 養老七年
			자료7	天鵝仙女	滿族三老人故事集 (15-20)
		만족	자료8	女真族源傳說	滿族民間故事選 烏炳安 等編(62-65)
			자료9	天池緣	滿族民間故事選 沈秀清 主編(3-7)
	유래형	한국	자료10	수탉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3-1(335-337쪽)
			자료11	菅原道真是天人和桐畑太夫の子	日本傳説大系 第八卷
		일본	자료12	三右衛門と天の川の傳説	丹後峰山羽衣傳説
			자료13	健康保護神的傳説	鄂倫春民間故事集成 (93-95쪽)
		만족	자료14	天鵝仙女	滿族民間故事選 沈秀清 主編(1-3)
			자료15	天女浴窮池	滿族民間故事選 烏炳安 等編 (57-61)
		시버족	자료16	鵝娘鵝爺奶奶	撫順郊區資料本 (一) (198-199)
		허저족	자료17	七女峰傳説	赫哲族民間故事選 (191)
	마귀치치형	오르첸족	자료18	安塔奈	鄂倫春民間故事集 (34-37)
		시버족	자료19	扎魯山與梅翠	錫伯族民間故事集 (157-166)
	범남성신형	한국	자료20	나무꾼과 선녀	한국구비문학대제6-8(633-637)
		일본	자료21	三保松原羽衣傳説	日本古典文學大系2 風土記
	난제형	한국	자료22	나무꾼과 선녀	임석재전집: 평안북도 1 (51-53쪽)
		오르첸족	자료23	攸來	鄂倫春民間故事集成 (137-144)
	칠석형	일본	자료24	仙女下凡	日本民間故事選 (32-36)
			자료25	福島縣 ‘天人女房	羽衣・竹取の説話 (135-138)
			자료26	七夕	日本民間故事選粹 (163-171)
		에벤키	자료27	鄂溫克人講的牛郎	鄂溫克族民間故事(307-309)
		시버족	자료28	放牛娃和仙女	錫伯族民間故事集 (178-193)
	칠성형	일본	자료29	伊平屋島の天女	沖縄民俗の會 會報 第八號

2) 천사성혼류 (天賜成婚類)

“천사성혼류”는 남주인공의 어진 품성에 의하여 하늘의 천제(천신)가 인정을 하고 주인공에게 내려주는 보상으로써 천제의 명을 받은 선녀의 주동성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 유형의 설화에는 강박혼인의

천제 조건이 되는 ‘절의’와 ‘목욕’, ‘금기’와 같은 모티프가 출현되지 않는다.

천사성혼류 설화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⑩보상형 (補償型)

보상형은 설화의 한 변이 유형으로서 A에서 P까지 발전하는 과정에 ‘절의’와 ‘목욕’, 그리고 ‘금기’ 등과 같은 모티프가 탈락되고 그 대신 천제가 어진 주인공을 돕기 위하여 선녀를 파견하여 주인공을 돕는 모티프가 설정되면서 보상형을 이루게 된다. 보상형 설화에는 흔히 개국시조형, 난제형, 범남성신형 등과 같은 유형이 복합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⑪영웅탄생형 (英雄誕生型)

이 유형의 설화는 수련을 하던 매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기 전 후대를 남기기 위하여 주인공과 결혼을 하고 그 후대가 일대의 영웅이 된다는 설화이다. 이 유형 설화는 천제의 인증과 보상과 같은 모티프가 출현되지 않지만 선녀의 주동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혼인 설화로서 천사성혼류에 해당된다.

표3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 기본 자료

유형		민족	자료	설화	자료출처
천	보상형	한국	자료30	나무꾼과 선녀	임석재전집: 평안북도 I (48-49쪽)
		일본	자료31	칠성선녀 이야기	沖繩民俗 第十五號

사 성 혼 류		오르첸족	자료32	松坦和仙女埃米艷	鄂倫春民間故事集成(295-307)
			자료33	小伙與太陽姑娘	鄂倫春民間故事集成(393-396)
		만족	자료34	三仙女	滿族三老人故事集(221-225)
		시버족	자료35	詰汾皇帝無婦家 力微皇帝無母家	錫伯族民間故事集 (133-134)
	영웅탄생형	에벤키	자료36	本迪安本的傳說 (二)	鄂溫克族民間故事(227-228)



IV. 백조처녀형 설화의 화소와 구조 비교 분석

1.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화소와 구조 비교

1) 절의성혼류 설화의 화소 비교

백조처녀형 설화를 보면 부동한 민족의 차이에 따라 많은 부동한 변이형들이 이루고 있다. 또한 설화 속에 나타나는 화소들도 각기 부동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화소들을 보면 주로 인물 대립항에서의 주인공과 선녀, 조력자와 가해자, 그리고 선녀의 천강(방식)과 승천, 남주인공의 승천(방식), 금기, 혼인 시험에 관한 난제, 시조형에서의 시조의 특성 등으로 나타나면서 부동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 아래에 각 민족 별로 나타나는 화소들의 차이점들을 비교하기로 한다.

(1) 한국 절의성혼류 설화의 화소

한국의 백조처녀형 설화인 「나무꾼과 선녀」를 보면 이상의 화소들을 아래와 같이 귀납할 수 있다.

주인공: 한국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은 기본상 나무꾼인 천민의 신분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나무꾼은 일반적으로 노모와 생활하거나 남의 집의 머슴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로서 결혼을 하지 못한 결핍의 상태이다.

선녀: 여주인공으로서의 선녀는 나뭇꾼과 달리 그 신분은 천상의 선녀로서 많은 설화에서 옥황상제의 딸로 신분 확보를 하고 있다. 설화 속의 선녀는 일반적으로 선녀 형제들 주에서도 나이가 어린 막내로 나타나고 있다.

선녀 천강(天降): 선녀가 목욕을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천강의 방식에는 설화마다 일정한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자료1¹⁵⁴⁾에서는 단오날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왔다고 되어 있다. 자료10¹⁵⁵⁾에서는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20¹⁵⁶⁾에서는 다만 선녀의 옷이라고 하였으나 그 뜻으로 보아 선녀의 옷은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천의(天衣)임을 알 수 있다. 자료22¹⁵⁷⁾역시 하늘을 나는 천의로 되어 있다.

주인공 승천: 주인공의 승천 화소는 실처형을 내놓고 기타의 유형에서 보편적으로 출현되는 화소다. 자료20에서는 하늘에서 드리운 드레박을 타고 주인공이 하늘에 올라 처자와 만나게 되어 있다. 자료22에서는 주인공이 새가 준 오이씨를 심고 그 오이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랐다고 한다.

조력자: 설화 속에서 나타나는 조력자는 선녀와 주인공의 만남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의 조력자는 지상에서 나무꾼이 구제한 동물로도 되고 또한 혼인의 성사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부의 조력자는 주인공이 천상에서 혼인 난제를 해결하는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료1, 자료10, 자료20의 조력자는 사슴으로 나타난다. 자료22에서는 재결합을 돕는 조력자가 새로 되어 있다. 기타의 이 유형 한국 설화에는 조력자가 노루, 고라니, 호랑이, 토끼, 멧돼지, 쥐, 고양이, 산

154) 「나뭇꾼과 선녀」, 『한국구비문학대계2-7』, 420-427쪽.

155) 「수탉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3-1』, 335-337쪽.

156) 「나무꾼과 선녀」, 『한국구비문학대계6-8』, 633-637쪽.

157) 「나무꾼과 선녀」, 『임석재전집: 평안북도 I』, 평민사, 1991, 51-53쪽.

신령 등으로도 나타난다. 여기서 쥐와 고양이는 주로 하늘에서 주인공의 난제 해결을 돕는 조력자로 나타난다.¹⁵⁸⁾

금기: 설화 속의 금기 사항은 혼인 유지의 금기로서 주로 지상 혼인의 금기와 천상 혼인의 금기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지상에서의 금기로는 자료1과 자료10, 자료20에서는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옷을 돌려 주지 말라”라는 피구제자로부터의 충고를 받는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 금기를 어기고 혼인을 파탄으로 이끌고 나아간다. 천상에서의 혼인 유지의 금기로서는 “말에서 내리지 말라”, “말 세 번 울기 전에 올라타라”, “박국과 같은 지상 음식 먹지 말라”, “개고기나 육미 먹지 말라”¹⁵⁹⁾등으로 되어 있다.

난제: “난제”의 출현은 주로 난제형 설화에서 나타나며 주인공이 천상에서 겪는 혼인 시험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22을 보면 주인공이 천사에 오른 후 처가로부터 받는 난제 고향에 ‘숨바꼭질’, ‘활촉찾기’, ‘칼싸움’ 등 내용들이 들어 있다. 본고에서 논하는 자료들 외에도 기타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들 속에는 ‘숨바꼭질’, ‘활촉 찾기’, ‘칼싸움’ 같은 난제 외에 또 ‘말타기’, ‘천도따오기’, ‘활쏘기’, ‘옷놀이’, ‘씨름하기’, ‘쥐뿔 떼오기’, ‘쥐왕 잡아오기’¹⁶⁰⁾와 ‘고양이나라 왕관 가져오기’ 등의 난제 내용들이 들어 있다.

가해자: 자료22에서의 가해자는 선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로 나타난다.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들을 보면 가해자가 선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언니들과 오라비로서 처가 인원이 가해자로 된다. 선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천상의 선인으로 옥황상제 등으로도 된다.

158)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125쪽 참조.

159)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부부갈등 연구』, 제이앤씨, 2005, 253쪽 참조.

160) 서은아, 위의 책, 251쪽 참조.

“목욕”과 “절의” 화소는 한국의 백조처녀형 설화로 되는 「나무꾼과 선녀」에서 공동으로 출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중국 만주-통구스족 절의성혼류 설화의 화소

만주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화소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인공: 자료4¹⁶¹⁾에서는 비록 주인공이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뿌쿠리용순(布庫裡雍順)의 출생과정을 보면 가히 그 면모를 추측할 수 있다. 삼선녀가 하늘의 신이 변한 빨강 열매를 먹고 잉태하여 낳은 것이 뿌쿠리용순(布庫裡雍順)이다. 이로서 보면 자료4의 주인공은 천신의 인간 화신으로 된다. 즉 주인공은 하늘의 천신인 것이다. 자료7¹⁶²⁾에서의 주인공은 사냥꾼 세 사람으로 나타난다. 세 사람의 사냥꾼이 각기 세 선녀의 옷을 훔치고 혼인한다. 자료7는 내용의 구성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을 보면 지상의 세 사냥꾼이다. 그들은 각기 하늘에서 내려온 세 선녀와 혼인을 하여 각기 후대를 낳게 되는데 그 후대들이 三姓 부락의 기원으로 되게 된다. 자료8¹⁶³⁾은 주인공이 천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나타난다. 그와 선녀의 후대가 녀진족의 시조로 되며 녀진족의 후예들이 만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자료9¹⁶⁴⁾에서의 주인공은 지상의 아홉 사냥꾼이다. 그들은 각기 부동한 성씨를 갖고 있으며 하늘의 아홉 선녀와 결혼하여 후대를 낳은 것이 만주족 八旗이다.

161) 「滿洲의起源」, 愛新覺羅·烏拉熙春 編, 『滿族古神話』, 內蒙古人民出版社, 1987, 15-23쪽.

162) 「天鵝仙女」, 中國民間文藝研究會 遼寧分會 編, 『滿族三老人故事集』, 春風文藝出版社, 1984, 15-20쪽.

163) 「女真族源傳說」, 烏炳安 等 編, 『滿族民間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1983, 62-65쪽.

164) 「天池緣」, 沈秀清 等 編, 『滿族民間故事選』, 遼寧省新賓滿族自治縣文物管理所 出版, 2000, 3-7쪽.

선녀: 자료4, 자료7, 자료14¹⁶⁵⁾, 자료15¹⁶⁶⁾에서는 모두 세 선녀로 나타나면서 여주인공은 제일 작은 선녀로 되어있다. 세 선녀의 이름은 각기 자료4에서는 恩古倫, 正古倫, 佛庫倫으로 되어 있고 자료7에서는 恩固倫과 正固倫, 佛庫倫 등으로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15에서는 恩庫倫, 正庫倫, 佛庫倫으로 되어 있다. 세 선녀 이름의 음역은 각기 부동하나 원어로서의 이름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지며 여주인공의 이름은 모두 佛庫倫으로 되어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자료5¹⁶⁷⁾에서의 세 선녀는 하늘의 선녀로 나타나지 않고 지상에서 수련을 거친 真人으로 되어 있고 제일 작은 真人이 여주인공으로 된다. 자료9에서는 하늘의 구 선녀가 여주인공으로 되어 지상의 아홉 사냥꾼과 결혼한다. 자료8에서는 구 선녀의 제일 작은 막내가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선녀 천강: 자료14에서 선녀는 백조로 변하여 하늘에서 날아내려 오고 또 하늘로 돌아갈 때도 백조로 변하여 날아간다. 자료15에서는 선녀들이 천의를 입고 내려온 것으로 되며 여주인공은 옷을 절도 당한 후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인송(美人松)으로 된다. 자료7에서 여주인공은 흰 구름을 깃털로 만들고 팔을 날개로 변화 시키고 백조로 변하여 천지에 날아 내렸다고 한다. 자료8에서는 선녀들이 오색구름을 타고 날아 내린다. 기타의 자료에서는 천강의 방식에 대하여 그저 날아 내렸다거나 혹은 명확한 설명이 없다.

주인공 승천: 만주족의 백조처녀형 설화는 구조상 비슷한 점들이 많으며 대부분의 설화가 삼선녀가 과일 먹고 잉태하며 아이를 낳은 후 하늘로 올라가고 그 후대가 시조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타 민족의 설화마냥 주인공의 승천, 금기, 난제 등 화소들이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165) 「天鵝仙女」, 沈秀清 等 編, 위의 책, 1-3쪽.

166) 「天女浴窮池」, 烏炳安 等 編, 위의 책, 57-61쪽.

167) 「布庫裡雍順」, 沈秀清 等 編, 위의 책, 11-13쪽.

조력자: 자료8에서 조력자로 흑룡이 나타난다. 흑룡은 주인공의 구명 보답을 하기 위하여 주인공을 천지에 데려다 준다. 천지에서 주인공은 선녀와 만날 기회가 형성된다. 그리고 주인공과 선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흑룡이 나타나 그들을 구하여 준다. 자료15에서는 선녀를 돕는 조력자가 나타나는데 그 조력자는 장백산의 산신령이다.

가해자: 자료9에서의 가해자는 옥황상제로 나타나며 그는 雷公과 電母를 파견하여 아홉 선녀를 처벌한다. 자료15에서의 가해자는 하늘의 天狼星이다. 자료8에서의 가해자는 하늘의 이천왕(李天王) 등 천신들이다.

오르첸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화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주인공: 자료18¹⁶⁸⁾에서의 주인공을 놓고 보면 사냥꾼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13¹⁶⁹⁾에서는 주인공이 다른 설화와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이 설화에서의 주인공은 사냥꾼의 여동생이 오빠를 구하기 위하여서 남장을 하고 하늘의 세 선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료23¹⁷⁰⁾에서는 주인공이 사냥꾼 7형제 중의 성품이 어진 막내로 나타난다.

선녀: 자료18에서의 선녀는 백학이 변한 선녀이다. 자료13에서는 선녀가 삼형제로 나타나며 세 선녀는 동일한 남편을 섬기게 된다. 자료23에서는 선녀가 칠선녀로 나타난다.

선녀 천강: 자료18에서 선녀는 백학으로 변하여 하늘을 오르내린다. 자료13에서는 선녀는 새로서의 변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부를 수 있는 보배옷(寶衣)으로 하늘을 오르내린다. 자료23에서는 선녀가 은비둘기처럼 날아 내린다고 하였고 하늘로 다시 날아 갈 때는 전에 입던 선녀옷(仙衣)을 입고 날아갔다고 하였다.

168) 「安塔奈」, 內蒙古人民出版社 編, 『鄂倫春民間故事集』, 內蒙古人民出版社, 1981, 34-37쪽.

169) 「健康保護神的傳說」, 峻林 等, 『鄂倫春民間故事集成』, 內蒙古文化出版社, 1997, 93-95쪽.

170) 「攸來」, 峻林 等 編, 위의 책, 137-144쪽.

주인공 승천: 자료13에서는 주인공이 용왕이 준 신마(神馬)를 타고 하늘로 올라 갔다. 자료23에서는 주인공이 사슴의 뿔을 타고 하늘로 오른다.

조력자: 자료18에서 지상의 조력자로서 붉은 여우로 나타난다. 붉은 여우가 주인공의 위기를 도와주며 마귀를 처치하고 또한 선녀와의 혼인을 이루게 한다. 자료13에서는 신마가 조력자로 나타나며 주인공을 도와 선녀와 만나게 하며 하늘로 올라가게 도와준다. 하늘에서 난제 해결의 조력자로서는 세 선녀이다. 자료23에서는 주인공이 구한 황양(黃羊)이 선녀와의 만남 방법을 알려주고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늘에서의 난제 해결로는 선녀가 조력자로 나선다.

난제: 자료13에서 주인공이 천상에서 선녀의 부모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 난제로는 문턱을 밟아 끊기, 삼십보 밖에서 활로 달걀을 쏘아 맞히기, 그리고 백보 밖에서 활을 쏘아 바늘의 구멍을 맞히기로 나타난다. 자료25에서의 난제는 딱따구리의 코를 찾아오기, 공작새의 깃을 찾아오기, 용의 눈을 찾아오기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난제의 해결로는 선녀가 조력자로 나타난다.

가해자: 자료18에서의 가해자는 마귀(滿蓋)이다. 자료13에서의 가해자는 선녀의 부모이다. 자료23에서의 가해자는 선녀의 어머니인 얼굴색이 노란 색인 雷神과 선녀의 아버지 얼굴색이 검은 雷神이다.

시버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화소로는 아래와 같다.

주인공: 자료19¹⁷¹⁾에서의 주인공은 나무꾼으로 나타난다. 그는 부지런하고 착한 마음으로 토지신의 신뢰를 받으며 그로부터 선녀와의 만남의 방법을 얻게 된다. 자료28¹⁷²⁾에서는 주인공이 소를 모는 목동으로 나타나며 노루를 구하여 준 대가로 선녀와의 결합 방법을 알게 된다. 자료16¹⁷³⁾에서는

171) 「扎魯山與梅翠」, 關寶學 主編, 『錫伯族民間故事集』, 遼寧民族出版社, 2002, 157-166쪽.

172) 「放牛娃和仙女」, 關寶學 主編, 위의 책, 178-193쪽.

주인공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은 소를 치는 소몰이꾼으로 나타난다.

선녀: 자료19에서의 선녀는 하늘에서 사는 세 선녀 형제의 막내로 나타난다. 자료28에서는 선녀가 칠선녀의 막내로 나타난다. 자료16에서의 선녀는 여러 선녀들 중의 두 선녀가 지상의 두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선녀 천강: 자료19에서는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 올 때 선학을 타고 내려오며 하늘로 날아 갈 때도 선학을 타고 날아간다. 자료28에서는 칠선녀가 채색구름을 타고 지상의 호수로 날아 내린다. 자료16에서는 선녀들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수단으로는 선녀들이 입는 옷에 의하여 날게 된다. 여기서 선녀들의 옷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승천: 자료28에서 주인공이 하늘로 오르는 방식은 통천제(通天梯)를 통하여 오르게 되는데 구만구천구백구십구개의 계단을 올라서야 하늘에 닿게 된다.

조력자: 자료19에서의 조력자는 토지신으로 나타난다. 토지신은 주인공에게 선녀와의 혼인을 이루게 조언하여 주며 또 마귀에게 잡혀간 아내의 소식을 알려 준다. 자료28에서는 조력자가 주인공이 구하여 준 노루가 선녀들의 비밀을 알려주며 혼인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또 주인공이 아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기도 한다. 주인공이 하늘에서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선녀가 조력자로 나서며 그에게 난제해결의 방법을 알려 준다.

난제: 자료28에서의 난제로는 주인공이 하늘에서 받는 혼인 시험으로 된다. 그 난제의 내용으로는 북쪽 산정에 있는 독사의 나라에서 보석을 가져 오기, 동쪽 산정에 있는 꿀벌의 나라에서 자라는 모란꽃을 가져 오기, 서쪽 산에 있는 원숭이 나라에서 금북(金鼓)을 훔쳐오기로 되어 있다.

173) 「鵝娘鵝聶訥訥」, 李忠秀 主編, 中國民間文學集成遼寧卷, 『撫順郊區資料本(一)』, 1987, 198-199쪽.

가해자: 자료19에서의 가해자로는 산굴 속에 자리를 잡은 마귀의 왕이 나타난다. 마귀왕은 선녀를 납치하여 자신의 아내로 만들려고 한다. 자료28에서의 가해자로는 선녀의 어머니이다. 그는 주인공에게 난제를 부과하며 또 그들을 천하(天河)로 갈라 놓는다.

에벤키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화소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인공: 자료27¹⁷⁴⁾에서의 주인공은 두 형제의 막내이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형의 집에서 소를 친다. 후에 분가를 하게 되며 늙은 소와 같이 살게 된다.

선녀: 자료27의 선녀는 천상의 칠선녀 중의 막내이다. 마음이 약하고 어진 그는 옷을 찾지 못하고 지상의 목동과 결혼하게 된다.

선녀 천장: 자료27에서 선녀는 그저 하늘에서 날아 내렸다고 한다.

주인공 승천: 자료27에서 주인공은 소의 가죽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러나 소발통이 끊어진 탓으로 선녀를 따라잡지 못하고 강에 의하여 갈라지게 된다.

난제: 에벤키족의 설화 자료27에서 난제가 출현되지 않는다.

가해자: 자료27에서의 가해자는 하늘의 옥황상제와 왕모가 혼인의 가해자로 나타난다.

허저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나는 화소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인공: 허저족의 설화 자료31¹⁷⁵⁾에서의 주인공은 고소성(古蘇城)의 칸(汗)으로 나타난다. 자료17¹⁷⁶⁾에서의 주인공은 한 사냥꾼으로 나타난다.

174) 「鄂溫克人講的牛郎」, 杜梅, 『鄂溫克族民間故事』, 內蒙古人民出版社, 1989, 307-309쪽.

175) 「木竹林(1-3)」, 凌純聲 著, 『松花江下游的赫哲族(下冊)』, 民族出版社, 2012, 559-561쪽.

176) 「七女峰傳說」, 王士媛 等 編, 『赫哲族民間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1991, 191쪽, 汪立珍 著, 『滿-通古斯諸民族民間文學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6, 147-148쪽.

선녀: 자료3에서의 여주인공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놀러 내려온 칠선녀 중의 제일 어린 선녀(那丹格格)이다. 그는 칸에게 옷을 절도 당하고 그의 아내로 된다. 자료17에서의 여주인공은 천녀(天女)로 되어 있다.

선녀 천강: 자료3에서의 선녀들은 학을 타고 내려온다. 여주인공이 하늘로 날아갈 때도 학을 타고 날아간다.

허저족의 설화에는 내용상으로 복잡하지 않으며 주인공의 승천과 조력자, 금기, 난제, 가해자 등 화소들이 출현되지 않는다.

(3) 일본 절의성혼류 설화의 화소

일본의 백조처녀형 설화들의 화소 양상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인공: 일본 설화의 주인공은 한국과 달리 나무꾼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없다. 자료2177)와 자료6178), 자료12179)에서는 주인공이 사냥꾼으로 되어 있고 자료11180)과 자료21181), 자료25182)에서는 주인공이 어부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료24183)에서는 주인공이 농사와 나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 후의 내용으로 보면 주인공의 형상은 농민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자료29184)의 주인공도 농민의 형상으로 되어있다. 『류큐 설화집』에 기재되어 있는

177)「東海道名所記」, 水野裕, 『羽衣傳説の探究』, 産報, 1977, 31쪽.

178)「伊香小江」, 『帝王編年紀 養老七年』, 水野裕, 위의 책, 32-33쪽.

179)「三右衛門と天の川の傳説」, 『丹後峰山羽衣傳説』, 『静岡と世界を結ぶ羽衣・竹取の説話』, 静岡総合研究機構, 静岡新聞社, 2000, 208쪽.

180)「菅原道真は天人と桐畑太夫の子」, 『日本傳説大系 第八卷』, 水野裕, 위의 책, 205-206쪽.

181)「三保松原原羽衣傳説」, 『日本古典文學大系2 風土記』, 水野裕, 위의 책, 27-28쪽.

182)「福島縣‘天人女房’」, 『静岡と世界を結ぶ羽衣・竹取の説話』, 静岡総合研究機構, 静岡新聞社, 2000, 135-138쪽.

183)「仙女下凡」, 關敬吾, 『日本民間故事選』, 中國民間文藝出版社, 1982, 32-36쪽.

184)『沖繩民俗の會 會報』第八號, 『静岡と世界を結ぶ羽衣・竹取の説話』, 静岡総合研究機構, 静岡新聞社, 2000, 143-144쪽.

「遺老說轉」¹⁸⁵⁾의 35번의 설화에서도 주인공의 신분이 농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자료26¹⁸⁶⁾에서는 주인공이 돌솥 파는 장사꾼(砂鍋)으로 나타난다.

선녀: 자료2, 자료6, 자료11, 자료12, 자료25, 자료29에서는 여주인공인 선녀가 天女로 나타나고 자료21에서는 神女로 나타나며 또 자료24에서는 여주인공이 仙女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료26에서는 여주인공인 선녀가 七夕仙女로 되어있다.

선녀 천강: 일본의 이 유형 설화에서는 하늘의 선녀가 기본상 모두 羽衣를 갖추고 있다. 자료2에서는 천녀가 우의를 입고 내려오며 후에 하늘로 돌아갈 때도 우의를 입고 날아간다. 자료 12, 자료24, 자료25, 자료29에서도 천녀가 우의를 입고 날아다닌다. 자료21에서는 천녀가 우의를 입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돌아갔다고 한다. 다만 자료6에서 천녀 8명이 백조로 화하여 날아내려 왔다고 하고 후 우의를 걸치고 날아갔다고 한다. 자료11에서는 옷에 대하여 명확히 이야기 하지 않고 단 ‘옷’ 이라 함은 아마 역시 우의로 추정된다. 자료26에서는 칠석선녀가 옷을 찾아 입고 구름을 타고 날아갔다고 한다. 이로 추정하면 칠석선녀 역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천강한 것이라 생각된다.

주인공 승천: 자료12에서는 주인공이 실처를 한 후 夕顔¹⁸⁷⁾이란 물건의 넝쿨을 타고 하늘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24에서는 주인공이 아내가 알려 준 방법으로 金竹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며 자료25에서는 一夜夕顔의 넝쿨을 잡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한다. 자료21에서는 주인공 어부도 登仙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선녀와 같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으리라 생각된

185) 鄭秉哲 등 지음, 金憲宜 역, 『류큐설화집 《유로설전》』, 보고사, 2008, 116-118쪽.

186) 「七夕」, 西本雞介 編, 鄧三雄 等 譯, 『日本民間故事選粹』, 湖南人民出版社, 1983, 168-171쪽.

187) ‘夕顔’은 식물의 한가지로서 작은 박의 일종인 종구라기박을 말한다. 혹은 ‘夜顔’(밤나팔꽃)의 그릇된 이름으로도 쓰인다.

다. 자료26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쥔신을 신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한다.

石川純一郎은 일본 설화에서 주인공이 하늘로 오르는 방법을 네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물건을 쌓고 올라가는 유형으로 건초 배단을 쌓고 오르기와 거름 천무지를 쌓고 대나무를 세워 오르기; 둘째, 식물의 종자를 심고 넝쿨 타고 오르는 유형으로 瓜, 朝顔, 豌豆 등 넝쿨이 자라는 식물과 竹, 松, 朴(후박나무) 등 나무로 된 식물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많이는 호박과 夕顔이 출현되며 특히 하루저녁에 하늘까지 자라는 一夜夕顔의 출현 빈도가 높다고 한다; 셋째, 하늘로부터 천인이 끌어올려 주는 유형으로는 하늘에서 물을 길기 위하여 내려 오는 통 또는 병, 籠을 타고 오르기, 天書에 적힌 노래를 읽고 피어오르는 紫雲을 타고 오르기, 하늘에서 내리는 그물을 타고 오르기, 갈고리 타고 오르기 등이 있다; 넷째, 기타의 유형으로 千俵¹⁸⁸⁾의 등겨에서 타오르는 연기를 타고 오르기, 천 껍레의 신을 준비하고 자라는 식물을 타고 오르기 등이 있다.¹⁸⁹⁾

조력자: 일본 설화의 경우 한국과 달리 조력자에서 복잡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 자료6에서는 지상 혼인의 성사를 추동한 조력자로서는 白犬이다. 자료25에서는 주인공의 노모가 승천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여기서의 白犬과 노모는 신성성을 갖고 있는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료24, 그리고 자료26에서는 주인공의 승천 방법을 천녀가 떠나면서 알려준다. 자료12에서는 천녀가 남겨준 夕顔의 종자를 심어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오르게 된다. 천상에서의 혼인의 성사를 위하여 조력을 하는 인물은 선녀 자신으로 나타난다. 자료24과 자료26에서 바로 그러하다.

188) ‘俵’는 몇 등분으로 나눈다는 등분의 뜻이다.

189) 石川純一郎, 「羽衣·竹取説話の源流と展開」, 『静岡と世界を結ぶ羽衣·竹取の説話』, 静岡総合研究機構, 静岡新聞社, 2000, 133-135쪽 참조.

금기: 일본 설화에서의 금기는 지상 혼인의 유지로서 나타나는 금기는 크게 보이지 않고 승천과 천상 혼인 유지를 위한 금기가 설정되어있다. 자료12에서는 ‘하늘에서 다리를 놓을 때 아내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금기가 설정되어 있고 자료24에서는 “나막신과 짚신을 천 켄레 만들어야 한다.”는 금기가 있고 자료25에서는 “하루 저녁에 거름 천견(千肩)을 뿌려야 한다.”는 금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료26에서는 “짚신 천켄레를 만들어야 한다.”고 금기가 설정되어 있다. 주인공이 하늘로 오르기 위하여서 부과된 금기에는 모두 천이란 숫자 요구가 있다. 그러나 주인공은 급한 마음에 의하여 언제나 하나를 두고 천의 숫자를 채우지 못한다. 천상 혼인 유지의 금기로서는 자료25에서 “오이를 먹으면 홍수가 난다”, 자료24에서 “호박을 먹으면 홍수가 나기에 먹지 말라”, 자료26에서 “박을 먹으면 홍수가 나기에 먹지 말라” 등의 금기가 설치되어있다.

난제: 일본의 설화에서도 천상시련의 난제로 주인공이 처가 권에서 받게 되는 시험의 내용이 출현되고 있다. 자료24에서 나타나는 난제로서의 시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하루 사이에 一千町步의 산에 자란 나무를 모두 벌목하기”, “하루 사이에 그 벌목한 산지에서 밭을 갈기”, “하루 사이에 새로 갈아 놓은 밭에다 모두 호박을 심기”, “다시 심었던 호박을 모두 거두어 들이기”. 그리고 자료26에서는 “참대바구니로 물을 길기”, “밭에다 곡식 심기”, “밭에 심은 좁쌀을 모두 주어오기” 등 난제들이 주인공의 혼인 시험으로 부과되고 있다. 일본의 난제 특징을 보면 내용상으로 농경과 결합된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가해자: 자료26에서의 혼인 가해자로는 칠석선녀의 아버지이다. 자료24에서의 가해자는 역시 선녀의 아버지로서 천상의 왕이다.

표4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화소 비교

민족	자료	주인공	선녀	선녀 천강	주인공 승천	조력 자	금기	난제	가해자	목욕	절의
한국	자료1	나무꾼	선녀	무지개		사슴	아이 셋 낳기 전 옷 말 것			○	○
	자료10	나무꾼	선녀	날개옷		사슴	아이 셋 낳기 전 옷 말 것			○	○
	자료20	나무꾼	선녀	천의	드레 박	사슴	아이 셋 낳기 전 옷 말 것			○	○
	자료22	나무꾼	선녀	천의	오이 넙쿨	새		숨바꼭질, 활촉 찾기, 칼싸움	선녀 아버지	○	○
일본	자료2	사냥꾼	天女	羽衣							○
	자료6	사냥꾼	天女	백조 변함		白犬				○	○
	자료11	어부	天女	羽衣						○	○
	자료12	사냥꾼	天女	羽衣	넙쿨	天女	아내 생각 하지 말 것			○	○
	자료21	어부	女神	羽衣	구름						○
	자료24	농부	仙女	羽衣	金竹	선녀	호박 먹으면 홍수 난다	밭갈기, 벌목하기, 호박심기	선녀아 버지 (천왕)	○	○
	자료25	어부	天女	羽衣	넙쿨	노모, 天女	오이 먹으면 홍수 난다			○	○
	자료26	창사꾼	七夕 仙女	구름 타고 내림	질신 신음	선녀	질신 만들기, 박 먹으면 홍수 남	참대바구니로 물식심기, 좁쌀 짓기	선녀 아버지	○	○
	자료29	농부	天人	羽衣						○	○
만주족	자료4	천신	삼선녀							○	
	자료5		真人							○	
	자료7	세 사냥꾼	세 선녀	백조 변함						○	○
	자료8	어부	구선녀	오색 구름		흑룡			李天王 등신	○	
	자료9	아홉 사냥꾼	구선녀						옥황상 제	○	○
	자료14		삼선녀	백조 변함						○	
	자료15		삼선녀	天衣		장백산 신령			天狼星	○	○
오르첸족	자료13	사냥꾼 여동생	선녀 삼형제	寶衣	神馬 를 탐	神馬, 선녀		문턱 밟아 활로 달갈 쏘기, 바늘구멍 쏘기	선녀 부모	○	○
	자료18	사냥꾼	선녀	백학 변함		붉은 여우			마귀 (満盖)		
	자료23	사냥꾼		飛衣	사슴	黃羊,	옷 주지 말	딱따구리의	雷神	○	○

		칠형제			빨	선녀	것, 잡자리까지 업고 갈 것	코를 찾기, 공작새 찾기, 찾기			
시비족	자료16	목동	두 선녀	仙衣						○	○
	자료19	나무꾼	선녀	학을 탐		토지 신			마귀왕	○	
	자료28	목동	칠선녀	채색 구름	通天梯	노루		보석찾기,모 란꽃따오기, 金鼓가져오기	선녀의 어머니	○	○
에벤키족	자료27	목동	칠선녀	날아 내림	소가 죽을 탐	소(金 牛星)			옥황상 제,왕 모	○	○
허저족	자료3	칸(汗)	칠선녀	학을 타고 내림						○	○
	자료17	사냥꾼	天女								

* 위의 표에서 ○는 해당 화소가 있음을 표시하고 빈자리는 해당 화소가 없음을 표시한다.

2) 절의성혼류 설화의 구조 비교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구조 비교에서 우선 순차적인 배열관계를 비교하고 다음으로 설화에 나타나는 계약관계의 출현을 비교 한다. 그리고 8개의 대립항에 대하여 비교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선녀와 주인공의 공간적 대립과 공간적 통일의 구조 관계를 비교하기로 한다.

(1) 한국 절의성혼류 설화의 구조

한국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1:

- A. 금강산 고성군 원정리란 곳이 있다.
- B. 남의 집에서 사는 한 총각이 있다.
- C. 총각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 D. 총각이 나무를 하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한다.
- E. 사슴이 선녀의 비밀을 알려 준다.
- F. 사슴이 선녀와 결합의 금기를 알려 준다.
- G. 총각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간다.
- I.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다.
- J. 선녀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L. 총각이 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주인공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는 선녀와 부부로 된다.
- N. 두 사람 사이에 아이 둘이 태어난다.
- O. 총각이 선녀에게 옷을 돌려 준다.
- P. 선녀가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돌아간다.

- ① A-P까지는 단순 구조를 이루면서 선녀의 승천에 의하여 주인공이 실체하게 되며 실체형의 유형을 이룬다.
- ② 8개의 대립항에서 난제와 난제해결, 천강과 승천, 조력자와 가해자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 ③ 구제자 주인공과 피구제자 사슴지간에 혼인증여의 계약¹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 ④ 공간적 구조로는 선녀의 천강으로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다시 선녀의 승천으로 천상과 지상의 공간적 대립이 형성된다.

자료10:

- C. 한 총각이 장가를 들지 못했다.
- D.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슴을 구한다.
- E. 사슴이 선녀의 비밀을 알려 준다.

- G. 총각이 선녀가 목욕하는 곳으로 찾아간다.
- I.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 온다.'
- J. 선녀가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K. 총각이 선녀를 발견한다.
- L. 총각이 날개옷을 숨긴다.
- M. 총각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는 선녀와 부부로 된다.
- N. 두사람 사이에 아이 둘이 태어난다.
- O. 총각이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 준다.
- P.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 T₁. 총각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죽어서 수탉이 된다.

- ① A-P의 단순구조에T의 변이형인 T₁이 첨가되어 유래형의 설화가 이루어진다.
- ② 조력자와 가해자, 천강과 승천, 난제와 난제해결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 ③ 계약1의 관계가 출현된다.
- ④ 공간적으로 선녀와 주인공의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선녀의 승천으로 통일 공간이 파괴되고 대립의 공으로 발전한다.

자료20:

- A. 황해도 구월산이란 곳이 있다.
- B. 한 총각이 노모와 산다.
- D. 총각이 나무를 하다가 사슴을 구한다.
- E. 사슴이 선녀의 비밀을 알려준다.
- F. 선녀와 결합의 금기를 알려준다.

- G. 총각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 I. 선녀가 날아 내려온다.
- J. 선녀가 옷을 벗고 목욕한다.
- K. 총각이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한다.
- L. 총각이 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총각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는 선녀와 부부로 된다.
- N. 두 사람사이에서 아들 형제가 태어난다.
- O. 총각이 술에 취하여 옷을 돌려 준다.
- P. 선녀가 옷을 입고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떠난다.
- R. 사슴이 선녀와 만나는 방법을 알려 준다.
- S. 총각이 드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 T.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 Z. 총각은 선녀와 하늘에서 일생을 마친다.

- ① 후반부에 V-W와 X-Y인 가해자와 조력자, 난제와 난제해결의 대응 항들이 탈락되어 있다. 주인공이 하늘에 승천하여 선녀와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서 범남성신형의 유형이 이루어진다.
- ② 가해자와 조력자, 난제와 난제해결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 ③ 계약1의 관계가 출현된다.
- ④ 지상 공간의 통일에서 선녀의 승천과 주인공의 승천으로 천상에서의 공간 통일이 이루어진다.

자료22:

- I.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 J. 선녀가 옷을 벗고 목욕한다.

- L. 총각이 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하늘로 오르지 못한 선녀가 총각과 결혼한다.
- N. 두 사람 사이에 아이 둘이 태어난다.
- O. 총각이 옷을 돌려 준다.
- P. 선녀가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 R새가 하늘로 오르는 방법을 알려 준다.
- T. 총각이 새가준 오이씨를 심고 그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오른다.
- W. 선녀의 아버지가 시험문제를 낸다.
- X. 선녀가 난제해결을 돕는다.
- Y. 총각이 고향에서 승리한다.
- Z. 그 후 총각과 선녀가 잘 살았다.

- ① 전반부에서 D-E의 구제와 정보획득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후반부에 주인공의 천상 혼인 난제의 내용이 이루어지면서 난제형의 유형이 이루어진다.
- ② 구제와 정보획득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 ③ 천상에서 혼인 유지를 위한 선녀의 부모와 주인공의 계약2의 관계가 출현된다.
- ④ 공간의 구조는 지상에서의 1차적인 공간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주인공의 승천과 난제의 해결로 천상에서의 공간 통일이 이루어진다.

(2) 중국 만주-통구스족 절의성혼류 설화의 구조

만주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4:

- A. 장백산 동쪽에 布勒瑚哩池란 곳이 있다.
- B. 하늘의 천신이 빨강 과일로 변한다.
- H. 하늘에 삼선녀가 살고 있다.
- I. 선녀가 호수로 내려와 목욕을 한다.
- M₁.선녀가 과일을 먹고 잉태한다.
- N₁.아이가 커서 만주국을 건립한다.

- ① 전반부에서 B가 B₁로 변이되고 M가 M₁로 변이된다. 그리고 N₁이 첨가되면서 개국시조형을 이룬다.
- ② 주인공과 선녀, 출발과 발견의 두 대립항이 나타난다.
- ③ 이 설화에서는 두가지 계약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주인공 천신이 과일로 변하여 선녀가 먹고 잉태되고 다시 그 선녀이 후대로 태어난다. 이로 보면 지상의 공간에서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5:

- A옛날 布庫裡雍順이란 산이 있다.
- H. 그 산에 真人仙姑가 셋이 살았다.
- J. 그들이 장백산 천지에서 목욕을 한다.
- M₁.셋째 선녀가 과일을 먹고 잉태한다.
- N₁.그 후대가 왕으로 된다.

- ① 단순구조에서 4개의 항밖에 나타나지 않고 후반부에 N₁이 복합되어 개국시조형을 이룬다.
- ② 8개의 대립항이 이 설화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두 가지 계약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선녀가 지상에서 생활하는 만큼 천상과 지상의 대립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7:

- H. 하늘에 세 선녀가 산다.
- I. 세 선녀가 백조로 변하여 장백산의 천지로 날아 내려온다.
- J. 세 선녀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K. 세 사냥꾼이 목욕하는 선녀들을 발견한다.
- L. 사냥꾼들을 세 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세 사냥꾼이 세 선녀와 부부로 된다.
- N. 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
- O₂. 세 선녀가 옷을 발견한다.
- P. 세 선녀가 하늘로 날아간다.
- N₂. 사냥꾼과 선녀의 아이들이 세 씨족으로 된다.
- I. 세 선녀가 다시 백조로 변하여 장백산으로 날아 내린다.
- J. 선녀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M₁. 선녀가 과일을 먹고 잉태한다.
- N₂. 아이가 커서 만주족의 선조로 된다.

- ① 전반부의 단순구조에서 D, E, F항이 탈락된다. 후반부에 I, J, M₁과 N₂가 첨가되어 시조기원형이 이루어진다.
- ② 선녀와 주인공, 결핍과 결핍의 해소, 출발과 발견 등 3개의 대립항이 출현된다.
- ③ 두 가지의 계약관계가 출현되지 않는다.

④ 선녀의 천강으로서 전반부에서는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후반부에서는 선녀의 승천으로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이 이루어진다.

자료8:

- A. 옛날 장백산이란 곳이 있다.
- B. 한 어부 총각이 있었다.
- C. 어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 D. 어부가 흑룡을 구하였다.
- E. 흑룡이 어부를 천지로 데려다 주었다.
- I. 하늘의 아홉 선녀가 천지로 내려 온다.
- J. 선녀가 천지에서 목욕을 한다.
- K. 어부가 목욕하는 선녀들을 발견한다.
- L₂.구선녀가 나체를 보였으니 어부와 결혼하기로 한다.
- M. 어부가 선녀와 부부로 된다.
- V. 천신들이 선녀를 잡으러 온다.
- X. 흑룡이 어부와 선녀를 구한다.
- Y. 어부와 선녀가 탈주한다.
- Z. 어부와 선녀가 송화강 유역에 정착한다.
- N₂.그들의 후대가 녀진족이 된다.

① 전반부에서 L가 L₂로 변이된다. 후반부에 N₂가 첨가되면서 시조기원형이 이루어진다.

② 금기와 금기파괴, 천강과 승천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③ 계약관계에서의 계약2가 출현된다.

④ 선녀의 천강으로 지상체류하면서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자료9:

- A. 장백산에 천지란 곳이 있다.
- J. 하늘의 아홉 선녀가 천지에서 목욕을 한다.
- K. 아홉 사냥꾼이 목욕하는 선녀들을 발견한다.
- L. 사냥꾼들이 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아홉 사냥꾼과 아홉 선녀가 부부로 된다.
- N. 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
- P₄.선녀들이 옥황상제로부터 벌을 받고 죽는다.
- N₂.그 후대들이 만주족의 八旗로 된다.

- ① 전반부의 단순구조에서 D-E 항이 탈락되어 있다. 후반부에 N₂가 첨가되면서 시조기원형이 이루어진다.
- ② 선녀와 주인공, 출발과 발견의 대립항이 출현된다.
- ③ 두 가지 계약관계가 출현되지 않는다.
- ④ 선녀의 천강과 주인공의 지상 체류로 지상 공간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자료14:

- H. 하늘에 세 선녀 형제가 산다.
- I. 선녀들이 백조로 변하여 지상으로 내려온다.
- J. 선녀들이 옷을 벗고 천지에서 목욕한다.
- M₁.셋째 선녀가 과일을 먹고 잉태한다.
- P. 선녀가 백조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간다.
- N₃.그 후대들이 어머니를 어낭(鵝娘)이라 부른다.

- ① 전반부에 단 H, I, J, M₁의 항만 출현된다. 후반부에 N₃항이 첨가되어 유래형으로 이루어진다.
- ② 8개의 대립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두 가지 계약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설화에서 선녀란 단 한 인물이 나타나며 선녀의 천강과 승천의 공간 대립이 형성된다.

자료15:

- H. 하늘에 세 선녀가 산다.
- I. 선녀가 시상으로 날아 내린다.
- J. 선녀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L. 天狼星(가해자)이 옷을 숨긴다.
- M₁. 선녀가 과일을 먹고 잉태한다.
- N₁. 그 후대가 나라를 건립한다.
- P₃. 선녀가 지상에 남아 미인송이 된다.

- ① H, I, J, L항이 전반부에 나타나며 M가 M₁로 변형되고 N항이 N₁로 변형되고 P가 P₃으로 변형되면서 유래형을 이룬다.
- ② 이 설화에서 비록 가해자와 조력자의 대립항이 출현되지만 이는 선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③ 두 가지 계약관계가 출현되지 않는다.
- ④ 공간의 구조로서는 선녀가 천강하고 지상에서 체류되면서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공간이동이 이루지고 주인공이 출현되지 않으므로 두 인물에 의한 공간 대립이 형성되지 않는다.

오르첸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13:

- B. 사냥꾼 오누이가 있다.
- D. 사냥꾼이 용왕의 아들을 구한다.
- E. 용왕이 하사한 신마가 선녀의 비밀을 알린다.
- G₁. 여동생(가짜 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 J. 세 선녀가 못에서 목욕을 한다.
- K. 여동생이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한다.
- L. 여동생이 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세 선녀가 여동생과 혼인을 한다.
- O. 여동생이 선녀에게 옷을 돌려준다.
- P. 세 선녀가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
- T. 여동생이 신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 U. 여동생이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 V. 선녀의 부모가 혼인을 반대하여 나선다.
- W. 선녀의 부모가 시험문제를 낸다.
- X. 선녀가 난제해결을 도와 나선다.
- Y. 여동생이 부과된 난제를 해결한다.
- Z. 선녀와 사냥꾼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 P₃. 세 선녀가 죽은 후 천연두와 홍역, 상한과 열병을 관리하는 세 신으로 된다.

- ① 설화의 전반부에 G_1 인 가짜 주인공이 나타난다. 그리고 N항이 탈락되어 있다. 후반부에서 Q-Z까지는 가짜 주인공이 혼인 난제를 대신하여 완성한다. 결말부에 Z2가 첨가되면서 유래형으로 된다.
- ② 8개의 대립항에서 금기와 금기파괴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 ③ 이 설화에서 두 가지 계약 관계가 모두 출현된다.
- ④ 선녀의 천강으로 1차적 지상 공간 통일이 형성되고 선녀의 승천과 주인공 승천으로 천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시 주인공과 선녀의 지상 하강으로 주인공과 선녀가 지상 공간의 2차적 통일을 이룬다.

자료18:

- B. 安塔奈란 사냥꾼 총각이 있다.
- E. 붉은 여우가 선녀의 비밀을 알려 준다.
- G. 사냥꾼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 I. 선녀가 백학으로 변하여 날아 내려온다.
- L_3 . 선녀의 부모가 선녀를 사냥꾼에게 보낸다.
- M. 사냥꾼이 선녀와 부부로 된다.
- V_1 . 마귀가 혼인을 방해한다.
- X. 붉은 여우가 천신의 힘을 빌어 마귀를 처단한다.
- Z. 사냥꾼과 선녀가 지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 ① 설화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고 전반부의 E에서 조력자는 주인공이 구제한 동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동물로 된다. L가 주인공이 주동으로 칭혼하는 L_1 로 변이된다. 설화의 후반부에 V_1 이 첨가되면서 마귀처치형으로 된다.

- ② 선녀와 주인공, 조력자와 가해자, 출발과 발견, 결핍과 결핍해소 등 4개의 대립항이 출현된다.
- ③ 두 가지 계약 관계가 출현되지 않는다.
- ④ 선녀의 천강과 지상체류로 인하여 공간 구조가 지상 공간의 통일로 이루어진다.

자료23:

- B. 攸來라는 사냥꾼이 있다.
- D. 사냥꾼은 황양 한 마리를 구한다.
- E. 황양이 칠선녀의 비밀을 알려 준다.
- F. 황양이 옷을 선녀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알린다.
- G. 사냥꾼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 I. 칠선녀가 하늘에서 날아 내린다.
- J. 선녀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K. 사냥꾼이 선녀를 발견한다.
- L. 사냥꾼이 칠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칠선녀가 사냥꾼과 부부로 된다.
- O. 사냥꾼이 선녀의 옷이 숨겨진 곳을 알려 준다.
- P. 선녀가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
- R. 황양이 선녀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 T. 사냥꾼이 사슴의 뿔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 U. 사냥꾼이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 V. 선녀의 부모가 혼인을 반대한다.
- W. 선녀의 부모가 시험문제를 낸다.
- X. 선녀가 난제해결을 도와 나선다.

Y. 사냥꾼이 난제를 해결한다.

Z. 사냥꾼이 선녀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잘 산다.

① 이 설화는 상당히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N항이 탈락되어 있다. 후반부에 주인공의 천상 혼인시련으로 난제 고향이 첨가되어 난제형을 이루고 있다.

② 8개의 대립항이 모두 출현된다.

③ 두 가지 계약 관계가 모두 출현된다.

④ 선녀의 천강으로 지상에서의 공간 통일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시 주인공의 승천과 선녀 동반 하강으로 지상에서의 2차적인 공간 통일이 이루어진다.

시버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16:

B. 소몰이꾼 두 사람이 있었다.

C. 두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J. 선녀들이 목욕을 한다.

K. 두 사람은 목욕하는 선녀들을 발견한다.

L. 두 사람은 두 선녀의 옷을 숨긴다.

M. 두 사람은 두 선녀와 부부로 된다.

N.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 난다.

O. 두 선녀가 옷을 되찾는다.

P. 두 선녀가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

N₃.그들의 후대가 어머니를 어냥(鵝娘)이라고 부른다.

- ① 전반부의 단순구조에서 구제와 정보획득으로서의 항들이 탈락되어있다.
후반부에 N3이 참가되면서 유래형을 이루고 있다.
- ② 주인공과 선녀, 결핍과 결핍해소, 출발과 발견 등 3개의 대립항만 출현
된다.
- ③ 두 가지 계약관계가 출현되지 않는다.
- ④ 선녀의 천강에 의한 지상 공간의 통일이 다시 선녀의 승천에 의하여 천
상과 지사의 공간 대립으로 이루어진다.

자료19:

- B. 扎魯山이란 나무꾼이 있다.
- E. 토지신이 선녀의 비밀을 알려 준다.
- G. 나무꾼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 H. 하늘에 세 선녀가 산다.
- I. 세 선녀는 백학을 타고 날아 내려온다.
- J. 선녀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K. 나무꾼이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한다.
- L₅. 나무꾼이 셋째 선녀의 백학을 죽인다.
- M. 나무꾼과 선녀가 부부로 된다.
- N. 그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 P₁. 선녀가 마귀에게 납치를 당한다.
- Q. 나무꾼이 선녀를 찾아 떠난다.
- V₁. 마귀가 혼인을 방해한다.
- W. 선녀가 나무꾼을 도와 마귀를 처단한다.
- Z. 선녀와 나무꾼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 ① 전반부의 단순구조에서 L항이 L_5 의 변이형으로 나타나며 후반부의 복합 구조에서 V_1 의 변이항이 나타나면서 마귀처치형으로 된다.
- ② 8개의 대립항에서 금기와 금기의 파괴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 ③ 두 가지 계약 관계가 출현되지 않는다.
- ④ 선녀의 천강과 지상체류로 주인공과 선녀가 지상 공간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자료28:

- B. 한 목동이 있다.
- D. 목동은 사슴을 구한다.
- E. 사슴은 칠선녀의 비밀을 알려 준다.
- G. 나무꾼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 I. 칠선녀가 구름을 타고 날아 내린다.
- J. 선녀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K. 나무꾼이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 한다.
- L. 나무꾼이 칠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선녀가 나무꾼과 부부로 된다.
- N. 그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 O. 나무꾼이 술 취한 김에 선녀의 옷이 숨겨진 곳을 알려 준다.
- P. 선녀가 옷을 입고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 간다.
- R. 사슴이 하늘로 오르는 방법을 알려 준다.
- T. 나무꾼은 통천제(通天梯)를 타고 하늘로 오른다.
- U. 나무꾼은 하늘에서 선녀와 만난다.
- V. 선녀의 부모가 혼인을 반대한다.

- W. 선녀의 부모가 시험문제를 낸다.
- X. 선녀가 난제해결을 도와 나선다.
- Y. 나무꾼이 난제를 해결한다.
- Z₃. 부부가 선녀의 어머니가 만든 강에 의해 갈라진다.

- ① 이 설화는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후반부의 복합구조에서 Z가 Z₃로 변이되면서 칠석형을 이룬다.
- ② 대립항에서는 금기와 금기파괴가 탈락되어 있다.
- ③ 이 설화에서 두 가지 계약 관계가 모두 출현된다.
- ④ 선녀의 승천으로 지상에서의 공간 통일이 이루어 지고 다시 선녀의 승천과 주인공의 승천으로 천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에벤키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27:

- B. 옛날 한 우랑이 있었다.
- C. 우랑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 E. 우랑이 키우는 소가 선녀의 비밀을 알려 준다.
- G. 우랑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 I. 칠선녀가 하늘에서 날아 내려 온다.
- J. 선녀가 옷을 벗고 호수에서 목욕을 한다.
- K. 우랑이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한다.
- L. 동생이 칠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우랑이 선녀와 부부로 된다.

- N. 우랑과 선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P₄. 선녀가 옥황상제에 의하여 잡혀 간다.
 R. 소가 하늘로 오르는 방법을 알려 준다.
 T. 우랑이 하늘로 올라간다.
 Z₃. 우랑과 선녀가 왕모에 의하여 갈라지면서 칠월칠에 만난다.

- ① 이 설화는 전형적인 “우랑직녀형”과 “백조처녀형” 설화의 결합형이다. 설화의 후반부에 Z가 Z₃으로 변이된다.
 ② 8개의 대립항에서 구제와 정보획득, 난제와 난제해결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③ 두 가지의 계약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선녀의 천강으로 인하여 지상에서의 공간이 통일을 이루고 다시 선녀의 승천과 주인공의 승천으로 천상에서의 공간 통일이 이루어진다.

허저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3:

- H. 하늘에 칠선녀 형제가 있었다.
 I. 선녀들이 못으로 놀러 내려 온다.
 J. 선녀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K. 칸(汗)이 사냥을 하다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한다.
 L. 칸이 칠선녀의 옷을 숨긴다.
 M. 칸이 선녀와 부부로 된다.
 N. 선녀가 임신을 한다.
 P. 선녀가 형제를 찾아 백학을 타고 하늘로 떠난다.

- ① 이 설화에서는 전반부에서 H-P만 출현되고 기타의 항들은 탈락되어 있다.
- ② 주인공과 선녀, 출발과 발견, 결핍과 결핍해소 등의 3개 대립항만 출현된다.
- ③ 두 가지 계약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공간의 구조에서는 선녀의 천강과 지상체류로 지상 공간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선녀의 승천으로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을 이룬다.

자료17:

- A. 송화강 남안에 칠녀봉이란 곳이 있다.
- I. 천녀가 지상으로 내려 왔다.
- K. 한 사냥꾼이 선녀를 발견한다.
- M. 사냥꾼이 천녀와 부부로 된다.
- N. 사냥꾼과 천녀 사이에 딸 일곱 형제가 태어난다.
- P. 천녀가 하늘로 날아 간다.
- T₂. 사냥꾼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지상에 남는다.
- N₃. 딸 칠형제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칠녀봉이 된다.

- ① 전반부로 되는 단순구조에서 N₃이 첨가되면서 유래형을 이루고 있다.
- ② 주인공과 선녀, 출발과 발견, 결핍과 결핍해소 등 대립항이 출현된다.
- ③ 두 가지 계약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선녀의 천강으로 주인공과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선녀의 승천으로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이 이루어진다.

(3) 일본 절의성혼류 설화의 구조

일본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2:

- I. 천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 J. 천녀가 우의를 벗어 소나무에 걸어 놓는다
- L. 사냥꾼이 우의를 숨긴다.
- M. 사냥꾼이 천녀와 부부로 된다.
- O. 천녀가 우의를 발견한다.
- P. 천녀가 우의를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

- ① 이 설화에서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전반부에서 I, J, L, M, O, P 의 항만 출현되고 선녀의 승천으로 결말이 되면서 실처형의 이루고 있다.
- ② 주인공과 선녀, 결핍과 결핍의 해소 두 대립항만 출현된다.
- ③ 이 설화에서는 계약1과 계약2가 출현되지 않는다.
- ④ 선녀의 천강으로 주인공과 지상에서 공간 통일을 이루고 다시 선녀의 승천으로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을 이룬다.

자료6:

- A. 近江國의 伊香郡 與胡郷에 伊香小江이 있다.
- I. 천녀가 백조로 변하여 하늘에서 강으로 내려 온다.
- J. 천녀가 목욕을 한다.
- K. 伊香刀美가 목욕하는 천녀를 발견한다.
- L. 伊香刀美가 白犬을 시켜 우의를 숨긴다.

- M. 伊香刀美가 천녀와 부부로 된다.
 N.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N₁.그 아이들 伊香連의 선조가 된다.
 O. 천녀가 옷을 발견한다.
 P. 천녀가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
 T₂.伊香刀美는 지상에 혼자 남는다.

- ① 전반부의 단순구조에서 D-E의 향이 탈락되고 N₂는 변이형을 이루면서 시조기원형을 이루고 있다.
 ② 대립항으로는 주인공과 천녀, 출발과 발견의 대립항이 출현된다.
 ③ 이 설화에서 두가지 계약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공간 구조로서는 천녀의 천강으로 지상에서 주인공과의 1차적인 지상 공간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천녀의 승천으로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이 형성된다.

자료11:

- A. 余吳湖란 곳이 있다.
 B. 桐畑太夫란 어부가 부근에 산다.
 K. 어부가 목욕하는 천녀를 발견한다.
 L. 어부가 옷을 숨긴다.
 M. 어부가 천녀와 부부로 된다.
 N. 어부와 천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O. 천녀가 옷을 발견한다.
 P. 천녀가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
 N₁.그 아이가 菅原道真이 되고 절의 이름이 菅山寺이다.

- ① 전반부분에서 C-I의 항이 탈락되어 있고 O는O₁로 변이된다. 결말에 N₃의 첨가로 유래형이 이루어진다.
- ② 주인공과 선녀, 결핍과 결핍의 해소 두 대립항이 출현된다.
- ③ 이 설화에서 두 계약 관계가 출현되지 않는다.
- ④ 선녀의 천강으로 지상 공간의 1차적 통일로부터 선녀의 승천에 의하여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이 형성된다.

자료12:

- A. 옛날 峰山の 比治里란 곳이 있다.
- B. 三右衛門이라 부르는 사냥꾼이 있다.
- K. 사냥꾼은 천녀가 목욕하는 것을 발견한다.
- L. 사냥꾼이 천녀의 우의를 숨긴다.
- M. 사냥꾼이 천녀와 부부로 된다.
- N. 사냥꾼과 천녀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 O. 천녀가 우의를 발견한다.
- P. 천녀가 우의를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
- R. 천녀가 하늘 오르는 夕顔의 종자를 남긴다.
- T. 사냥꾼이 넝쿨을 잡고 하늘로 올라간다.
- Z₁. 사냥꾼이 금기과괴로 강물에 밀려간다.
- N₃. 그 후대가 乙女神社の 大路氏神로 된다.

- ① 후반부에 Z₁과 N₃이 첨가되면서 유래형을 이루고 있다.
- ② 구제와 정보획득, 난제와 난제해결, 조력자와 가해자가 탈락되어 있다.
- ③ 이 설화에서 두가지 계약 관계가 출현되지 않는다.

④ 공간적 구조로는 선녀의 천강으로 지상 공간이 이루어지고 다시 선녀의 승천과 주인공의 승천으로 천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자료21:

- I. 선녀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다.
- J. 우의를 소나무에 걸어놓는다.
- L. 어부가 우의를 숨긴다.
- M. 어부가 선녀와 부부로 된다.
- O. 선녀가 우의를 발견한다.
- P. 선녀가 우의를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
- T. 어부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

- ① 전반부의 단순구조에서 I, L, M, P만 나타난다. 후반부에 T항이 첨가되면서 범남승천형이 이루어진다.
- ② 주인공과 선녀, 천강과 승천, 결핍과 결핍해소 등 대립항이 출현된다.
- ③ 두 가지 계약관계가 출현되지 않는다.
- ④ 주인공의 승천으로 지상 공간의 1차적 통일에서부터 천상공간의 통일로 이루어진다.

자료24:

- B. 米格朗이라 부르는 총각이 농사와 나무 파는 것으로 생계를 한다.
- L. 총각이 선녀의 보배옷을 발견하고 숨긴다.
- M. 총각이 선녀와 부부로 된다.
- N.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 O. 선녀가 보배옷을 발견한다.

P. 선녀가 보배옷을 입고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간다.
 R. 선녀가 하늘로 오르는 방법을 알려 준다.
 T. 총각이 하늘로 올라간다.
 U. 총각이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V. 선녀의 아버지가 혼인을 반대한다.
 W. 선녀의 아버지가 시험문제를 낸다.
 X. 선녀가 난제해결을 도와 나선다.
 Y. 총각이 부과된 난제를 해결한다.
 Z₁. 총각이 호박을 켜다가 그 속에서 나오는 홍수에 밀려 가고 칠월칠석에만 만나게 된다.

- ① 전반부인 단순구조와 후반부로서의 복합구조가 나타난다. Z₁의 출현으로 설화가 칠석형으로 이루어진다.
- ② 8개의 대립항에서 구체와 정보획득의 대립항이 탈락되어있다.
- ③ 계약2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 ④ 주인공의 승천으로 지상 공간의 통일이 천상 공간의 통일로 이루어지고 후 견우성과 직녀성으로의 분리 상태도 역시 천상공간의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25:

B. 어부와 노모가 산다.
 J. 선녀가 우의를 벗고 목욕을 한다.
 L. 개가 자져 온 우의를 어부가 숨긴다.
 M. 어부가 선녀와 부부로 된다.
 N.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O. 선녀가 옷을 발견한다.

P. 선녀가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간다.

R. 노모가 一夜夕顔의 넝쿨을 타고 하늘 오르는 방법을 알린다.

T. 어부가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U. 어부가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Z₁. 어부가 오이를 먹으려다가 홍수에 밀려 갈라지고 칠월칠석에만 만난다.

① 전반부의 단순구조에서 D-E인 향이 탈락되어 있고 복합구조에 V-Y의 난제에 관한 향이 탈락되어 있다.

② 구제와 정보획득, 금기와 금기의 파괴, 난제와 난제해결의 대립향이 탈락되어 있다.

③ 이 설화에서 두 가지 계약관계가 출현되지 않는다.

④ 선녀의 천강으로 지상의 공간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선녀의 승천과 주인공의 승천으로 천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주인공이 홍수에 밀려가서도 역시 천상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귀속된다.

자료26:

B. 한 돌술 장사꾼이 있었다.

K. 바다가를 지나다가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한다.

L. 장사꾼은 선녀의 옷을 숨긴다.

M. 장사꾼은 선녀와 부부로 된다.

N. 두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O. 선녀가 옷을 발견한다.

P. 선녀가 옷을 입고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떠난다.

- Q. 장사꾼이 아내를 찾아 떠난다.
- R. 선녀가 짚신 천 결레를 만들어 하늘로 오르라는 방법을 알려 준다.
- T. 장사꾼이 하늘에 올라간다.
- U. 장사꾼이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 V. 선녀의 부모가 혼인을 반대한다.
- W. 선녀의 부모가 시험문제를 낸다.
- S. 선녀가 난제해결을 도와 나선다.
- Y. 돌술장사꾼이 난제를 해결한다.
- Z₁. 돌술장사꾼이 박을 켜다가 흘러나오는 홍수에 밀려 일년에 한번밖에 선녀와 만나지 못한다.

- ① 전반부의 단순구조에서 Q-Z₁의 복합형이 첨가되면서 칠석형을 이룬다.
- ② 구제와 정보획득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 ③ 계약1이 없고 다만 천상에서의 혼인유지의 계약2만 나타난다.
- ④ 선녀의 천장에서 지상 공간이 통일을 이루다가 선녀의 승천과 주인공의 승천으로 천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자료29:

- A. 伊平屋島에 미루카시라는 농부가 있었다.
- K. 농부는 天人이 머리 감는 것을 발견한다.
- L. 농부는 천인의 우의(羽衣)를 숨긴다.
- M. 농부는 천인과 부부로 된다.
- N. 두 사람사이에 아이가 생긴다.
- O. 천인은 우의를 발견한다.
- P. 천인은 우의를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

Z₄하늘로 오른 천인한테서 아이가 태어나고 칠성 중의 子持星으로 된다.

① 설화의 전반부에 D-E, F-O, I-T인 대립항에 해당하는 단락소들이 탈락되어있고, 결말에 배 속의 아이가 하늘에서 태어나 칠성 중의 子持星이 된다는 단락소가 복합되면서 칠성형을 이룬다.

② 설화에서 다만 결핍과 결핍해소, 범인과 선녀 두개의 대립항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혼인 계약으로서의 두 가지 계약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공간적 구조로는 선녀의 천강에 의하여 지상에서의 1차적 공간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선녀의 승천으로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으로 이루어진다.

표5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구조 비교

민족	자료	단순구조	복합구조	대립항 (탈락항만 표시)	계약관계	공간구조
한국	자료1	○		④⑤⑧	계약1	①③
	자료9	○	○	④⑤⑧	계약1	①③
	자료20	○	○	④⑧	계약1	①②
	자료22	○	○	②	계약2	①②
일본	자료2	○		②③④⑤⑥⑧		①③
	자료6	○	○	①②③④⑤⑧		①③
	자료11	○	○	②③④⑤⑥⑧		①③
	자료12	○	○	②④⑧		①②
	자료21	○	○	②③④⑥⑧		①②
	자료24	○	○	②	계약2	①②

	자료25	○	○	②③④		①②
	자료26	○	○	②	계약2	①②
	자료29	○	○	②③④⑤⑥⑧		①②
만주족	자료4	○	○	①②③④⑤⑧		①
	자료5	○	○	대립항 없음		①
	자료7	○	○	②③④⑤⑧		①②
	자료8	○	○	③⑤	계약2	①
	자료9	○	○	①②③④⑤⑧		①
	자료14	○	○	대립항 없음		①② ¹⁹⁰⁾
	자료15	○	○	①②③④⑤⑥⑦		①② ¹⁹¹⁾
오르첸족	자료13	○	○	③	계약1 계약2	①②③
	자료18	○	○	②③④⑤		①
	자료23	○	○	대립항 탈락 없음	계약1 계약2	①②③
시버족	자료16	○	○	②③④⑤⑧		①②
	자료19	○	○	③		①
	자료28	○	○	③	계약1 계약2	①②
에벤키족	자료27	○	○	②④		①②
허저족	자료3	○		②③④⑤⑧		①②
	자료17	○	○	②③④⑤⑧		①②

3) 절의성혼류 설화에 나타난 화소와 구조의 변별적 의미

(1) 절의성혼류 설화에 나타난 화소의 차이와 의미

190) 자료15에서는 다만 선녀의 공간 이동만 출현된다.

191) 자료16에서도 공간 이동은 선녀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① 절의성혼류 설화에 나타난 화소의 차이

한국의 설화에서 볼 때 주인공의 신분은 대부분이 나무꾼으로 등장한다. 일본 설화의 주인공은 사냥꾼과 어부, 농부, 그리고 장사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만주족의 설화에서는 다른 민족에 비하여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만 선녀만 출현된다. 설화에서 주인공은 사냥꾼, 어부 천신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오르첸족의 설화에서 주인공이 모두 사냥꾼으로 출현된다. 시버족의 설화에는 목동과 사냥꾼으로 출현된다. 오르첸족의 설화는 목동과 사냥꾼으로 출현되고 허저족의 주인공은 사냥꾼으로 나타나고 자료3에서의 칸(汗)도 사냥을 하던 중에 선녀를 발견한다. 이상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주인공이 나무꾼으로 나타나고 일본은 주인공의 신분이 비교적 복잡하며 만주족은 주인공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리고 오르첸족과 에벤키족, 허저족의 경우 사냥꾼으로 나타나고 시버족에서는 목동과 나무꾼이 출현된다.

선녀의 형상으로 보면 한국은 선녀로 직접 출현된다. 그러나 1927년 『조선여속고』에 기록된 「金剛山樵夫娶羽衣天女說」¹⁹²⁾와 손진태선생의 1947년에 초판으로 출판되었던 『韓國民族說話의 研究』란 책에서 기록된 「金剛山仙女說話」¹⁹³⁾에서는 분명히 선녀를 天女로 일컬었고 선녀가 입을 옷을 羽衣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명명은 일본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선녀와 선녀의 날개옷에 대한 명명과 똑 같은 면을 보인다. 특히 「金剛山樵夫娶羽衣天女說」 설화는 한국에서 채록된 시기가 제일 이른 것으로 되고 있다. 만약 이 설화에서 본다면 선녀의 형상도 女鳥로 될 것이고 선녀의

192)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30쪽.

193) 손진태,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을유문화사, 1981, 193-194쪽.

옷도 羽衣로 될 것이다. 이는 후기에 채집된 많은 「나무꾼과 선녀」 설화들과 일정한 차별을 보이는 것으로 된다. 그의 유입과 발전 양상도 또한 다른 문제로 될 것이다.

일본의 설화에서는 선녀가 天女로, 그리고 선녀의 옷이 羽衣로 되어 있다. 일부 설화에서는 선녀가 직접 백조로 변하여 하늘에서 날아 내린다. 이는 일본 설화의 여주인공은 女鳥의 형상을 갖고 있다.

만주족의 선녀 형상은 거의 모두가 천상의 선녀로 나타난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 올 때는 백조로 변하고 하늘로 날아갈 때도 백조로 변한다. 이 역시 女鳥의 형상이다.

오르첸족에 나오는 선녀는 백학으로 변하거나 새의 날개를 갖고 있다. 이 역시 女鳥의 형상이다. 그러나 시버족의 경우 선녀는 새로 변하거나 새의 날개를 갖춘 女鳥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시버족의 설화를 비롯하여 일부의 민족 설화에서는 이미 중원 지역의 문화 혹은 도가 신선사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인 범남의 승천에서 볼 때 한국의 설화에서는 드레박, 녕쿨 등과 같은 줄이 달린 물체를 통하여 하늘로 오른다. 일본의 경우 식물의 녕쿨, 혹은 대나무를 통하여 즉 하늘로 계속 자랄 수 있는 물체를 통하여 오른다. 이외에 구름, 연기 등 하늘로 피어오를 수 있는 물체가 승천의 도구로 나타난다. 만주족의 설화에서는 주인공이 부채하거나 혹은 주인공인 범남의 승천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타의 민족 속에서 범남 승천이 많이 나타나는 데 간혹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신마, 거대한 사슴의 뿔, 통천제, 혹은 소의 가죽 등으로 되어있다. 이는 이 민족들의 수렵생활과 많은 영향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문화적으로 많이 뒤쳐진 상태에서 인간이 하늘에 올라 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사상 경지에 까지 달하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

설화에서 금기가 나타나는 설화는 다만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난다. 오르첸족의 자료23에 나타나는 금기는 실상 전형적인 금기 향으로 보기가 힘들다. 한국 설화의 금기 사항에는 주로 아이의 수에 놓여 있다. 아이 셋을 낳으면 선녀가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오를 수 없다는 이유로 주로 선녀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금기이다.

일본의 금기는 주로 하늘에 오른 범남이 박을 먹고 홍수를 자아내는 것으로서 물과 관련된 홍수 금기의 내용, 주인공이 선녀로부터의 이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인공이 하늘 승천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쥔신, 거름 등이 한 개를 내놓고 만개 혹은 천개를 채우지 못하는데서 사물에 대한 원만 혹은 극치에 대한 숭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설화의 금기는 조력자가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 설화의 금기는 선녀가 부부 이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인공에게 미리 알린 것이다.

설화에서 난제 출현은 한국과 일본, 오르첸족과 시버족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난제 내용으로는 주로 지혜에 대한 고험, 용감성과 무예에 대한 고험 내용을 위주로 한다. 이이에 말타기와 같은 기마 숭상과 같은 내용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난제 내용은 밭갈이, 벌목하여 밭 만들기, 호박심기, 곡식심기, 물길기 등등의 내용으로 나타나며 주로 농경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 오르첸족과 시버족의 난제 내용으로는 지혜와 용감성에 대한 고험 내용들이 많다. 이와 같은 난제 내용들은 각 민족의 지역적 생활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설화에서 나타나는 가해자로서는 대다수의 경우 선녀의 부모로 나타나며 그 신분은 하늘의 천제, 혹은 옥황상제, 서왕모, 혹은 雷神과 같은 하늘의 신으로 되어 있다. 오르첸족과 시버족의 설화에서는 마귀가 나타나기도 한다. 주인공에 대한 가해자로서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 초자연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절의성혼류의 백조처녀형 설화인만큼 여러 민족의 설화에서 대다수가 목록과 절의 화소가 출현되고 있다.

② 절의성혼류 설화에 나타난 화소의 의미

백조처녀형 설화는 혼인을 주제로 다룬 설화인만큼 그 내용과 화소의 구성도 혼인을 둘러 싸고 이루어 진다. 이상의 설화에서 나타나는 화소들과 설화의 혼인주제와의 관계 및 그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ㄱ. 조화롭지 못한 혼인생활의 두 주인공 — 범남과 선녀

백조처녀형 설화 속에서 나타나는 두 주인공은 서로 부동한 속성에 속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남주인공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인간으로서 범남(凡男)이다. 그러나 여주인공은 천계에서 생활하는 선녀로서 그 신분이 남주인공과 전혀 다른 이계에 속하는 인물이다. 남주인공의 신분은 나무꾼, 어부, 사냥꾼, 농부, 장사꾼 등 다양한 신분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신분은 인간의 계급사회에서 보면 모두 비천한 신분적 존재로 된다. 이런 비천한 신분은 선녀와 같은 신적 존재인 선녀와 결합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지어 만날 기회마저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극히 적은 수의 설화에서 남주인공이 왕이나 족장과 같은 고귀한 신분으로 나타나지만 그 역시 범인으로서의 존재로 신적 존재와 교섭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는 천한 신분의 범남이 아름다운 선녀와 혼인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른 유형의 설화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그럼 왜서 이와 같은 범남과 선녀의 결합이 설화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서 정토유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였다. “仙妻(선

녀아내)에 대한 갈망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현처에 대한 소망으로서, 중국 농민들에게 수천년 동안 형성되어온 심리적인 희망이 주적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정서이다.”¹⁹⁴⁾ 그리고 그 원인을 농민의 미에 대한 추구와 현처에 대한 갈망, 성에 대한 욕구와 발산, 농민의 이상과 가정 생활의 표현, 중국 고대의 “천인합일이념(天人合一理念)”의 반영 등 다섯 가지 방면으로 귀납하였다.¹⁹⁵⁾ 이는 비록 정토유가 중국 우렁각시 설화에서 나타나는 민중의 仙妻情結에 대한 분석으로 되나 이 역시 백조처녀형 설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분 상으로 비천하여 혼인 추구에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세에 처하는 서민들의 행복한 가정생활과 아름다운 현처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종의 자아위안과 자아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민중의 보편적인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남권사회에서의 남자가 혼인 추구에서 나타내는 주동성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여주인공의 형상은 모두가 선녀로서 되어 있다. 한국의 설화가 선녀의 형상으로 직접 나타나거나 일본의 설화가 천녀의 형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만주-통구스족들의 설화에서 백조가 변한 여인으로 나타나거나를 물론하고 모두 주인공인 범남과 대립되는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신성성을 확보하고 있다. 설화 속에서 나타나는 선녀의 형상은 민중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허구한 인물이란 것을 떠나 보다 깊은 상징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선녀의 신분은 비천한 주인공의 신분보다 훨씬 귀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일본 설화 자료12에서 사냥꾼에게 시집 온 천녀는 촌민들에게 술을 빚는 기술과 누에를 기르는 방법,

194) 鄭土有, 「中國螺女故事與仙妻情結研究」, 최인학 編著, 『한·중·일 설화 비교 연구』, 민속원, 1999, 296쪽.

195) 鄭土有, 「中國螺女故事與仙妻情結研究」, 최인학 編著, 『한·중·일 설화 비교 연구』, 민속원, 1999, 297-300쪽 참조.

그리고 천을 짜는 방법을 가르치는가 하면 또한 벼농사를 짓는 기술도 가르쳐 준다. 이와 같은 기술로 인하여 촌민들은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서 보면 선녀는 남주인공과 다른 부족 혹은 다른 계층의 신분으로서 보다 높은 문화와 선진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물이 다른 단체에 소속되었을 때 필연코 그 단체에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가져다 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와 풍속 등도 전파할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으로 보면 선녀는 신적인 외적 형상 속에 다른 소속 단체의 성원으로 그 단체의 높은 신분적 위치와 보다 발달된 사회계층의 소속 성원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주인공의 절의 행위에 의한 강박혼인과도 통하게 된다. 일본과 만주-통구스족의 설화에서 선녀가 백조로 변하고 지상에 내려오며 다시 백조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가는 묘사에서 새토텐 숭배 사상이 표현되고 있다.

ㄴ. 혼인 위한 주인공들의 적극적 행동—선녀 천강과 범남 승천

설화에서 혼인을 이루기 위하여 남녀 주인공은 각기 적극적인 행동을 진행한다. 천상에서 생활하던 선녀가 지상으로 천강하는 데는 무단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 설화에서는 단순히 지상의 강이나 늪으로 내려 목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하지만 그 목욕 속에 내포하고 있는 원초적 동기를 보면 선녀 천강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선녀는 천상의 변함없는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지상으로 새로운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천강한다. 이 행위는 선녀의 엽기적인 사상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동경과 탐색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천상이라는 소속 단체를 벗어나 지상에서 배필을 찾을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필경 선녀들에게도 생리적 욕망인 성적 갈망이 체현되고 있다. 선녀들이 혼인의 대상을 천상계인 소속 단체 내에서 찾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오며 지상에서

다른 소속단체의 성원과 만나 혼인을 이루게 되는 혼인과정을 보면 어쩌면 원시사회에서의 족내혼인의 유습에서 족외혼인으로 전변되는 혼인제도의 변천 과정을 암시하는지도 모른다. 선녀의 천장에서 아래와 같은 면에 대하여 좀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선녀의 날개옷이다. 설화 속에서 선녀의 ‘날개옷’과 이를 비롯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선녀의 ‘날개옷’이 갖는 의미:

종경문은 선녀가 날개옷을 벗는데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 “저는 새나 짐승이 깃털과 외피를 벗고 사람으로 변하는 원시 사상은 곤충류가 탈피하는 사실로부터 연역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선녀가 새나 짐승으로 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상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점차적으로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또는 일종의 다른 사상(당연히 모종 사물을 근거로 된 것도 있다.)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¹⁹⁶⁾ 만 건중(萬建中)은 선녀의 날개옷은 한 생명의 형식에서 다른 생명의 형식으로의 전환이며 선녀의 몸을 가리는 것이고 또 하늘로 올라 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며, 동시에 애정의 싹을 억누르는 금고주(손오공 머리에 씌운 금테)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녀의 ‘외의’는 또 금수(禽獸)를 인간으로 변화하게 하거나, 인간을 금수(禽獸)로 바꾸게 하는 유일한 매개체라 하며, ‘외의’를 벗으면 인류는 인성으로 충만되고 다시 ‘외의’를 둘러쓰게 되면, 신선의 기질을 가진 금수(禽獸)로 변한다고 하였다.¹⁹⁷⁾ 선녀의 ‘날개옷’은 선녀의 원형(신분, 종교, 계급, 사상 등의 원초적인 것들)을 감추고 싸아주는 물체로 인식할 수 있다. 옷은 외부로는 신분, 형상 등을 체현하는 물체로 된다.

196) 鐘敬文, 『鐘敬文學術論著自選集』,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4, 354쪽 참조.

197) 萬建中, 「한·중 민간설화 중의 금기 모티프에 대한 문화적 해석」, 李愼成·顧希佳 編, 『민간설화 비교 연구』, 보고사, 2006, 330-332쪽 참조.

‘날개옷’을 돌려 주지 말라는 금기의 의미:

선녀의 옷을 장악함은 선녀의 원형을 밝혀내는 것으로써 선녀가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꿈쩍하지 못하고 계속 남자와 생활하게 된다. 선녀가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여인의 약점을 장악하는 것으로 된다. 만약 선녀가 대표하는 여인이 그 사회의 권위계층으로 되면 이 금기는 남권사회에서의 여성 권위사회로의 복구를 막기 위한 행위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남권사회의 수호자들의 공동의 소원으로도 될 수 있다.

주인공이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준 의미:

주인공이 애를 낳고 천한 처지에서 자기와 서로 의탁하여 가정을 이루고 따라주던 아내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나타낸다. 즉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날개옷’ — 여인의 원 정체를 인정하여 준다. 그러나 원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살아나는 선녀는 원초로의 복귀를 실행하고 남편에 대한 기편을 실행한다. 이런 행위는 주인공이 당초에 선녀에 대한 사기와 유괴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도 된다. 이는 설화에 있어서 혼인을 위한 기편 행위에 있어서의 내용과 구조적으로 대조되는 기법으로 된다.

선녀가 ‘날개옷’을 찾아 입고 주인공을 떠나는 행위의 의미:

선녀가 옷을 되찾아 입고 남편을 떠나는 행위는 그 근원으로서 비천한 현실에 대한 불만족감과 원 사회의 특권 향유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인 허탈감으로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실 속에서 많은 부부의 ‘이혼’의 현실적 원인으로도 된다. 날개옷은 선녀의 인간 형상을 갖기 전의 동물적 속성의 일면을 상징하고 있다. 즉 백조와 같은 동물의 속성을 갖춘 날개옷을 벗으면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탈바꿈이 형성되고 다시 날개옷을 입으면 원래의 동물성으로 돌아간다. 선녀가 날개옷을 되찾아 입고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비인간성의 표현도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물로 변한 선녀는 아이고 가사고 가정에 대한 책임과 같은 것을 모두 잊게 된다.

‘날개옷’을 놓고 진행되는 주인공과 선녀의 기편 행위의 의미:

‘날개옷’은 선녀에게 있어서는 신분의 상징이고 정조의 상징으로도 된다. ‘정조’는 부권사회에서 한 여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주인공에게 ‘옷’을 빼앗긴 것은 당당한 신분이 없이 자기가 살던 원 사회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정조’의 청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선녀 자매들이 선녀가 지상의 주인공에게 납치되었을 때 구원을 하지 못하고 모두 도망가는 것은 일종의 배타 심리로부터 나오는 행위로 되고 선녀의 납치를 목격한 선녀 형제들은 그 사회에서 선녀가 인간에게 ‘당한 모욕’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도 된다. 선녀 형제의 ‘배신’과 자신의 ‘청백’을 증명할 수 없음은 선녀가 소속 단체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도 된다. 설화 속에서 서로간의 기편이란 대목이 많이 나타난다. 즉 설화 속에서 사람과 사람지간의 불신임 관계, 이속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비록 신이담으로 되어있지만 실상 인간의 본성을 발로하는 데서는 제일 가까운 이야기로도 된다. 이는 또한 이 유형의 설화가 세계에서 널리 전파되고 전승될 수 있는 이유의 하나로도 된다.

둘째로는 공간 통일의 ‘천강’이다. 선녀의 천강은 천계에서 지상으로 하강하여야 만이 지상의 범남과 만날 수 있는 계기로 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 선녀의 천강은 범남과의 원만한 혼인 성사를 하기 위한, 공간의 통합을 위한 목적성이 있다. 이는 신성혼의 성사와 유지의 보증으로도 된다. 또한 선녀가 신적 존재인 천상계를 벗어나 인간계로 천강을 하여야 만이 자신이 갖고 있던 신성성이 가시어 지고 인간에서 부녀로서 한 아내의 신분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인간의 옷을 입게 되고 인간의 집에서 살고

인간의 음식을 먹으며 인간적인 생육과 어머니로서의 신분 바꿈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선녀는 인간과의 혼인을 위하여 신분적으로 비천한 남편을 섬겨야 하고 가난과 웅색함에도 인종하여야 하는 인종사상도 안받침된다. 이는 역시 남권사회에서의 남성중심의 사상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선녀의 ‘아이 버리고 떠남(棄子而去)’의 행위 표현이다. 한국의 설화를 내놓고 일본 혹은 만주-통구스족의 설화에는 선녀가 아이를 버리고 하늘로 떠나는 화소가 나타난다. 이는 여신의 신분 하강으로 지상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선녀가 자신의 신적 신분의 상징이며 본체인 원형으로 되돌아가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선녀와 주인공의 대조되는 신분적 차이, 문화적 차이에 의하여 유지되기 힘든 혼인 상태를 체현하고 있으며 인간 사회와 남권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정립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원시사회의 ‘주혼습속(走婚習俗)’의 체현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

범남의 승천은 어렵게 이루어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는 주인공이 선녀와의 혼인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백조처녀형 설화를 모계씨족 시기의 새토템 사상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혼인 표현의 설화로 본다면 주인공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로 올라가며, 천상에서 처가로부터 당하는 위험한 고험들을 완성하고 처가 일원들을 정복하는 대목은 남권사회가 여권사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변천의 체현이라 할 수 있고 남성 주체의 부족이 선녀가 소속되어 있는 다른 한 부족에 대한 정복의 과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범남으로서의 주인공이 기어이 막강한 힘과 권위적 존재인 천상의 처가를 이기고, 선녀와 이루어진 강제혼인(혹은 약탈혼이라고 볼 수 있다.)의 결실로 되는 신성혼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ㄷ. 혼인의 성사와 파괴를 좌우하는 주변 세력— 조력자와 가해자

설화에서의 조력자는 선녀와 주인공 범남의 혼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다. 한국의 백조처녀형 설화와 만주-통구스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조력자로서 사슴이 많이 나타난다. 배원룡은 “선녀와 나무꾼의 신성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무꾼이 신성 징표를 획득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나무꾼은 이러한 신성 징표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 따라서 나무꾼과 선녀 사이에 중매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능을 사슴, 노루 등의 보조자가 수행하는 것이다.”¹⁹⁸⁾ “사슴은 깊은 산 속에 사는 동물로, 온순 소박한 성격을 지녔으며, 크고 예쁜 뿔을 가지고 있다. 신비한 느낌을 주는 이 뿔은 예로부터 영약으로 사용되었고, 이 뿔로 인해 사슴은 십장생의 하나로 일컬어져 왔고 신라의 왕관에도 사슴 뿔 장식이 나타난다. 이것은 십장생의 하나인 사슴처럼 왕위가 오래 지속되길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이처럼 예로부터 사슴은 신령한 동물로 여겨져 왔다.”¹⁹⁹⁾ 정토유는 나무꾼을 도와 하늘로 올라가는 묘책을 알려주는 사슴을 놓고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동물은 작품에서 ‘지자(智者)’의 역할을 한다.”²⁰⁰⁾고 하였다. 이상 여러 민족 속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나는 조력자들을 보면 사슴 외에도 쥐, 개, 흑룡, 여우 등등의 많은 동물들이 나타난다. 그 어떤 동물이든 조력자들은 범남의 신성성의 획득을 위한 보조자로 역할을 하며 부동한 공간과 부동한 속성의 인물인 선녀와의 결합을 위한 절충의 대상자이다. 범남인 주인공은 직접적으로 신성성을 획득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신비로운 동물의 도움을 통하여 신성성을 획득하고 선녀와의 대등의 신분적 위치에 오르며 공간적인 공

198)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124쪽.

199) 배원룡, 위의 책, 125쪽.

200) 鄭土有, 「中國鰲女故事與仙妻情結研究」, 최인학 編著, 『한·중·일 설화 비교 연구』, 민속원, 1999, 241-242쪽 참조.

통성을 이루게 된다. 때문에 주인공의 측면에서 볼 때 조력자는 주인공 욕망의 일방적인 체현자이고 남권 의식 체현의 대용물로 된다. 조력자는 주인공이 혼인에 있어서 신분적으로 열세에 처하여 있는 상황을 숨기기 위하여 내세운 인물이다. 즉 주인공이 선녀와 같은 초자연적 힘을 얻고 신성성을 얻는 것으로서 신분상의 동등성을 갈망하는 대변인이기도 하다.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나는 가해자는 선녀 일가의 절대적 권위자의 형상이고 선녀 혼인의 지배권을 소유한 가부장이다. 이는 또 선녀 소속 집단의 최고 세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인물은 자기 소속 집단의 이익과 체면, 소유권의 향유를 위하여 선녀의 혼인을 백방으로 저지한다. 가해자의 이런 행위는 신분적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계급지간의 의도적인 배타 행위라 이해할 수 있다.

ㄹ. 혼인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고함— 금기와 난제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금기 항과 난제 항들은 모두 주인공의 신성혼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가의 능력에 대한 고함 항목으로 된다.

(ㄱ) 금기 — 공동생활과 공동공간의 유지를 위하여 따라야 하는 행위의 준칙과 주의 사항.

혼인의 유지를 위한 주인공에게 주어진 금기 항에 대하여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볼 수 있다.

a, 인간 속성의 유지를 위한 금기— ‘선녀에게 날개옷을 주지 말라’, ‘아이를 셋 혹은 넷 낳기 전에 옷을 주지 말라’ 등의 금기들은 선녀가 천강한 후 지상의 물로 몸을 씻고 범남과 지상에서 생활하며 인간의 모든 행위에 참여하는 인간 속성의 유지를 하기 위한데서 설치되는 금기이다. 선녀가 인간적인 속성을 계속 지녀야 만이 주인공과의 지상 혼인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선녀의 신성성의 회복을 방지하고 자기

의 원 소속 단체로 회귀하여 혼인 결단을 가져오게 되는데 대한 사전의 대비 대책이다.

b, 인간계와의 절교를 위한 금기— 한국 설화에 나타나는 ‘인간의 음식을 먹지 말라’, ‘말에서 내리지 말라’ 등과 금기 항들은 모두 천상에 오른 주인공이 천상에서 선녀와의 천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인공에게 주어진 금기이다. 이런 금기에는 모두 천상의 존재로 된 주인공이 다시 인간계의 범성(凡性)을 접하고 신성성을 잃을 데 대한 금기로 되고 또한 이미 천계의 소속으로 된 주인공이 다시 원 소속 단체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에서 설치되는 금기이다. 이와 같은 금기는 주인공이 원 소속 단체와의 절교를 강요하는 것이다.

c, 주인공 천상 신성성의 유지를 위한 금기— 한국의 설화인 경우 ‘육미를 먹지 말라’, ‘개고기를 먹지 말라’, ‘닭국을 먹지 말라’ 등의 금기들이 출현된다. 이와 같은 금기는 선명한 종교 색채를 띠고 있다. 육미를 먹지 말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살생을 하여서는 않된다는 뜻이다. 이는 불교의 불살생 사상과 도가의 신선 수련 사상과 같은 내용으로서 설화 속에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사상의 노출은 바로 천상에서 신성성을 확보하고 있는 주인공이 선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행위 준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역시 주인공의 천상 혼인 유지의 보장으로 되며 또한 주인공 신성성 유지의 기본으로도 된다. 또한 일본의 설화 자료¹²에서는 주인공이 하늘에 올라 선녀와 상봉하기 위하여 다리를 놓을 때 아내를 생각해서는 않된다는 금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금기는 실상 주인공에게 부과된 불교 사상에서의 금욕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d, 원만(圓滿)사상을 위한 금기— 일본의 설화에 흔히 주인공이 하늘로 오르기 위하여 넝쿨 달린 식물을 심을 때 쥐야 할 거름, 혹은 하늘로 오를 짚신을 만들 때 선녀로부터 천(千)이란 웅근 수를 채워야하는 주의를 받는

다. 그러나 주인공은 요구하는 용근 수를 채우지 못하고 하늘로 오르다가 이런 저런 고비를 겪게 된다. 이와 같은 금기의 설치에서 일본 민족의 원만성에 대한 승상을 찾아볼 수 있다.

(ㄴ) 난제— 주인공의 성인으로서의 생존 능력에 대한 고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주인공에게 주어진 난제는 천상 혼인의 유지를 위한” 처가 에서 당하는 난제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지상에서 어떤 권력자나 마귀로부터 당하는 난제들도 더러 나타난다. 주인공에게 부과되는 난제들을 보면 아래와 같은 두개이 방면으로 귀납할 수 있다.

a, 사회 생존능력에 대한 고험으로서의 난제— 주인공의 생산능력 고험

일본 설화의 경우 주인공에게 부과된 난제는 ‘별목하고 밭을 갈기’, ‘곡식 심기’, ‘박 심기’, ‘좁쌀 줍기’ 등의 난제들이 부과되곤 한다. 이와 같은 난제 내용을 보면 모두 농경방식과 관계가 된다. 즉 일본이 한전(旱田)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난제들이 체현되어 있다. 이런 ‘밭’ 문화는 중국 남방의 요족 속에서 전승되는 난제형 백조처녀형 설화에서의 내용과 고도로 되는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요족의 난제 내용은 ‘刀耕火種’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일찍 일본의 君島久子是 요족(瑤族)의 ‘刀耕火種’ 생산 및 그 문화와 일본은 매우 깊은 연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백조처녀 고사 중에 나타나는 난제는 일본 서부의 섬들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난제의 내용은 의연히 하루 내에 산에 자란 나무를 모두 찍고 하루 사이에 자른 나무를 모두 불 태우고 하루 사이에 좁쌀을 모두 심기 등등은 좁쌀을 중심으로 한 불로 황무지를 개척하고 경작하는 작업들이다.”²⁰¹⁾ 이와 같은 난제 고험은 주인공의 한 가정의 중심으로 가족을 이끌고 생존할 수 있는 사회 생존 능력에 대한 고험이다.

201) 君島久子, 「非稻作民의民俗與傳承」, 『民間文學論壇』, 제3기, 1997, 38쪽 참조

b, 성인으로서의 성장 여부에 대한 고협으로 되는 난제— 주인공의 담락에 대한 고협

한국의 설화와 오르첸족, 시버족의 설화에는 난제의 내용이 일본과 달리 주인공의 담락에 대한 고협 내용이 많다. 숨바꼭질, 찾기 힘들고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기라든가 말타기 시험이라든가 혹은 칼싸움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숨바꼭질은 주인공의 지혜에 대한 고협으로 되고 찾기 힘들고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주인공의 담락에 대한 고협이다. 그리고 말타기 시험은 기마승상에서 이어지는 기능에 대한 고협으로 된다. 처가 사람과의 칼싸움은 생사를 내걸고 진행하는 위험한 고협으로써 주인공의 무예와 담력에 대한 고협으로 된다. 주인공이 처가로 당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고협은 처가 일원들의 혼인에 대한 견결한 반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외에 또한 한 남자로서, 한 성인으로서 주인공에게 주어진 성인식의 통과례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주인공은 오직 이와 같은 일련의 고협을 겪어내어야만 성인으로서의 능력 갖추음을 보여 줄 수 있고 또한 처가로부터의 혼인의 인증을 얻게 된다.

ㄹ. 자아 욕망 실현을 위한 인간적 본능의 노출— 목욕과 절의
절의성혼류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목욕’과 ‘절의’는 아주 중요한 화소다. 한 설화의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이 화소들이 갖는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 ‘목욕’과 ‘절의’가 갖는 의미에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ㄱ) 여성 본능의 욕망 체현으로서의 ‘목욕’의 의미:

선녀의 ‘목욕’을 담론하기 전에 우선 ‘물’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물과 꿈』에서 물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어떤 특별한 물질에 전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상상력은 쉽사리 대상에 가치를 부여한다. 물은 인간의 사

고 가운데서 가장 큰 가치 부여 작용(valorisation)의 하나, 즉 순수성에 의한 가치 부여 작용의 대상이다.”²⁰²⁾ 그리고 그는 또 물은 여성의 나체를 환기시키며 백조는 문학에 있어서 별거벗은 여성의 대용물이고 백조에 감탄하는 자는 먹감는 여인을 욕구하고 있다²⁰³⁾라고 하였다. 이로서 보면 백조 처녀형 설화에 나타나는 선녀가 백조로 변하여 지상의 물에서 목욕을 하는 묘사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 상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선녀의 목욕은 실상 성적 욕망의 노출이며 또한 성적 욕구의 발기로도 된다. 때문에 지상의 주인공이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하고 ‘절의’라는 부도덕적 행위도 서슴없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남녀 쌍방의 성적 욕구를 기저로 하여 이루게 되는 행위이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또한 물의 순수성과 정화에 대하여 “물은 순수성을 위한 자연스런 상징으로서 나타나 정화의 장황한 심리학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²⁰⁴⁾라고 설명을 하였다. 물은 성적 체현, 순수성, 정화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외에 또 다른 많은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물은 그 유동성과 생명 본원이란 수요에 의하여 젊음과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며 부드러운 여성성과 모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물에서 목욕을 하는 선녀의 행위 또한 자체로서의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다. 배원룡은 엘리아데의 “물은 모든 행태에 ‘선행’ 하며, 모든 창조를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형태 이전으로 되돌아감을 통해 ‘완전한 재생’, ‘새로운 탄생’으로 역행하는 것을 상징한다.”란 이론을 인용하여 선녀가 지상의 연못에 하강하여 목욕한다는 의미는 여성으로서의 생생력을 유지하고 선녀로서의 영원한 젊음을 누리기 위한 재생·정화·갱신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⁰⁵⁾ 李道和는 고대에 있어서 여인의 목욕은 ‘無子之疾’를 제거하

202) 가스통 바슐라르 저,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3, 24쪽.

203) 가스통 바슐라르 저, 위의 책, 55-56쪽 참조.

204) 가스통 바슐라르 저, 위의 책, 192쪽.

며 고매(高祿)란 민속 행사 중에서 행하여지는 남녀의 야합으로도 되고 불제(祓除)의 한 수단으로도 되며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였다.²⁰⁵⁾ 이상의 설명을 다시 종합하여 보면 물과 물을 통한 선녀의 목욕 행위는 선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이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미혼의 선녀가 소녀로부터 한 여인으로서의 성숙 과정인 성인으로의 통과의례라고도 할 수 있다. 물을 통하여 자신을 정화하고 여인으로의 생산능력을 갖고 여성으로서의 부드러움과 모성, 적응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목욕을 통한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성을 인식하고 성적 욕망을 환기시킨다. 목욕은 인류가 자연과의 제일 가까운 접촉으로 되며 원시적이고 노출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원시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남녀 주인공이 사회 등급의 속박을 벗어나 자연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된다. 선녀의 목욕은 다른 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이성인 남주인공과의 결합을 위한 준비로도 된다. 선녀는 원초적 속성을 상징하는 ‘날개옷’을 벗어던지고 인간의 옷을 입고 주인공과 지상에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되는 것은 모두 목욕을 통한 새로운 재생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ㄴ) 남성 본능의 욕망 체현으로 ‘절의’가 갖는 의미: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절의’는 주인공이 취하는 행위로서 선녀의 ‘목욕’ 행위와 전후 조응이 되는 부분이다. 주인공이 선녀가 목욕하는 은밀한 곳을 알게 되고,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은 자신의 결핍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취하는 행동 과정이다. 선녀가 목욕하는 전 과정을 목격하는 주인공은 아름다운 나체의 선녀들을 보았을 때 자연적으로 성적 충동을 갖게 된다. 이는 단순한 생리적인 호르몬의 작용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종의 번식인 잠재의식의 발로로도 볼 수 있다. 이와

205)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122쪽 참조.

206) 李道和, 『歲時民俗與古小說研究』, 天津古籍出版社, 2004, 107쪽 참조.

같은 원인에 의하여 주인공은 선녀의 나체를 훑쳐 보고 제일 예쁘고 젊은 선녀의 옷을 절도하게 된다. 주인공은 설화 속에서 그렇듯 순진한 인물로 각색되었지만 선녀를 보는 순간 ‘절의’와 같은 부도덕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선녀에게 결합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이는 설화의 천상 혼인시련으로 되는 난제 고함과 더불어 주인공의 소년으로부터 성인으로의 성숙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음폐된 장소, 선녀의 나체, ‘절의’를 통한 선녀와의 결합 방법을 알게 된 주인공은 혼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남성으로서의 모든 지식을 터득하고 있다. 프로프는 성인식으로서의 세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는 씨족사회제도의 법규의 하나로 된다. 이 의식은 성적 성숙기에 진행된다. 청년들은 이 의식을 통하여 씨족사회에 진입하여 완전한 권리를 향유하는 성원으로 된다.”²⁰⁷⁾ 그리고 의식이 진행되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의식을 거행할 때는 언제나 수림 혹은 관목이 우거진 깊은 곳에서 진행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피한다.”²⁰⁸⁾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이 끝난 후는 “새로 탄생한 자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고 피부에 기호를 남기거나 기타의 의식을 통과하였다는 기호를 남긴다.”²⁰⁹⁾고 한다. 프로프가 말한 성인으로의 세례 의식에 비추어 보면 백조처녀형 설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행위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주인공은 음폐된 깊은 산속의 늪으로 들어가고 선녀를 기다리기 위하여 조용히 숨어 참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녀와 부부 관계를 맺은 후에는 남편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신분과 이름을 갖게 된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남성 권위의 위치에서 출발하여 주인공의 노골적인 욕망 노출과 부도덕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가식이 진행되고 있다. 즉 설화에서는 흔히 주인공에게 옷을 절도 당한 선녀가 “돌아갈 수 없어 요구를

207) 弗·雅·普羅普, 賈放 譯, 『神奇故事的歷史根源』, 中華書局, 2006, 54쪽.

208) 弗·雅·普羅普, 위의 책, 같은 쪽.

209) 弗·雅·普羅普, 위의 책, 같은 쪽.

받아들였다”, “나체를 보였으니 결혼을 하여야만 수치를 모면할 수 있다.”, “관례에 따라 첫번째로 만난 총각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식의 서술이 동반된다. 이는 남성 중심 사회의 구연자로부터 소속 단체의 공동 범죄의식에 대한 집단적 변명이라고 볼 수 있다.

(2) 절의성혼류 설화에 나타난 구조의 차이와 의미

① 절의성혼류 설화의 구조 차이

절의성혼류 설화에서 보면 부동한 민족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설화에는 기타 민족과 비하여 제일 선명한 구조 특성이 나무꾼의 지상회귀 대목이다. 나무꾼이 지상의 어머니를 염려하여 지상에 내려다가 금기의 파괴로 천상으로 다시 올라 가지 못하게 된다. 정토유도 한국과 중국의 백조처녀형 설화 비교를 하면서 한국 설화에서의 ‘나무꾼의 지상회귀’와 지상으로 내려가는 나무꾼에게 설치한 금기는 오직 한국 설화에만 존재한다고 하였다.²¹⁰⁾ 한국 설화의 공간 구조에서는 거의 모두가 D형인 2차적 지상공간의 통일이 탈락되어 있다. 배원룡의 자료에 따르면 ‘나무꾼과 선녀 동반 하강형’이 5편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천편일률로 나무꾼 혼자서 지상으로 하강한다고 하였다.²¹¹⁾

일본의 설화는 수집된 자료로 놓고 볼 때 대립항에서의 ‘구제와 정보 획득’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계약관계에서의 계약1이 모두 출현되지 않는다. 공간적 구조에서도 ‘2차적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210) 鄭土有, 「中國螺女故事與仙妻情結研究」, 최인학 編著, 『한·중·일 설화 비교 연구』, 민속원, 1999, 236-244쪽 참조.

211)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44쪽, 112쪽 참조.

만주족의 설화는 선녀만 나타나는 설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녀 혼자서 공간이동을 진행하고 선녀와 대립으로서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기에 기타 민족의 설화와 비교할 때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후대’의 나라를 건립한 성취에 지나치게 지향하고 있다.

오르첸족과 시버족, 에벤키족의 설화는 구조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높은 문학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세 민족은 사회발전의 차원에서 가늠할 때, 그리고 민족의 신앙 등 면에서 볼 때 완비한 설화 구조를 갖추고, 높은 문학적 수식을 거친 설화가 예로부터 유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필자의 견해로는 다른 민족 속에 전하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이 민족들의 백조처녀형 설화를 보면 많은 면에서 중원지역의 도가나 불교의 영향요소가 나타난다. 특히 설화 속 인물들의 이름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알 수 있다. ‘옥황상제’, ‘왕모’, ‘뇌신’ 등과 같은 신의 이름은 샤머니즘 신앙을 하던 이 민족들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박래품으로 된다. 에벤키족의 자료²⁷이 이와 같은 예로 될 수 있다.

② 절의성혼류 설화의 구조 차이 의미

백조처녀형 설화의 구조 의미에 있어서는 설화의 여러 유형을 생성하게 하는 구조적 특수성과 신성혼인을 이루는 전제로서의 공간적 통일성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ㄱ. 설화의 부단한 생성을 위한 구조적 특수성과 그 의미

백조처녀형 설화는 그 구조적으로 볼 때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이 유형의 설화는 독자적으로 설화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타의 설화와도 복합되어 변이형을 이룰 수도 있다.

스티스 톰슨은 “백조가 된 소녀 이야기는 유명한 세 설화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세 설화는 백조 소녀의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설화를 정확히 분류할만한 만족스런 체계를 세우기는 어렵다.”²¹²⁾고 백조처녀형 설화의 분류에 있어서의 힘든 점을 설명하였다. 그는 또 이 설화의 복잡성에 대하여 “이 설화는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 많은 변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몇몇 모티프들은 다른 설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백조 소녀>(모티프D361.1), <변신 탈출>(모티프 D671), <장애물 탈출>(모티프 D672), <사위의 과제>(모티프 H310)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²¹³⁾고 하였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기타 유형의 설화와 비하여 고정적인 구조형식의 안정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설화의 자체적인 특성에 의하여 기타 설화와 구분되고, 또한 자기의 설화군을 이루고 있다. “이 설화가 초반부의 다양한 변이와 중심 사건의 세부적 변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된 설화로 볼 수 있을만한 명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또한 아내에 대한 탐색의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건들이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들이어서, 萬華鏡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화 타입을 구별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²¹⁴⁾ 백조처녀형 설화는 구조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그 개방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보다 높은 문학적 수식의 가능성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는 지역전설로 나타나기도 하

212) 스티스 톰슨, 윤승준·최광식 역, 『說話學原論』, 계명문화사, 1992, 107쪽.

213) 스티스 톰슨, 윤승준·최광식 역, 『說話學原論』, 계명문화사, 1992, 위의 책, 110쪽.

214) 스티스 톰슨, 위의 책, 112-113쪽

며, 정교한 문학적 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²¹⁵⁾란 말에서 스트스 톰슨도 백조처녀형 설화의 높은 문학적 가치성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조처녀형 설화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는 단순적인 구조의 구성으로서 자체적으로 설화를 이룰 수 있고, 또한 기타 설화의 삽입부로도 될 수 있다. 에벤키족의 자료²⁷⁾의 설화가 바로 이와 같은 예로 된다. 자료²⁷⁾에서 백조처녀형 설화는 ‘우랑 직녀’ 형 설화의 한 부분으로 삽입되어 있으며 백조처녀형 설화의 한 변이형을 이루고 있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전반부에 선녀가 낳은 아이로서의 ‘후대’가 나타나는데 이는 후반부에 ‘후대’의 성장과 결과에 대한 변이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설화를 복합형으로 구성시킨다. 그리고 ‘선녀의 승천’으로 설화가 끝나는 만큼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다니는 사람’과 같은 타입의 첨가도 가능케 한다. 설화 후반부의 ‘아내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도 ‘조력자와 가해자’, ‘난제와 난제해결’, ‘금기와 금기파괴’ 등의 대립항들이 삽입될 수 있다. 이는 복합구조로서의 설화의 또 다른 변이형들을 생성케 하는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다.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변이형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설화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후대’에 이어서 ‘신성한 아이’와 같은 내용이 삽입될 수 있고, 변이의 유형으로 ‘개국시조형’, ‘시조기원형’, ‘영웅탄생형’, ‘지명과 풍속의 유래’, ‘칠성형’ 등의 유형이 변이되어 발전할 수 있다. ‘선녀의 이별’을 이어서는 ‘잃어버린 아내 찾기’가 삽입될 수 있고, ‘범남성신’ 형과 같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설화의 후반부에서 보면 ‘가해자’의 삽입으로 ‘난제형’, ‘마귀퇴치형’과 같은 변이형을 형성시킬 수 있다. 설화의 결말에서 ‘난제’의 해결과 미해결에 의하

215) 스트스 톰슨, 위의 책, 113쪽.

여 희극과 비극의 부동한 결말을 이루면서 ‘칠석형’과 같은 변이형도 이루어지게 된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개방된 구조와 내용에 의하여 설화의 온정성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기타 설화의 에피소드들이 삽입될 기회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또한 구연자와 청중의 선호에 따라 재창작의 잠재적 조건을 마련하여 주기도 한다. 즉 백조처녀형 설화는 새로운 설화 유형의 생성을 위한 특수한 구조 특성을 이루고 있다.

ㄴ. 신성혼의 이룸을 위한 공간적 통일의 의미

백조처녀형 설화는 주인공과 선녀의 공간적 이동으로 천상과 지상의 공간이 통일되거나 혹은 공간의 대립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공간의 대립과 통일 과정은 모두 두 인물의 혼인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다.

설화 속에서의 두 인물은 인간과 선녀라는 신분으로서 ‘범(凡)’ ‘선(仙)’의 대립을 이룬다. 이는 필연코 대립되는 두 공간의 설치를 요구하게 된다. 인간과 신이라는 부동한 속성을 가진 두 인물이 서로 만나고 혼인을 이루자면 반드시 대립되는 두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간이 이루어지자면 주인공들에게 각기 부동한 속성을 부여시키면서 대립되는 공간에서 오갈 수 있어야만 실현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선녀는 신의 속성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속성을 어느 정도로 갖추어야 한다. 때문에 설화에서는 선녀가 지상으로 천강하여 지상의 못에서 목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대목은 선녀의 인간성의 획득을 위한 공간 이동으로 볼 수 있다. 원시 선민들의 사유로서는 선녀가 인간의 물체와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다. 남주인공은 신계에서 사는 여인과의 결합을 위하여서는 일정한 신성(神性)을 갖추어야 한다. 남주인공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속성을 구비하였을 때에야 만이 비로소

선녀와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고 두 공간의 대립이 한 개로서의 통일된 공간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주인공의 신성성의 갇춤은 왕왕 신비로운 조력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백조처녀형 설화에서의 공간 통일은 선녀의 천강에 의한 1차적인 지상 공간의 통일과 범남의 승천으로 인한 천상의 공간 통일, 그리고 범남과 선녀의 지상 회귀에 의한 2차적인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백조처녀형 설화에는 이상과 같은 3개의 공간 통일이 나타나는가 하며는 또한 2개의 공간 대립도 존재한다. 즉 선녀의 이별에 의한 1차적인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이 형성되고 ‘난제’의 미해결과 가해자에 의하여 2차적인 천상과 지상의 대립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이항대립의 관계로 나타나는 공간적 존재가 통일되거나 대립되는 데는 자연사물의 음양조합인 정반 대립의 모순과 통일의 관계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설화에 대한 독자의 심미적 취향도 체현된다. 공간상의 통일은 희극으로서의 설화 결말에서 얻게 되는 청자들의 행복한 결말에 대한 심리적인 충족의 체현이고 공간상의 대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동한 속성의 인물 결합에 대한 이성(理性)적인 사유의 체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설화에서의 이항대립 공간의 심층적 구조와 의미는 선인들의 신화적 사유의 기본관념과 천상계와 지상계, 지하계 등 3계의 공존 관념 및 고대 인간들의 “천인합일이념(天人合一理念)의 체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화소와 구조 비교

1)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비교

(1) 한국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한국 천사성혼류에서의 보상형으로 되는 설화 자료²¹⁶⁾에서의 화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주인공: 이설화에서의 주인공은 나무를 팔아 사는 나무꾼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선녀: 설화에 나타나는 선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형제 중의 하나로 나타난다.

선녀 천강: 이 설화에서는 선녀의 천강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그저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 왔다고 서술하고 후에 선녀가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갔다는 것으로 보아 하늘을 날 수 있는 선녀 옷에 의하여 천강한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의 승천: 주인공은 선녀가 떠난 후 흰 영감이 주는 박씨를 심고 그 박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선녀와 만난다.

조력자: 지상에서 선녀와 만날 수 있게 하고, 또한 하늘로 오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조력자로는 흰 영감으로서 신인임을 알 수 있다. 하늘에서 주인공의 난제를 도와나서는 조력자로는 선녀이다. 선녀는 백마를 내어주며 화살을 찾아오게 도와 나선다.

금기: 이 설화에서 나타나는 금기로는 천상에서 혼인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보장으로써 주인공이 탄 백마가 세 번 울기 전에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금기를 어기고 지상에서 죽게 되며 뼈꾸기로 된다.

216) 「나무꾼과 선녀」, 『임석재전집: 평안북도 I』, 평민사, 1991, 48-49쪽.

난제: 천상에서 주인공의 혼인 시련으로 되는 난제는 하늘의 왕이 내는 시험이다. 그 내용으로는 왕이 쏜 화살을 찾아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난제는 선녀의 도움으로 해결이 된다.

가해자: 천상 신계의 왕으로 나타나서 지상에서 올라온 나무꾼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어 선녀와의 혼인을 저해한다.

목욕: 기타의 천사성혼류 설화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목욕’과 ‘절의’의 화소가 출현된다.

(2) 중국 만주-통구스족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만주족의 천사성혼류 보상형으로 나타나는 자료²¹⁷⁾에서의 화소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인공: 자료34의 주인공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다.

선녀: 여주인공은 세 선녀 형제에서의 삼선녀로 되어 있다.

선녀의 천강: 삼 선녀가 백조로 변하여 날아 내려 오고 후에 여주인공이 옷을 다시 찾아 입고 백조로 변하여 날아간다.

주인공의 승천: 주인공은 선인이 준 조롱박 씨를 심고 그 넝쿨을 잡고 하늘로 오른다.

조력자: 선녀의 아버지인 瑪法가 조력자로 나타난다. 선녀의 아버지는 주인공의 착한 성미를 직접 고함하고 딸을 아내로 보내준다. 주인공에게 선녀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선녀가 떠난 후 또 하늘로 승천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조롱박씨를 준다.

217) 「三仙女」, 中國民間文藝研究會 遼寧分會 編, 『滿族三老人故事集』, 春風文藝出版社, 1984, 221-225쪽.

자료34에서 금기와 난제 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설화에서는 천사성 혼류에서 보기 드문 목욕과 절의 화소가 출현된다.

오르첸족 천사성혼류의 보상형으로 되는 설화는 자료32²¹⁸⁾과 자료33²¹⁹⁾가 있다.

주인공: 자료32과 자료33에서의 주인공은 사냥꾼으로 나타난다.

선녀: 자료32에서의 여주인공은 백학으로 변신할 수 있는 선녀의 형상이다. 자료33에서의 여주인공은 하늘의 칠선녀 중에서 제일 작은 선녀로 된다.

선녀의 천장: 자료32에서는 선녀가 개가죽으로 만든 요가 접히면 사라지고 펼쳐지면 나타난다. 하늘로 돌아갈 때도 요를 접은 후 백학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간다고 하였다. 자료33에서는 칠선녀가 채색구름을 타고 지상으로 내린다고 하였다.

주인공 승천: 자료32에서는 주인공이 하늘로 오르는 승천 화소가 없다. 자료33에는 주인공이 하늘까지 자란 사슴의 뿔을 타고 하늘로 오른다.

조력자: 자료32에서는 조력자로서 선녀의 아버지가 주인공의 착한 품성을 시험하고 선녀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이 외에 조력자가 또 토끼를 쫓는 사람, 노루의 간을 빼는 사람, 뱃사공, 거인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각기 주인공을 도와 난제를 해결하고 혼인을 성사하게 돕는다. 자료33에서의 조력자는 흰수염이 자란 노인이다. 그 노인은 주인공에게 사슴의 뿔을 타고 하늘로 오를 수 있다고 알려 준다.

난제: 자료32에서의 난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지상에서의 난제로서 양방(昂幫)²²⁰⁾이 주인공에게 부과한 것이다. 그 내용은 숨바꼭질, 화

218) 「松坦和埃米艷」, 峻林 等 编, 『鄂伦春民间故事集成』, 内蒙古文化出版社, 1997, 295-307쪽.

219) 「小伙與太陽姑娘」, 峻林 等 编, 『鄂伦春民间故事集成』, 内蒙古文化出版社, 1997, 393-396쪽.

220) 여기에서의 昂幫은 오르첸족들이 관리를 이르는 말이다.

살 찾기, 금으로 된 馬鎧를 찾기로 되어 있다. 선녀의 부모로부터 받는 이계에서의 난제는 황양을 활로 쏘기, 사슴을 따라 잡고 간을 빼기, 선녀로부터 받는 난제로는 금으로 된 귀걸이 찾기, 금가락지 찾기 등으로 된다.

가해자: 자료33에서의 난제는 선녀의 어머니로부터 부과되기에 선녀의 어머니가 가해자로 나타난다. 똑같이 생긴 칠선녀 형제 중에서 아내를 찾아내는 것이 혼인 유지의 시험으로 된다. 자료32에서 가해자로서는 지상의 양방(昴幫)이 가해자로 되어 있다.

목욕: 자료32에서 선녀의 목욕 화소가 출현되고 절의 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버족의 천사성혼류 보상형 설화는 자료35²²¹⁾으로 되어 있다. 이 설화의 주인공은 시버족의 선조인 척발 선비족의 추장(酋長)으로 되어 있다. 여주인공 선녀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주인공을 돕게 되는 선녀이다. 선녀의 천강 방식은 흰 구름 속에서 붉은 색의 천을 두른 차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조력자로는 하늘에서 보낸 네 마리의 마록(馬鹿)²²²⁾이 주인공을 도와 산속을 벗어나는 길을 인도하여 준다.

에벤키족이 천사성혼류 영웅탄생형 설화는 자료36²²³⁾이다. 설화에서의 주인공은 사냥꾼으로 나타나고 여주인공은 수련을 거친 매로 나타난다. 매신은 신선으로 되기 전에 후대를 남기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사냥꾼을 찾아와서 혼인을 한다. 그들의 후대가 후에 청나라의 대신 本迪安本²²⁴⁾이 된다. 설화는 구조적으로 간단하여 기타의 화소는 출현되지 않는다.

221) 「詰汾皇帝無婦家 力微皇帝無母家」, 關寶學 主編, 『錫伯族民間故事集』, 李安寧民族出版社, 2002, 133-134쪽.

222) 설화의 원문에 길을 인도하는 조력자를 “似馬非馬, 似牛非牛的野獸”로 묘사하였다. 이 묘사에 의하여 추측하게 되면 그 조력자가 북방에 사는 마록(馬鹿)으로 추정된다.

223) 「本迪安本(二)」, 杜梅, 『鄂溫克族民間故事』, 內蒙古人民出版社, 1989, 227-228쪽.

224) 여기서 ‘本迪’는 사람의 이름이고 ‘安本’은 에벤키족이 대신을 이르는 말이다.

(3) 일본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일본의 천사성혼류 설화의 보상형으로 되는 자료31²²⁵⁾의 화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주인공: 이 설화에서의 주인공은 가난한 머슴으로 나타난다. 남자는 부자의 집의 고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이며 혼자 살고 있다.

선녀: 설화 속에 나타나는 선녀는 하늘의 칠성 자매에서의 장녀로 나타난다.

선녀 천강: 칠성 자매의 장녀인 선녀가 그믐날 저녁에 주인공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이 설화에서는 선녀의 천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선녀의 우의에 대하여서도 이야기 한 것이 없다.

조력자: 부자가 주인공에게 부과한 난제를 선녀와 선녀의 자매들이 도와준다. 그들은 천을 짜서 주인공에게 주어 과제를 해결하게 한다.

가해자: 주인공이 고용살이를 하는 부잣집이 부자가 고용관계를 해제하기 위한 주인공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을 가져와야 고용관계를 그만둘 수 있다고 난제를 낸다.

이 설화에서 이상의 화소 외에 기타의 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6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화소 비교

민족	자료	주인공	선녀	선녀 천강	주인공 승천	조력자	금기	난제	가해자	목욕	절의
한국	자료30	나무꾼	선녀	선녀 옷	박녕쿨	선인		화살 찾기	천상의 왕	○	○
일본	자료31	머슴	칠성 선녀								

225) 『沖繩民俗』第十五號, 『静岡と世界を結ぶ羽衣・竹取の説話』, 静岡総合研究機構, 静岡新聞社, 2000, 144쪽.

만족	자료34	장사꾼	삼선녀	백조변함	조롱박 넝쿨	선녀 아버지				○	○
오르채족	자료32	사냥꾼	선녀	백학변함		선녀 아버지, 토끼 쫓는 사람, 노루 간 빼는 사람, 배사공, 거인		숨바꼭질, 화살찾기, 金馬鎧찾기, 양 쫓기, 사슴 간 빼기, 금귀걸이찾기, 금가락지 찾기	마귀 (滿蓋)		
	자료33	사냥꾼	칠선녀	채색구름	사슴뿔	흰 수염 노인		선녀 중에서 아내를 찾아내기	선녀의 어머니	○	
시버족	자료35	족장	선녀	붉은 천을 두른 자		미륵					
에벤키족	자료36	사냥꾼	鷹	날아 내림							

2)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비교

(1) 한국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한국의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30:

- A. 옛날 어느 산골이 있었다.
- B.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 E. 꿈에 선인²²⁶⁾이 나타나 선녀의 비밀을 알려준다.
- F. 아이를 넷을 낳은 후에 옷을 돌려주라고 알려 준다.
- G. 나무꾼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226) 선인은 “넌 브즈런한 총각이느껴니 당개 가게 해주갔으니 나하라는 대루 해라” 고 말한다. 이는 선인이 나무꾼의 어질고 부지런한 성품의 보상으로 선녀와 결혼을 이루게 한다.

- I. 선녀들이 지상으로 날아내려 온다.
- J. 선녀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K. 나무꾼이 목욕하는 선녀들을 발견한다.
- L.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나무꾼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는 선녀와 부부로 된다.
- N.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셋 태어난다.
- O. 나무꾼이 선녀에게 옷을 돌려준다.
- P. 선녀가 옷을 입고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간다.
- R. 선인이 다시 나타나 하늘로 오르는 방법을 알려 준다.
- T. 나무꾼이 박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 U. 나무꾼이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 V. 하늘의 왕이 혼인을 반대하여 나선다.
- W. 왕이 과제를 낸다.
- X. 선녀가 난제해결을 도와 나선다.
- Y. 나무꾼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상에서 죽는다.
- T₁. 나무꾼이 다시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빠꾸기로 된다.

① 전반부에서 절의성혼류에서의 구체 동물이 나타나서 선녀의 비밀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선인이 나타나 주인공의 부지런한 성품에 보상으로 선녀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그리고 설화의 후반부에서 주인공이 죽어 빠꾸기가 되는 복합형이 이루어지면서 보상형을 이루고 있다. 이 설화는 구조적으로 유래형과 일치하나 내용으로 보면 천인의 보상으로 되기에 천사성혼류에 귀속된다.

② 이 설화에서 구조적으로 비교적 완벽한 바 8개의 대립항이 모두 출현된다.

③ 두 가지의 계약관계가 모두 출현된다.

④ 공간적 구조로는 선녀의 천강으로 1차적인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선녀의 승천과 주인공의 승천으로 천상의 공간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인공의 금기파괴로 다시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 죽게 되는 것으로서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이 형성된다.

(2) 중국 만주-통구스족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만주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34:

- B. 한 장사꾼이 있었다.
- C. 장사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 D. 장사꾼이 한 늙은이²²⁷⁾를 도와준다.
- E. 늙은이가 선녀의 비밀을 알려준다.
- G. 장사꾼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 H. 세 선녀 형제가 있다.
- I. 세 선녀가 백조로 변하여 날아온다.
- J. 세 선녀가 옷을 벗고 늪에서 목욕을 한다.
- K. 장사꾼이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한다.
- L. 장사꾼이 선녀의 옷을 숨긴다.
- M. 장사꾼이 선녀와 부부로 된다.

227) 설화에서 나오는 늙은이는 실제로 선녀의 아버지이고 신계의 지배자이다. 설화 속에서 장사꾼은 갈 길이 없는 늙은이를 3년 동안 모신다. 늙은이는 장사꾼의 어진 품성에 감동되어 자기의 딸과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선녀에게 이 혼인은 자기가 정한 것이라고 선녀에게 알려 주면 선녀는 말없이 동의할 것이라고 장사꾼에게 알려 준다.

- N.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 O₁. 아이가 선녀의 옷이 숨겨진 곳을 누설한다.
- P. 선녀가 옷을 입고 백조로 변하여 아이를 데리고 날아간다.
- R. 늙은이가 선녀를 찾는 방법을 알려 준다.
- T. 장사꾼이 조롱박 넝쿨을 잡고 하늘로 오른다.
- U. 장사꾼이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 Z. 장사꾼이 선녀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산다.

- ① 설화의 전반 구조에서 V-Y까지의 항들이 탈락되어 있다. 이 설화에 늙은이로 가장한 신선이 주인공의 어진 품성을 시험하고 자기의 딸을 주인공에게 주동적으로 혼인시키는 삽입부가 들어 있기에 보상형을 이루게 된다.
- ② 난제와 난제해결, 조력자와 가해자, 금기와 금기파괴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 ③ 계약1의 관계가 나타난다. 계약1에서의 혼인증여가 구명과 구명보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녀의 아버지가 주인공의 착한 성미를 고함하고 주동으로 선녀를 하사하는 관계로 된다.
- ④ 선녀의 천강과 지상체류로 1차적인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선녀의 승천과 주인공의 승천으로 2차적인 천상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 오르첸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32:

- B. 松坦이란 사냥꾼이 있다.
- C. 선인이 보상으로 용마를 하사한다.

- L₃. 선인이 딸을 사냥꾼에게 보낸다.
 V₁. 권력자가 혼인을 방해한다.
 X. 선녀가 난제를 도와 해결한다.
 P. 선녀가 백학으로 변하여 날아간다.
 Q. 사냥꾼이 선녀를 찾아 길을 떠난다.
 S. 사냥꾼이 길에서 네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T. 사냥꾼이 선녀가 있는 곳으로 도달한다.
 U. 사냥꾼이 선녀와 만난다.
 W. 선녀의 아버지와 선녀가 시험문제를 낸다.
 X. 조력자가 난제해결을 도와 나선다.
 Y. 사냥꾼이 난제를 해결한다.
 Z. 선녀와 사냥꾼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 ① 전반부에 H-L까지의 목록과 절의 화소에 관한 단락소가 탈락되어 있다.
 N 항인 후대에 관한 내용도 탈락되어 있다. 지상에서의 V₁인 가해자 항이
 첨가되어 있다.
 ② 구제와 정보획득, 금기와 금기파괴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③ 계약1과 계약2가 모두 출현한다. 계약1은 구제와 관련된 혼인증여가 아
 니라 주인공에 대한 선인의 보상으로 된다.
 ④ 공간적 구조로 보면 1차적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선녀의 주
 인공과의 지상 동반이 나타나므로 2차적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자료33:

- A. 대흥안령에 白嘎拉山이란 곳이 있다.
 B. 한 총각 사냥꾼이 살았다.

- I. 칠선녀가 하늘에서 날아 내려온다.
- J. 선녀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 K. 사냥꾼이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한다.
- M₂. 선녀와 사냥꾼이 돌에 오줌을 누다.
- N. 선녀와 사냥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 P. 선녀가 하늘로 날아간다.
- Q. 사냥꾼이 아이를 데리고 선녀를 찾아 떠난다.
- R. 흰 수염의 노인이 하늘 오르는 방법을 알린다.
- T. 사냥꾼이 사슴의 뿔을 타고 하늘로 오른다.
- U. 사냥꾼이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 V. 선녀의 어머니가 혼인을 반대한다.
- W. 선녀의 어머니가 시험문제를 낸다.
- Y. 사냥꾼이 난제를 해결한다.
- Z. 사냥꾼이 선녀와 함께 지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 ① 전반부에 E-F 구제에 관한 내용과 K-L의 ‘절의’에 관련된 항이 탈락되어 있다. 후반부에서는 X 항이 탈락되어 있다.
- ② 구제와 정보획득, 금기와 금기파괴의 대립항이 탈락되어 있다.
- ③ 두 가지 계약관계에서 계약1만 나타난다.
- ④ 선녀의 천강과 지상체류로서 주인공과 1차적 지상 공간 대립이 형성되고 주인공의 승천과 난제해결, 선녀와의 지상 동반 하강으로 2차적 지상 공간의 통일 구조가 형성된다.

시버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35:

- B. 선비족의 詰汾이란 족장이 있다.
- I. 선녀가 붉은 가마를 타고 하늘에서 날아 내린다.
- L4. 선녀가 주동으로 결혼 요구를 한다.
- M2. 선녀가 족장과 부부로 된다.
- P. 선녀가 하늘로 날아간다.
- N1. 선녀와 족장의 후대가 북위의 황제로 된다.

- ① 전반부에서 D-E인 구제와 정보에 관한 항이 탈락되고 J-L이 목욕과 절의 항이 탈락되어 있다. 후반부에 N₁이 첨가되어 개국시조형이 이루어진다.
- ② 선녀와 주인공, 결핍과 결핍해소의 두 대립항이 출현된다.
- ③ 두 가지 계약관계에서의 계약1만이 출현된다. 다만 이는 구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천제와 선녀의 주동에 의한 혼인증여의 관계이다.
- ④ 선녀의 천강과 지상체류로 지상 공간의 1차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선녀의 승천으로 다시 천상과 지상의 공간대립이 이루어진다.

에벤키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해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36:

- B. 한 사냥꾼 아이모르젠(艾莫日根)이 있었다.
- I. 선녀(鷹) 이 찾아온다.
- L4. 선녀가 주동으로 결혼을 요구한다.
- M. 사냥꾼이 선녀와 부부로 된다.

N. 사냥꾼과 선녀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

N₄. 그 아이가 커서 영웅 (本迪) 이 된다.

① 전반부에서 D-E인 구체와 정보획득 향이 탈락되고 J-L의 목욕과 절의 향이 탈락되어 있다. 후반부에 N₄향이 첨가되면서 영웅탄생형이 이루어진다.

② 선녀와 주인공, 결핍과 결핍해소의 대립향이 출현된다.

③ 계약1에서 선녀의 주동에 의하여 혼인증여가 이루어진다.

④ 선녀와 주인공의 지상 공간 통일에서 선녀의 이별로 천상과 지상 공간 대립이 형성된다.

(3) 일본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일본 천사성혼류 설화 자료31의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31:

B. 한 가난한 머슴이 있었다.

I. 칠성 자매의 장녀가 그믐날 머슴의 집을 방문한다.

W. 부자가 머슴에게 과제를 부가한다.

X. 선녀와 선녀의 자매가 천을 짜서 난제를 해결한다.

Y. 머슴이 난제를 해결한다.

M. 두 사람이 부부로 된다.

N.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

P. 선녀가 하늘로 돌아간다.

Z₄ 선녀와 그 아이가 하늘에서 칠성으로 변한다.

- ① 이 설화의 전반부에서는 D-E, F-O, J-K등의 대립항에 해당하는 단락소가 탈락되어 있다. 그리고 설화의 후반부에 나타날 난제와 난제의 해결 단락소가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설화의 마지막에 Z_4 가 첨가되면서 칠성형의 구조 특징을 이루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늘의 칠성선녀의 장녀가 주동으로 가난한 머슴의 집에 와서 부부를 맺고 난제를 도와 나서는 것으로서 역시 머슴에 대한 보상형을 이루고 있다.
- ② 이 설화에서는 오직 결핍과 결핍의 해소, 난제와 난제해결, 범인과 선녀인 3개의 대립항만 출현된다.
- ③ 혼인에 있어서의 두 가지 계약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공간적 구조로는 선녀의 천강으로 인하여 1차적인 지상 공간의 통일이 이루지고 다시 선녀의 승천으로 지상과 천상의 대립적 공간 구조를 이루게 된다.

표7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의 구조 비교

민족	자료	단순구조	복합구조	대립항 (탈락항만 표시)	계약관계	공간구조
한국	자료30	○	○	모두 출현	계약1 계약2	①②③
일본	자료31	○	○	②③⑤⑥⑧	없음	①③
만주족	자료34	○	○	③④⑧	계약1	①④
오르첸족	자료32	○	○	②③	계약1 계약2	①④
	자료33	○	○	②③	계약1	①④
시버족	자료35	○	○	②③④⑤⑥⑧	계약1	①③
에벤키족	자료36	○	○	②③④⑤⑥⑧	계약1	①③

3) 천사성혼류 설화에 나타난 화소와 구조의 변별적 의미

(1)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차이와 그 의미

①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차이

천사성혼류의 백조처녀형 설화는 그 구조와 화소에 있어서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와 근본적인 구별을 갖고 있다.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는 민중들의 보편적인 이념을 체현하기보다 주인공의 훌륭한 품행에 감동된 신이나 천제가 일종의 보상으로 주인공에게 선녀를 아내로 하사한다. 혹은 후대의 신이성(神異性)과 업적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녀가 주동적으로 혼인을 요구하게 된다. 때문에 천사성혼류에서는 절의성혼류와 달리 ‘구제와 정보획득’, ‘금기와 금기파괴’, ‘천강과 승천’, ‘가해자와 조력자’, ‘난제와 난제해결’ 등의 대립항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늘의 뜻으로서 하사 하는 혼인이기에 ‘절의’와 같은 화소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간혹 만주족의 자료34에서 ‘절의’가 출현되나 이는 선녀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알려준 방법이다. 그리고 오르첸족의 자료32에서 ‘난제와 난제해결’, ‘조력자와 가해자’가 나타나지만 모두 선녀와 주인공의 혼인 성사를 위한 호의에서 설치된 것이다.

②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의미

천사성혼류 설화의 화소 의미는 하늘이 내리는 혼인이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선녀의 천강’과 그 ‘후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ㄱ. 선행의 보상에 의하여 하사 받은 아내— 선녀의 천강

천사성혼류에서도 절의성혼류와 같이 선녀의 천강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천강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천사성혼류는 선녀가 천제 혹은 아버지로부터 혼인의 명을 받들고 지상으로 천강하여 주인공과 결합한다. 선녀의 천강은 선행을 행하는 주인공에 대한 더없는 보상으로 된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권장하는 사상도 내포되어 있다.

ㄴ. 지배권 사상의 정당성에 대한 변명— 신이한 선녀의 후대

선녀의 후대가 복합된 설화 자료35와 자료36에서는 주인공의 혼인 결합에 있어서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선녀의 혼인 주동인 만큼 주인공은 피동에 처하게 되며, 혼인은 선녀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출현은 다만 신이한 후대의 탄생을 위한 과도로서 존재한다. 때문에 선녀가 낳은 후대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체현하기도 한다.

(2)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차이와 그 의미

①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차이

천사성혼류 설화에서는 보편적으로 ‘구제’와 ‘정보획득’, ‘금기’와 ‘금기과괴’, ‘절의’에 관련된 내용이 탈락되어 있다. 혼인의 계약관계에서도 계약1이 출현되지만 그것은 구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천제와 선녀의 주동에 의한 혼인증여의 관계이다. 공간 구조에서 보면 ‘후대’에 대한 복합형이 나타나지 않는 자료32, 자료33, 자료34에서는 지상 공간의 통일인 1차적 통일과 2차적 통일이 모두 출현된다. 선녀 ‘후대’의 위업을 복합시킨 설화 자료35와 자료36에서는 지상 공간의 1차적 통일과 선녀의 이별에 의한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이 형성된다.

② 천사성혼류 설화의 구조 의미

ㄱ. 천사성혼의 주제를 위한 배타적 설화 구조

천사성혼류의 설화는 하늘의 뜻에 의한 혼인이라는 선명한 주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는 내용적으로나 설화의 구조적으로나 설화 속에 삽입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배타성을 갖고 있다. 혼인이 천제에 의하여 하사 받은 만큼 선녀의 주동으로 되어있기에 주인공이 ‘절의’는 필요 없는 부분으로 된다. 또한 ‘목욕’과 같은 주인공의 발견도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선녀의 부모나 천제가 혼인의 중매자인 만큼 ‘금기’, ‘난제’의 화소도 꼭 설화 속에 나타날 의의는 없는 것으로 된다. 즉 천사성혼류 설화는 특수한 주제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기타의 삽입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배타성을 띠고 있다.

ㄴ. 천사혼의 이룸을 위한 필연적인 공간 배치

천사성혼류 설화를 보면 주인공에 대한 보상과 ‘후대’의 위업을 체현하는 것이 중심으로 된다. 주인공에 대한 혼인 보상은 하늘의 뜻이 따름으로써 필연적으로 행복한 결말로 되어야 한다.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지자면 주인공과 선녀는 반드시 하나의 통일된 공간에서 존재하여야 한다. 때문에 자료32와 자료33, 그리고 자료34에서는 1차적인 지상 공간의 통일을 이어 2차적인 지상 공간의 통일로 결속된다. 이와 같은 공간의 통일은 선녀와 주인공의 지상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필연적 결과이다.

‘후대’의 업적을 체현하는 자료35, 자료36과 같은 설화에서는 선녀의 후대가 남다른 신성성을 가짐과 위업을 이룰 수 있는 정당성을 체현하기 위하여 선녀는 지상에 체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상으로 돌아가야 만이 그 ‘후대’가 천상과의 친연 관계를 가진 신의 후대임을 보여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배치는 절의성혼류에 나오는 만주족의 설화들에서도 자주 보이는 구조적 배치이다.

천사성혼류와 절의성혼류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공간의 구조로서 2차적인 천상통일의 공간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설화에서는 다만 선녀가 지상으로의 귀복(歸服)을 요구한다. 이는 선녀를 비롯한 모권사회가 남권사회로의 전변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V. 백조처녀형 설화의 문학적 의미

설화에 대한 연구는 발상과 분포, 전승양상에 대한 연구를 이어 설화의 유형 및 구조의 연구에까지 이르게 된다. 설화의 유형과 구조에 대한 연구는 설화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되는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지만 중국적으로는 설화가 갖고 있는 의미를 도출하여 내는 것이 설화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되게 된다. “민간고사의 구조론 연구에 있어서 최종 목적은 구조 자체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고사 연구의 과정, 방법, 수단에 있다.”²²⁸⁾ 關敬吾는 “민간고사 연구의 최종 목적은 더욱 심층적인 종합 형식과 내용의 여러 방면에 대한 연구이다.”²²⁹⁾라고 설화 연구의 최종 목적에 대하여 말하였다. “구조주의방법의 최종 목적은 단일한 신화 텍스트에 대하여 이런저런 해석을 진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신화 텍스트가 그와 같이 되게 되는 보편적인 구조 규칙과 의도의 모식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인류의 신화사유의 보편적 논리를 탐색하는데 있다.”²³⁰⁾ “巴霍芬의 견해에 의하면 신화 중에서 발견한 것은 인류의 정신 혹은 종교경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신화 속에서 서술한 것이 진실한 역사사건이든 인간의 환상이든 모두 중요한 것으로 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신화에 대하여 분석을 할 때 마지막까지 분석한 결과, 보아지는 진정한 의의는 근근 그이가 표현한 정신뿐이다.”²³¹⁾ 巴霍芬은 신화가 소지하고 있는 ‘정신’을

228) 伊藤清司, 「《天婚》故事的結構論研究」, 叶舒憲 編選, 『結構主義神話學』,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115쪽.

229) 板倉篤義, 「故事的語言和形式」, 關敬吾, 『故事學新論』, 遼寧大學出版社, 1992, 114-115쪽.

230) 叶舒憲 編選, 『結構主義神話學』,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2-3쪽.

231) 朱狄, 위의 책, 같은 쪽.

신화연구의 최종 가치로 보고 있었으며 ‘정신’이란 바로 신화의 ‘우의(寓意)’를 말하고 있다

설화의 연구는 최종적으로 설화에 체현되는 문화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목적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유형과 구조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나는 문화적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난 의미

1) 주인공의 통과의례

아놀드 반젠넵(Arnold van Gennep)은 『통과의례』에서 “인간의 생활은 비슷한 끝과 시작의 연속적 단계—출생, 사회적 사춘기, 결혼, 아버지가 되는 것, 상층 계급으로의 이동, 직업적 전문화, 죽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의식이 행해진다. 이러한 의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인이 어떤 명백한 지위에서 또 다른 명백한 지위로의 통과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²³²⁾라고 지적하였다. 즉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에 그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의식을 경과하게 된다. 이는 현대인이나 고대인이나 모두 통하게 되는 의식 과정이다. 김열규도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입사제의는 사춘기제의(puberty rite)이다. 왜냐하면 모성적인 유대와 유아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춘기 소년들이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제의이기 때문이다.”²³³⁾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리고 또 “‘신화시

232) 아놀드 반젠넵, 『通過儀禮』, 을유문화사, 1985, 30쪽.

233) 김열규·주옥, 「민담과 문학에 있어서의 입사식담」, 『민담학개론』, 일조각, 1997,

대에서 역사시대로'의 변천이 일어나던 수세기 동안 입사범례는 제의와 문학 어느 방면에서도 성행하고 있었다. 입사상징은 신화와 역사, 제의와 문학에 동시에 수용될 만한 근거가 있다. 즉 죽음과 재생, 여행과 귀환의 화소는 신화와 제의의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며, 소년에서 성인으로, 무지에서 앎으로의 성숙의 화소는 역사라는 직선상에 초월하는 움직임을 담을 만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²³⁴⁾라고 지적하였다.

백조처녀형 설화에서도 이와 같은 제의에 관한 인간의 통과례 과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설화의 주인공이 한 소년으로부터 성인인 남성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절의성혼류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신분이 비천한 하층계급의 인물로서 어머니와 생활하거나 부모를 여의고 고아의 신분으로 생활한다. 이와 같은 인물이 신적 계시를 받고 어머니의 곁을 떠나 선녀가 나타난다는 곳으로 탐색을 떠나게 된다. 선녀를 발견한 주인공은 결혼의 욕망으로 선녀의 옷을 숨기고 선녀의 본의가 아닌 강제적인 혼인을 이룬다. 결혼 후 그들에게는 후대가 생겨나고 선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된다. 아내를 찾으러 떠난 주인공은 하늘에서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일련의 시련을 겪게 된다. 고향에서 통과한 주인공은 다시 처자를 거느리고 지상의 인간 세계로 회귀한다. 이와 같이 설화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의 혼인 행위는 한 인간이 성인으로서의 통과례의 전반 과정을 체현하고 있다. 주인공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것은 성인으로 자라날 소년이 모권사회에서 이탈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는 제의의 과정을 밟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소년인 주인공이 어머니 곁을 떠나 깊은 산속에서 인적이 한적한 어느 한 늪의 나무숲 뒤에 숨

²³¹쪽.

²³⁴⁾ 김열규·주옥, 위의 책, 232-233쪽.

어서 조용히 선녀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인내 행위는 마치 성인식에서의 입사의 후보자가 원 사회단체를 벗어나 외딴 곳으로 격리되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는 과정과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 주인공의 이와 같은 행위과정과 의미를 요해하기 위하여 잠시 성인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식은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인식을 치른 자들에게는 그 소속단체로부터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갈 능력과 의무를 부여시킨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자격도 동시에 얻게 된다. 부족의 승인을 받은 성인인 만큼 이성에 대하여서도 강한 흡인력을 갖게 된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부족 토tem의 신성성을 보여주고 자신들이 신앙하는 신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식에 대한 예로서 파푸아뉴기 카닝가라 지역의 ‘악어 성년의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지역에 생활하는 일부 부족은 성인식에서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악어의 피부와 형태로 만든다. 이는 그들이 신앙하는 악어 신령의 보호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남자들을 여자들이 더욱 좋아한다. 며칠간 성인식을 치를 남성들은 한곳에 모여 신성한 춤과 이야기(교육)를 늘어놓으며 성인식을 치르게 된다. 그들은 영혼의 집에서 의식을 진행할 때 배운 지식과 집안의 모든 행사를 비밀로 지켜야 한다. 여자들은 남자 성인식의 방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몸에 칼을 댈 때 아프지 않고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누가 비밀을 누설하면, 즉 금기를 타파하면 곧 죽게 된다고 한다. 악어무늬를 내고 영혼의 집에서 악어의 힘을 얻게 된다. 의식을 치른 후전 부족 앞에서 그들을 악어라고 부른다. 의식을 치른 그들은 밤에 악어사냥을 하게 되고 이로서 성인이 되는 것을 배운다. 그들은 부족의 통과례인 ‘악어의식’을 통하여 성년의 자격을 마을 장로한테서 얻게 된다. 성인식을 거친 자들은 부족인 그들의

소속 사회집단으로부터 성인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고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들은 성인식을 통하여 새로운 이름과 사회신분을 얻는다.

백조처녀형 설화에서도 주인공이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역시 전에 모르던 신비한 지식에 대하여 습득하는 배움의 과정이 나타난다. 설화의 주인공인 소년이 별거벗은 선녀의 나체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며 결혼의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은 선녀를 통하여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여신 혹은 신녀는 신비한 지식을 장악한 자 이거나 전수자로서 남주인공을 무지에서 깨우치게 하고 의혹을 풀어준다.”²³⁵⁾ 이로서 보면 설화 중에서의 선녀의 출현은 모종 면에서 놓고 볼 때 주인공의 모종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지도자로도 된다. “남주인공은 어떤 초자연적 신분을 가진 여도사(女導師)와의 상봉을 기대한다. 이 속남과 신녀의 상봉은 구조적 기능상에서 한차례의 계몽의식 혹은 성년의식에 해당한다. 이는 주인공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적 계몽과 정신적 계몽을 가져다 주며 그의 속된 신체에 천명의지(天命意志)를 실현한다.”²³⁶⁾ 이와 같이 선녀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가르침에 성적 의식을 지각한 주인공은 인간 본능으로서의 성인으로서의 의식을 진행하게 된다. 즉 선녀와의 결혼을 실행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러나 이런 혼인은 단 두 사람의 관계로 될 뿐 사회적 요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처가 성원의 허락과 사회 집단적인 의식을 치르지 않은 만큼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녀가 처가로 떠난 후 주인공은 하늘에 있는 처가로 찾아가 처가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일련의 고험을 당한다. 이와 같은 천상시련의 난제해결 과정은 혼인에 있어서 한 집단의 성원이 다른 한 집단의 성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통과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난제의 해결로 혼인시련에서 이겨낸 주인공은 처가

235) 叶舒憲, 「素女為我師：中國文學中性愛主題的昇華形式」, 叶舒憲 編選, 『結構主義神話學』,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262쪽.

236) 叶舒憲, 위의 책, 273쪽.

의 인정을 받고 처자를 데리고 지상으로 다시 복귀한다. 이와 같은 주인공의 지상회귀는 한 성인으로의 통과의례를 거친 자로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재생으로 자기의 소속 단체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권사회에서 벗어난 소년이 성인으로서의 일련의 의례과정을 거치고 다시 부권사회로의 진입으로 된다.

2) 여성 정체성의 확립

선녀의 천강과 지상에서의 결혼, 속세 인간과의 생육, 천상으로의 회귀, 주인공과의 지상으로의 동반 하강은 모권사회에서 남권사회로의 교체되는 과정에서 특수 신분으로 집단의 지배권과 기술, 지식을 향유하던 여성들이 모권사회의 해체와 더불어 부득불 남권사회로의 신분과 사회적 역할의 재정립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아래와 같은 몇 개의 방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설화에서 체현되는 혼인 방식의 변화이다.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집을 떠나 여자의 집으로 가서 여자의 집사람과 함께 생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풍속이 유행되는 지방에는 모두 모권제가 존재한다. 이로 보아 모권제 산생의 한 원인으로는 바로 처가거주혼(妻家居住婚)이다.”²³⁷⁾ 인류의 모계사회 시기의 혼인 형태를 보면 남자가 처가에 거주하는 혼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백조처녀형 설화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주인공이 아내를 찾아 처가로 들어가고 혼인 시련을 거친 후 처가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로 모계사회의 혼인 유습으로도 볼 수 있다. 주인공이 당하는 난제 고함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자를 먹여 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고함으로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종의 노

237) 韋斯特馬克 著, 劉小幸·李彬 譯, 『人類婚姻簡史』, 商務印書館, 1992년, 제11쪽.

무혼(勞務婚)의 체현으로도 된다. 일본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난제 고향의 내용으로 ‘호박심기’, ‘곡식심기’ 등이 출현된다. 이는 설화의 농경문화 배경을 체현하는 한편 또한 혼인의 방식에서 주인공이 혼인에 대한 보상으로 처가에서 진행되는 노무혼(勞務婚)의 표현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녀의 천강과 주인공과의 지상 동반 하강은 남권사회에서의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오며 시집에서 생활하는 혼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모계사회의 남가여가(男嫁女家)의 혼인 유습이 여가남가(女嫁男家)의 혼인 형태로 개변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선녀의 신격 약화이다.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남성의 사회 역할이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남성에 비하여 점점 약화되었다. 남성이 사회 권위의 중심을 이루면서 여성은 사회 권위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고 그들은 남성 중심의 남권사회에서 다시는 특수 신분으로 집단의 지배권과 기술, 지식 등을 향유하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사회 역할에서 신분상의 새로운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 현상은 백조처녀형 설화 속에서도 체현되고 있다.

설화에서 선녀는 자기의 원 소속 단체를 벗어나 인간이 생활하는 지상으로 적극적으로 ‘천강’ 하며 인간의 속세로 들어선다. 선녀는 인간 속세에서 주인공인 뱀남과 만나 결혼을 한다. 그리고 지상에서 생활하면서 인간 여성으로서의 신분과 모든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된다. 생육, 아내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 등을 스스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천상에서 주인공이 혼인 시련을 당할 때 선녀는 주동적으로 남편을 도와 난제 해결에 나서게 된다. 심지어 한국의 설화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도와 자기의 아버지나 오라비를 죽이는데도 적극적으로 도와 나선다. 선녀의 이런 행위는 모권사회에서 남권사회로 전변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여성 정체성의 재정립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녀가 주동으로 난제를 도와 해결하고 또한 혼인의 결림돌이 되는 처가 일원을 제거하는 행위는 여권사회에서의 특권과 신분, 여성으로서의 특유한 엘렉트라 콤플렉스, 딸을 소속으로 하는 부권에 대한 배척으로 되며 남권사회에서 여성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이 처가에서 내는 난제를 해결함은 남성이 여성심리와 모권세계에 대한 해독(解讀)으로 되고 선녀가 남편을 도와 처가의 형제와 부모를 제거하는 것은 모권사회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권사회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녀가 남편을 도와 자기의 아버지나 오라비를 죽이는 화소는 이상의 민족에서 오직 한국에만 나타난다. 자료23에서는 선녀가 남편을 도와 오라비를 죽이고 임석재 전집에서의 「나무꾼과 선녀」²³⁸⁾에서는 선녀가 남편을 도와 아버지인 옥황상제를 죽인다. 여주인공이 남편을 도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는 화소는 중국 타이족(傣族)에서 전승되는 「召树屯和兰吾罗娜」²³⁹⁾에서도 출현된다. 이에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의 난제형은 남방계 백조처녀형 설화와 일정한 영향관계가 있음 보여준다.

여신의 신격 약화는 아래와 같은 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여주인공은 새로 변화 할 수 있는 신으로서 새토템인 모계씨족시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신적 존재로서의 선녀가 하늘을 떠나 인간 속세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인간계와의 접촉을 위한 새로운 재생으로 볼수 있으며, 또한 선녀의 ‘성’에서 ‘속’으로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다. 만주족과 같은 시조기원형 설화의 경우 모신으로서의 원시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하늘의 선녀가 백조로 변하여 인간에 내리고, 아이를 낳고, 다시 아이

238) 임석재, 『임석재전집:평안북도편 I』, 평민사, 1991년, 제54-57쪽.

239) 郭俊红 著, 『天鹅處女型故事』, 中國社會出版社, 2010년, 제38-56쪽.

를 버리고 홀로 떠나는 화소에는 모계시기 여신의 원시적 형상과 의미, 혼인 유습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선녀는 다시는 신성한 범접할 수 없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 들어서고 인간의 처가 되는 신분상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민족의 설화에서 나타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금기는 아내의 원 신분의 폭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이해된다. 설화 속의 선녀는 주인공과의 접촉 방식이나 그의 옷차림이나, 지식의 전수, 주술능력 등은 모두 선녀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 계층의 소속이며, 지어 귀족이나 왕족 같은 통치계급의 인물일 수도 있고, 또는 여사면(일부 만주-통구스족 설화의 여주인공 신분)과 같은 신분일 수도 있다. 그들은 하층계급 인물과의 우연한 사통관계에서 자신의 신분 밝힘을 꺼려 이상과 같은 금기가 설치되었을 수도 있다. 만약 이런 가설이 성립된다면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선녀의 이별, 혼인에서의 금기와 처가에서 혼인 반대의 이유, 신분상의 차이, 천상과 지상 공간의 대립 설치, 주인공에게 주어진 난제와 같은 내용들은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게 된다.

총적으로 이상과 같은 여러 면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모권시기 여성들의 지고무상(至高無上)한 사회신분에 의하여 신격화된 여신, 모신의 형상들이 모권사회의 와해와 동반하여 신격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여성중심의 사회주도권과 기술, 지식 등이 남권사회로 전이되게 되고 그 자신들도 새로운 사회제도에 융합되어야 하며, 신분과 사회역할 상에서도 새로운 전변과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인간의 자연 극복

설화는 장기적인 전승과정에서 지역과 부동한 민족 사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수용된다. 이와 같은 전승과정에서 설화는 필연적으로 지역적 특수성과 민족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며 그에 알맞은 가치관과 의미를 지니게 된다.

사실의 진위와 역사적 진위를 따지지 않고 신화를 탈사실의 상징으로 보아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 신화는 결국 인류심성의 근원적인 원형을 드러내는 상징이고 그 의미 자체이며, 민족적 심성의 원형을 나타내는 신화는 개인보다 집단적 삶, 공동체적 삶을 반영하며, 우리에게 상징과 은유로 남아 그 의미해석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미가 없는 상징이나 은유로서의 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²⁴⁰⁾

설화를 분석할 있어서 설화의 내재적 관념을 귀납하여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관념 사이의 연계와 그 표현의 방법도 고찰하여야 한다. 이런 체계성이 나타나지 못한 관념분석은 완전한 분석으로 되지 못하며 다만 부분적인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민간 설화의 텍스트를 통하여 민중의 가치세계를 인식하는 관건으로 된다.²⁴¹⁾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나는 관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면에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자연숭배에서 시조숭배로의 전변과정이다. 백조처녀형 설화를 보면 여러 민족에서 시조에 대한 시조숭배사상이 나타난다. 이는 인류 최초의 인지능력의 저하에 의하여 자연계에 대한 과학적인 요해가 따라서지 못한 만큼, 자연에 대하여 숭배를 진행하게 되는 원시적인 의식 차원에서부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터득하면서 시조에 대한 숭배, 더 높은 차원인 의식 세계로의 발전 과정을 보여 준다. “시조숭배는 원시종교적인 자연숭

240) 이상일, 「설화장르학」, 김열규 등 편저, 『민담학개론』, 일조각, 1997, 65-66쪽.

241) 周福巖, 『民間故事的倫理思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239-240쪽.

배, 동식물숭배, 토tem숭배 등 형식에서 발전되어 왔다. 원시종교 발전에 있어서 더 높은 차원의 숭배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 종교의식 상에서의 반영으로 보면 모계씨족사회의 토tem숭배에서 시조숭배로 발전된 것이다.”²⁴²⁾

“만주-통구스족 영웅신화의 유형과 특징을 보면 신화 발전체계 상에서 중요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환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령(神靈)적 자연력으로부터 신성(神性)화된 사람으로 발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연적인 신격화로부터 현실 사회 중의 인간의 신성화로 전변된 것이다.”²⁴³⁾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체현되는 시조숭배와 영웅숭배의 사상은 선민들이 최초의 원시 신앙으로부터 점차 발전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발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사상관념상의 변화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

둘째, ‘천인합일’과 ‘천인상통’의 관념 체현.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보면 여러 민족 속에 ‘천인합일’의 사상 체현된다. 예를 들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보조자는 신성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인간의 특성도 갖고 있다. 지상으로 오가는 선녀와 천상으로 오른 주인공 등을 보면 모두 신성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소유한 존재로 된다. “민간설화 중의 동식물들은 초자연적인 신성과 인간성이 부여되면서 천인합일의 전지전능의 신으로 되게 된다.”²⁴⁴⁾ 설화 속의 인물들은 천상과 지상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천인합일의 사상을 체현하고 있다.

셋째,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사상. 백조처녀형 설화를 보면 여러 방면에서 인간이 자연과의 항쟁에서 승리하고 자연을 지배하게 되는 사상이 체현된다. 자연에 대한 정복으로서 난제형 설화에 나타나는 난제를 볼 수 있다. 일본 설화의 난제 내용으로서 밭갈기와 산의 나무를 모두 베기, 호박을

242) 富育光, 『薩滿教與神話』, 遼寧大學出版社, 1990, 66쪽.

243) 汪立珍, 『滿-通古斯諸民族民間文學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6, 99쪽.

244) 汪立珍, 위의 책, 193쪽.

심거나 곡식을 심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이는 설화에서 주인공에게 부과된 시험으로 되지만 그 본질을 밝히면 바로 인간이 자연에 대한 개조능력과 지배의식의 체현이라 할 수 있다. 자료35에서 척발 선비족의 족장이 부족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심산 속에서 길을 잃게 되지만 선녀의 도움으로 난제가 해결된다. 선비족의 이주 성공은 역시 인간이 자연계에 대한 정복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을 대표하는 신계에 대한 인간의 정복 행위를 보면 우선 범남인 주인공이 선녀를 아내로 얻는 것에서 체현될 수 있다. 주인공의 선녀와의 결혼 성공은 바로 인간이 신적 존재에 대한 정복과 재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난제 해결에 있어서 주인공은 인간의 신분으로 천상에서 신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완성하며, 지어 신들과의 경기나 칼싸움에서도 승리한다. 이는 인간이 신적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의 체현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상의 체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미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우리들은 일종 민간문학의 실천적 품격(品格)과 항쟁의의(抗爭意義)를 체험할 수 있으며, 아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간성(民間性)’의 의의(意義)일 것이다.”²⁴⁵⁾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이상과 같은 사상 관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면 인간이 자연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로부터 자신을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능동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인간이 자연에 대한 개조와 지배 의식을 체현하고 있다.

245) 周福巖, 『民間故事的倫理思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년, 제11쪽.

2.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난 의미

1) 도덕관념의 체현

“이야기는 사람들의 구지심을 만족하는 외에 또 사람들이 도덕문제를 사고하는 代用的 형식으로도 된다.”²⁴⁶⁾ 설화는 민중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민중들은 설화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설화를 통하여 자신이 수요하는 취향과 심미적 욕구를 만족시키게 된다. 설화가 민중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만큼 그에는 시대성을 띤 가치관념과 도덕관념이 동반되게 된다.

“설화 本體는 주로 하나의 상상과 환상으로 된다. 설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주로 사람들의 일종 심리상태로서 사회 혹은 가정생활환경, 조건 등에서 산생된 심리상태, 정신의 표현이다.”²⁴⁷⁾ 많은 설화를 보면 민중의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만큼 그 속에는 보편적 사회교육 의미를 띤, 선과 악에 대한 변별을 보여주는 전통 도덕관념이 체현된다. 이와 같이 ‘勸善懲惡’의 도덕관념이 체현되게 되는 것은 ‘忠孝仁義’를 핵심으로 하는 유교윤리의 전통관념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설화가 체현하는 것은 일종의 결의법(決疑法)으로서 두개의 상반되는 행위를 併置하고, 대비를 통한 ‘도리설명 방식’으로 민중들의 선과 악, 좋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한다.” 천사성혼류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도 이와 같은 도덕관념이 체현되고 있다. 그러나 천사성혼류의 백조처녀형 설화에는 선행에 따른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보상만이 체현되고 악에 대한 징벌의 구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구조는 보편적인 ‘勸善懲惡’의 내용을 다룬 설화들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46) 周福巖, 『民間故事的倫理思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6쪽.

247) 周福巖, 위의 책, 5쪽.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의 선행에 따른 보상은 하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권선’의 차원에서 ‘선행필보’의 차원으로 전변하였다.

한국의 자료30에서는 신이 주인공의 꿈에 나타나 “너는 부지런한 총각이니까 장가를 가게 하겠다.”고 언약한다. 일본의 자료31에서는 하늘의 七星仙女가 머슴의 집으로 내려와 그에 대한 동정을 보여 주고 같이 생활한다. 오르첸족의 자료32에서는 선녀의 아버지가 사냥꾼의 성실함과 착한 성미에 감동되어 선녀를 아내로 보낸다. 자료33에서는 선녀가 사냥꾼의 부지런하고 용감한 성품에 감동되어 주동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 이외 오르첸족의 다른 한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인 「仙女和音吉善」²⁴⁸⁾에서도 선녀가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마음이 착한 사냥꾼에게 호감을 갖고 왕모의 동의를 거친 후 사냥꾼과 부부로 된다. 에벤키족의 자료36에서도 선녀가 사냥꾼의 선한 언행에 주동으로 부부를 맺는다. 만주족의 자료34에서도 선녀의 아버지가 주인공의 선행에 감동되어 자기의 딸을 아내로 보낸다. 시버족의 자료35에서는 부족을 이끌고 험난한 경지를 벗어나려는 주인공의 선행에 감동되어 선녀가 천제의 명을 받들고 지상으로 내려 부부관계를 맺는다.

이상의 설화들을 보면 모두 동일한 공통성을 갖고 있다. 바로 주인공의 선행이 하늘의 신을 감동시키고 선녀를 아내로 얻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바로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의 ‘선행필보’란 도덕관념을 체현하고 있다.

천사성혼류 설화를 보면 주인공은 평소의 선행이나 어진 품성에 의하여 천제나 신의 인정을 받고 선녀와의 혼인하사를 받게 된다. 이는 선행은 반드시 보상을 얻게 된다는 민중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의 체현이다. 이와 같

248) 峻林 等, 『鄂伦春民间故事集成』, 内蒙古文化出版社, 1997, 387-389쪽.

은 사상은 민중들에게 어진 마음과 선행을 권장하는 사회적인 도덕관념의 체현으로도 된다.

“선녀나 이류가 변화한 환상인물이나를 물론하고 그들은 아름답고 다정하며, 선량하고 부지런하며, 부드럽고 현숙한 기이한 형상을 갖고 있어 모두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다수가 외롭고 선량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생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준다. 그들은 인민의 아름다운 이상을 체현하는가 하면, 암흑한 사회통치와 항거하기도 하고, 행복한 사랑을 찬미하기도 하고, 낡은 사회의 윤리도덕에서 계승하여야 할 전통미덕과 고상한 정조를 선양하였다.”²⁴⁹⁾ 이런 도덕관념은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뿐만 아니라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도 나타난다. 주인공이 구제한 동물들이나 사람이 조력자로 나서며 주인공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는 것도 ‘선행필보’ 관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선행필보를 주제로 하는 설화들은 착한 행동이 행복한 생활을 가져온다는 민중들의 소박한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이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내를 얻어 가정을 가지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를 얻는 것이며, 핍박을 받는 사람은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었다”²⁵⁰⁾

2) 통치관념의 실현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나라를 건립한 시조 황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설화는 만주족, 시버족 등 두 민족에서만 나타난다. 설화의 내용으로 보면 나라를 건립하는 황제는 모두 출신이 비범한 존재로 되어있다.

249) 王肯等, 『東北俗文化』, 春風文藝出版社, 1992, 93쪽.

250)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3, 250쪽.

만주족의 설화는 절의성혼류에 속하지만 설화에 ‘왕권신수’의 공동한 사상이 체현되어 있기에 여기서 같이 다루기로 한다.

만주족의 설화 자료4와 자료5에서도 선녀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황제로 되었다고 서술한다. 만주족의 설화는 모두가 하늘의 선녀가 빨강 과일을 먹고 잉태하여 시조를 낳았다고 하는 것에는 ‘天子神授’의 사상이 체현되어 있다.

시버족의 설화 자료35에서 북위 건국황제의 출생에 대한 서술부분을 보면, 척발 선비족의 족장이 하늘의 뜻을 받고 내려온 선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북위의 첫 황제로 되었다고 한다.

자료35에서 선녀는 주인공과 이별할 때 그들이 낳은 아이를 내어주며 “이 아이는 장차 커서 북위의 황제가 될 것이다.”고 남편에게 말한다. 이는 황제로 될 사람에 대한 신격화로서 그 출생은 처음부터 귀한 것으로서 ‘天子神授’의 사상을 체현하고 있다.

김화경은 천강신화에 대한 설명에서 단군의 출생을 “하늘에서 왕권의 기원을 구하는 것, 건국시조의 출자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전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출자를 하늘에서 찾음으로써 그가 가지는 왕권의 신성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²⁵¹⁾ 설화에서 이와 같은 사상의 체현은 지배계층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출신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정권 통치에서의 편이성을 위하여 하늘의 천명(天命)이란 것에 대한 강조이다. 이는 서민들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순응을 하게 하는 재배사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계급적 차이와 특권 향유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설화에서 ‘왕권신수(王權神授)’ 통치관념 형성의 전제로 된다.

“시조의 출자를 하늘에서 구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일대에 거주했던 유목민들의 발상이다.”²⁵²⁾란 김화경의 견해로 보면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다

251) 김화경, 위의 책, 223-224쪽.

만 한국과 만주족, 시버족의 설화에서만 ‘왕권신수’의 통치사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세 민족은 모두 북방경내에 거주하는 민족으로서 지역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인접하고 있으며, 역사상으로도 모두 대 제국을 건립하였던 민족들이다. 이와 같은 민족들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에 ‘왕권신수’의 사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인간과 선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신성혼 설화이다. 모두 凡人과 선녀의 결합으로 되어있지만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와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는 그 혼인의 속성에서 본질적인 구별을 갖고 있다.

절의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는 주인공의 신분이 보편적으로 사회의 하층인물로 나타난다. 그들이 선녀와의 혼인결합에는 민중으로부터 오는 색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하층인물들은 그 출신으로 보면 태어나서부터 사회적 신분을 개변하기 어려우며, 사회의 최저 층에 속한 만큼 상층계급의 인정을 받기도 어려웠다. 민중들은 그들의 사회참여 의식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신분적 개변을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그들은 신과 왕족, 귀족들과의 혼인에서 신분상의 개변을 가져오고 사회인정을 얻을 목적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서 실현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욕망은 오직 설화와 같은 환상 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난제형 설화에서 주인공과 선녀의 결혼, 천계의 상층계급과의 지략 겨룸에서 바로 이와 같은 민중소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천사성혼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의 주인공은 직접 왕과 같은 통치계급의 최고 지배자로 나타나며, 그들에게는 신분적 개변의 필요가 없으며, 오직 신과의 혼인을 통하여 자신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고, 사회의 최고 지배적

252) 김화경, 위의 책, 232쪽.

위치에 놓인 만큼 통치와 지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부인 할 수 없는 이유를 모색하기 위해 신과의 혼인관계를 구사하고 있다. 설화에서 나타나는 ‘왕권신수’ 통치관념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샤머니즘 세계관의 재현

백조처녀형 설화를 놓고 보면 설화 속에 나타나는 선녀와 주인공의 속성, 그리고 그들의 일련의 행동, 그리고 주인공과 선녀의 공간적인 이동, 설화 속에 나타나는 조력자, 주인공의 난제 고함 등에서 샤머니즘적 세계의 그림자를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설명할 것은 필자가 여기에서 샤머니즘을 거론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 제기되는 한민족과 일본민족, 그리고 만주-통구스족들을 보면 예로부터 샤머니즘을 신앙하여 왔고 또한 그 영향도 지속적이었다. 때문에 이 민족들 속에서 전승되는 설화들에는 많은 샤머니즘과 관련된 요소들이 체현되곤 한다. 본고에서 논하는 백조처녀형 설화도 이 민족들의 설화인 만큼, 그 속에도 샤머니즘의 흔적을 여러 면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민족들은 지역적으로 샤머니즘 신앙이 이루어지는 범주내에 속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바이칼호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인 연해주와 북태평양에서 끝나는 사이의 대륙이 다루어져야 한다. 남으로는 소위 남부 시베리아 그리고 몽골 및 중국의 북부가, 북부 시베리아로는 극북에서 못 미치는 지역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대지의 절반에까지는 못 미친다 해도 거의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넓이다. 여기에 한국, 만주, 일본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²⁵³⁾ “국제적인 샤머니

253) 김열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2004, 17-18쪽.

즘 문화권으로 보면 샤머니즘적 문화를 신앙하고 전파하는 국가와 민족은 지구 북반부의 온대, 아한대와 한대지역의 문화전승 현상에 속한다. 북유럽에서 시베리아까지, 지어 북아메리카에 모두 샤머니즘문화와 같은 부류나 혹은 접근한 문화형태가 존재한다. 때문에 샤머니즘문화는 북방지역성을 갖는 큰 문화대(文化帶)의 문화현상이다.”²⁵⁴⁾ 이는 학계에서 샤머니즘 신앙 지역에 대한 범주의 확정으로 된다. 그리고 본고에서 논하는 민족들은 인종적으로 볼 때 역시 샤머니즘을 신앙하는 부류에 속한다. “인종적으로도 문제는 많다. ‘고아시아족’, ‘고시베리아족’에 속하는 것으로 논의되곤 하는 축치, 코랴크, 길랴크 등의 여러 종족 그리고 비교적 시베리아 남쪽에 분포된 몽골, 야쿠트 등의 종족, 그리고 중앙 시베리아에서 동부 시베리아까지에 분포된 만주-통구스족이 문제 되어야 한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서 골드(라무트), 오로치, 니기달 등으로 분화되지만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인과 일본인이 고려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²⁵⁵⁾

백조처녀형 설화 속에 나타나는 샤머니즘적 요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개의 방면을 통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는 샤머니즘 우주관의 체현이다. 이상이 민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샤머니즘적 우주관이 체현된다. 즉 이상 민족의 선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는 삼계(三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우주는 세 개의 세계로 간주된다. 첫째, ‘위의 세계’다. 둘째, ‘중간의 세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다. 셋째, ‘아래의 세계다’.”²⁵⁶⁾ “‘삼계설’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계설’은 샤머니즘적 우주천궁의 기본 개념의 하나이다. 우주(세

254) 富育光, 『薩滿教與神話』, 遼寧大學出版社, 1990, 7쪽.

255) 김열규, 위의 책, 18쪽.

256) 광진석, 『시베리아 만주-통구스족 신화론』, 지식과교양, 2011, 170쪽.

계)는 상, 중, 하의 삼계로 나눈다.”²⁵⁷⁾ 이와 같은 우주관은 인간들의 사상 속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기에 그들의 설화에서도 이와 같은 우주관과 삼계설이 투영된다. 이는 설화의 공간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전제 조건으로도 된다. 시버족의 자료19에서도 마귀들이 사는 산속의 동굴이 나타나 역시 삼계의 공간 구조가 이루어진다. 기타 민족들에서는 단 천상과 지상인 두 공간만 나타난다.

둘째로는 설화 속에 나타나는 신이다. 이상 민족의 설화에서 나타나는 신들은 여러 종류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그 신보(神譜)도 일치하지는 않다. 이는 샤머니즘 신앙 외에 장기적인 문화의 교류 속에서 기타 종교의 유입으로 인하여 형성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천제 혹은 옥황상제로 나타나고 일본 설화에서는 천제(부왕)로 나타난다. 만주족 설화에서는 진인(真人), 천신인 이천왕(李天王), 백산로인(白山老人)과 같은 장백산의 산신령, 나한(羅漢)등의 신들이 나타난다. 에벤키족은 옥황상제, 왕모, 지하세계의 화신(火神)인 노파로 되어있고 오르첸족과 시버족에서도 각기 부동하게 인간 질병을 관리하는 세 여신, 뇌신(雷神), 천제, 옥황상제, 왕모 등으로 되어 있다. 총적으로 이상 민족의 설화에서 나타나는 신들을 보면 도교, 불교, 샤머니즘에서 신앙하는 신 등 각기 부동하게 나타난다. 신들의 출처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샤머니즘 속에서 나타나는 신의 형상들이 들어있기에 백조처녀형 설화 속에서도 샤머니즘 신앙의 신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셋째로는 동식물 숭배이다. 한국의 설화들에는 보조자로 사슴, 쥐, 새, 말과 같은 동물숭배의 사상이 나타난다. 일본설화에는 백조, 개 등의 동물과 소나무, 대나무 등의 식물에 대한 숭배사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나무 숭배는 샤머니즘의 우주목을 연상케 한다. 만주족에는 백조, 까치, 용

257) 富育光, 위의 책, 24쪽 참조.

등 동물과 버드나무 등 식물 숭배사상이 나타난다. 버드나무 숭배는 만주족의 신앙으로 되어있다. 오르첸족에는 백학, 사슴, 말, 새 등에 대한 동물 숭배가 나타나고, 시버족에는 백조, 학, 마록, 노루 등의 동물에 대한 숭배가 나타난다. 그리고 에벤키족에는 까치와 매, 시버족에는 백학 등의 동물 숭배가 나타난다. 이상의 민족들에는 동식물에 대한 샤머니즘 신앙이 설화 속에 선명하게 체현되고 있다.

넷째로는 선녀와 주인공의 샤먼 형상이다.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선녀는 백조 혹은 새로 변신 하는 변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천상과 지상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 또한 일부의 설화 속에는 선녀가 남편을 도와 난제를 해결하거나 임무를 완성할 때 주문을 외워 주술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시버족의 자료19에서 선녀는 동물을 통하여 앞날을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백학을 승냥이로 변화시키는 주술능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점치는 방식과 주술방식은 모두 샤먼의 의식의 하나로 된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설화에 선녀가 백조나 학으로 변신하여 지상에 내리는 화소와 백조나 학을 타고 지상으로 내리고 다시 백조나 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변신과 새를 교통공구로 하는 화소는 모두 샤머니즘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변신 또는 변형 화소가 근원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샤머니즘적인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샤먼이 동물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믿음은 샤머니즘에서 매우 중심적인 관념이기 때문이다.”, “곰과 새, 그리고 사슴은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타계를 내왕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우주동물들이다. 이 동물들은 샤먼이 타계를 여행할 때 안내자 구실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샤먼이 직접 이 동물들로 모습을 바꾸어 타계를 여행하기도 한다.”²⁵⁸⁾ 그리고 설화에 나타나는 선녀는 흔히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이는 의식을 갖

258) 광진석, 『시베리아 만주-통구스족 신화론』, 지식과교양, 2011, 285쪽, 287쪽.

출 때 샤먼이 입게 되는 샤먼복을 연상케 한다. 한국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주인공의 시신을 선녀가 하늘로 올리는 화소가 결합된 설화가 있다. 선녀가 아들을 시켜 남편의 시신을 하늘로 가져가는 과정은 샤먼이 죽은 자의 혼을 타계로 인도하는 의식과 모종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주인공의 형상에서도 샤먼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주인공은 하늘로 돌아간 아내를 찾기 위하여 승천하는 화소가 있다. 주인공의 승천 방법은 민족에 따라 설화마다 다르게 표현은 되나 일정한 공통성을 갖고 있다. 그 승천 방식의 하나는 하늘로 이어진 긴 줄과 같은 물체를 통하여 하늘로 오르는 것이다. 한국의 설화에는 드레박, 오이넉줄 등과 같은 물체로 되어 있고 일본의 설화에는 식물의 넝쿨, 대나무 등 식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오르첸족의 설화에는 하늘까지 자란 사슴의 뿔, 만주족의 설화에는 조롱박 넝쿨로 되어있다. 시버족의 설화에는 하늘로 통한 통천제(通天梯)로 되어있다. 다른 하나는 비천할 수 있는 교통도구이다. 일본의 설화에는 구름과 짚신으로 되어 있고, 오르첸족에는 신마를 타고 오른다. 에벤키족은 죽은 소의 가죽을 타고 승천한다. 오르첸족의 자료 32에서는 주인공이 아내를 찾아 지상의 다른 한 신적 존재의 이계로 들어간다.

한국의 곽진석 교수는 타계와 타계의 여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였다. “타계는 천상계와 지하계, 그리고 이 세상 안의 또 다른 세계인 이계 등으로 구분된다.”²⁵⁹⁾ “시베리아 샤머니즘 및 신화의 핵심적인 화소는 샤먼의 영혼이 행하는 타계여행 또는 영혼여행이다. 샤머니즘에서 샤먼의 영혼이 보조령의 도움을 받아 타계를 임의로 왕래하면서 초자연적 존재와 접촉하는 것을 타계여행이라고 할 경우, 타계의 내왕이 시베리아 샤머니즘 및 신화의 궁극적인 주제인 셈이다.”²⁶⁰⁾

259) 곽진석, 위의 책, 277쪽.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선녀와 주인공의 타계여행 화소는 모든 설화에 존재한다. 만약 광진석 교수님이 말한바와 같이 타계의 내왕이 시베리아 샤머니즘 및 신화의 궁극적인 주제라면 백조처녀형 설화는 샤머니즘 신앙에 기초한 설화로 될 것이며 설화 속에서 나타나는 타계여행 화소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또 하나의 핵심화소로 되게 된다.

다섯째로는 샤먼의 주술적 도구와 보조령이 설화 속에 나타난다. 주인공이 아내를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경우, 흔히 동물 혹은 산신령 등과 같은 신적 존재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주인공에 천상에서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샤먼의 주술적 도구와 보조령과 같은 연관성이 있는 사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설화에서는 활 혹은 활촉 찾기, 활쏘기, 칼싸움이 있다. 오르첸족의 설화에는 활쏘기가 있고 시버족의 설화에는 금북, 검, 구리거울 등이 있다. 에벤키족의 설화에는 활이 나타난다.

“샤먼의 몸에 언제나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빛이 나는 수정암편(水晶岩片)과 후에 나타난 동경(銅鏡) 등등을 달고 있다.”²⁶¹⁾ “많은 늙은 샤먼들의 기술한 조상의 유훈에 의하면 샤먼의 몸에 달린 신물 중에서 제일 돌출한 것은 바로 신경이다. 이는 태양의 빛을 상징하며, 사악한 것을 피할 수 있고 요마(妖魔)를 비추고 신로(神路)를 비추는 중요한 보물이다.”²⁶²⁾ 이로 보면 동경은 샤먼의 중요한 주술도구로 된다.

“사회 또는 신앙의 변화와 맞물려 단순한 수렵이나 전쟁의 도구로 인식되던 활/화살에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신화나 각종 의례 그리고 신화 등을 통해서 볼 때 활/화살은 각종 주술적도구로 기능하기도 하고 사악한 정령을 퇴치하거나 정령과 교통하는 도구로 기능하기도 하고 시베리아 초기 샤먼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기호를 나타내기도 하며 우주구성에

260) 광진석, 『시베리아 만주-통구스족 신화론』, 지식과교양, 2011, 277쪽

261) 富育光, 『薩滿教與神話』, 遼寧大學出版社, 1990, 30쪽.

262) 富育光, 위의 책, 같은 쪽.

대한 샤먼들의 관념을 형상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²⁶³⁾ 샤머니즘에서 중요한 주술도구의 하나인 활과 화살은 백조처녀형 설화에도 나타난다. 이외에 또 활쏘기와 같은 화소도 샤머니즘적 의식의 하나로 된다. 그리고 검과 북도 샤먼의 주술도구로 나타난다. 칼싸움은 이계에서 샤먼의 전쟁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여러 면으로 되는 분석을 보면 동북아 경내의 여러 민족 속에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에는 많은 샤머니즘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아마 이 민족들이 예로부터 샤머니즘에 대한 신앙과 관계되며, 또한 지역적인 인접 특성으로 하여 일어나는 문화영향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263) 곽진석, 위의 책, 216쪽.

Ⅵ. 결론

본 논문은 동북아 경내에 거주하는 한민족과 만주-통구스어족, 그리고 일본민족 속에서 전해지는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의 제 민족들은 지역, 언어, 신앙, 문화적으로 일정한 공통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설화 속에도 이상과 같은 여러 방면이 어느 정도로 체현될 것이며, 일정한 비교의 가능성과 가치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게 된 시발점도 바로 이와 같은 원인에서 시작된 것이다.

논문의 연구 내용으로는 이상의 제 민족 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문헌으로 기록이 된 백조처녀형 설화의 형성, 분포와 전승양상, 유형 분류, 서사 구조, 구조의 비교를 통한 화소와 구조의 차이 및 그 변별적 의미, 설화가 체현하고 있는 문학적 의미 등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설화학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신화학과 인류학, 심리분석학, 구조주의, 역사지리학, 민속학, 비교문학 등 다 영역 학과의 이론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설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존연구의 성과들을 지역에 따라 분류하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대상과 연구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상 제 민족 속에서 전형성을 띤 백조처녀형 설화 35편을 대표 자료로 선정하고, 이어서 백조처녀형 설화의 형성과 전승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원시신앙의 형성과 신앙에 의하여 산생된 신화와의 관계를 해석하였고, 원시선민과 원시종교, 서사문학의 삼자관계를 설명하였다.

원시선민들이 장기적인 생존과정에서 자연계와의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며, 발달하지 못한 인지능력으로 주변의 자연계에 대하여 과학적인 이해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위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어 자연계에는 모두 초인간적 능력을 가진 정령의 지배를 받는 정령의 세계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 하에 원시선민들은 자연계와의 접촉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그 현상의 본원에 대하여 숭배를 하게 되고 점차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숭배와 신앙은 종교의 초기 형태인 애니미즘이나 후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신앙은 선민들의 생활과 사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점차 그들의 인식세계와 생활을 반영하는 원시신화를 생성시켰다. 이상 제 민족의 백조처녀형 설화는 이 민족들의 선민들이 신앙하는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종교의 영향과 그들의 특수한 생활 지역과 생활방식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원시 선민들은 하늘을 오가고, 계절의 바뀔에 따라 이동하는 새에 대하여 숭배를 하게 되었고 생활 속에서 일부 특수한 새와의 장기적인 접촉에서 그 새들에 대하여 지역과 민족의 특수성을 띤 새토템을 형성하게 되었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바로 새토템 사상을 가진 민족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촉하게 되는 백조 혹은 학과 같은 새들에 대하여 숭배하고 신성화 시켰으며, 이 새들을 설화 속에 체현시키면서 백조처녀형과 같은 설화들을 형성시키게 하였다.

백조처녀형 설화는 범세계적 설화로서 그 분포가 세계 각지에 존재한다. 동북아 제 민족 속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는 각기 부동한 양상과

지역적,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백조처녀형 설화는 남방계통의 설화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발전한 특색을 띠고, 만주-통구스족의 백조처녀형 설화는 북방계의 설화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과 중국의 만주-통구스족 백조처녀형 설화는 여러 문화와 여러 민족의 영향에 의하여 그 유형 상으로 한국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보다 유형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주로 주제유형분류의 방법을 사용하여 동북아 제 민족의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통일된 하나의 분류 원칙에 기준하여 체계적인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유형 분류에서 우선 동북아와 남아시아의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전체적으로 보아 남방계, 북방계, 중원계 등 세 개의 큰 범위로 나누었다. 그리고 필자는 백조처녀형 설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설화들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세 개의 발전단계로 추정하였다. 제1단계는 여주인공이 사람과 새의 변신능력을 가진 여조 형상의 단계로 확정하였다. 제2단계는 여주인공의 신분이 여조에서 여신으로 발전한 단계이다. 제3단계로는 설화의 후반부(혹은 기타 부분)에 기타 삽입형이 결합되어 여러 아류형을 형성한 단계이다.

다음으로 동북아 제 민족 속에 전승되는 백조처녀형 설화에서 혼인의 성질과 여주인공이 혼인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에 따라 제1차적인 분류작업을 진행하여 강박에 의한 혼인을 다룬 설화들을 ‘절의 성혼류(窃衣成婚類)’로 나누고, 선녀의 주동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다룬 설화들을 ‘천사성혼류(天賜成婚類)’로 두개의 유(類)로 나누었다.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제2차적인 분류작업으로, 변화된 화소와 에피소드가 부동하게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여러 하위 유형인 ‘실처형’, ‘개국

시조형’, ‘시조기원형’, ‘유래형’, ‘마귀처치형’, ‘범남성신형’, ‘난제형’, ‘칠석형’, ‘지하세계형’, ‘보상형’, ‘영웅탄생형’ 등 11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제4장에서는 주로 구조주의 방법으로 설화의 구조와 화소에 대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그 차이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구조분석에 있어서 순차적인 구조와 이항대립의 구조 두 연구 영역으로 나누고, 순차적인 구조에서 시간적 발전 순서에 따라 백조처녀형 설화를 26개의 단락소와 20개의 대응 화소로 나누었다. 그리고 설화에 나타나는 계약관계에 따라 두개의 계약관계로 분류하였다. 설화에서의 계약1은 구제자와 피구제자 지간의 구명과 구명보답에 의한 혼인의 증여관계이고, 계약2는 천상에서의 주인공과 선녀와의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선녀의 부모와 주인공사이의 혼인계약관계이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이항대립 구조에서는 화소에서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화소들을 선택하여, 행동대립항과 인물대립항인 두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행동대립항으로 “결핍-결핍해소”, “구제-정보획득”, “금기-금기타파”, “난제-난제해결”, “천강-승천”, “출발-발견” 등 6개의 대립항을 귀납하였다. 인물대립항으로서 “조력자-가해자”, “범인(주인공)-선녀” 등 2개의 대립항으로 나누어 모두 8개의 대립항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구조분석의 방법에 의하여 백조처녀형 설화들을 유형별로, 민족별로 구조적인 비교와 화소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비교에서 민족별로 나타나는 구조와 화소의 차이점을 귀납하고, 그 차이점에 나타나는 변별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신화학적 연구방법과 심리분석학적 방법, 민속학적 연구방법 등 다학과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백조처녀형 설화에 나타나는 문화적 의미에 대하여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화적 의미의 분석은 절의성혼류와 천사성혼류의 유형 분류에 따라 진행하였다. 절의성혼류의 문화적 의미의 분석에서 이야기 주인공의 통과의례, 여성 정체성의 확립, 인간의 자연

극복 등 3개의 범위로 의미를 해명하였다. 백조처녀형 설화의 의미에 대한 해명을 통하여 백조처녀형 설화는 한 남성으로서의 소년에서부터 성인으로, 결혼에서부터 생육으로, 독신으로부터 한 가정으로 가정과 사회적 역할을 실현하여야 하는 삶의 체현이란 것을 밝히었다. 그리고 설화는 사회제도 발전에 대한 체현으로서 인류사회의 모권사회에서 부권사회로의 전변과정, 모계씨족의 혼인제도에서 부계씨족사회 혼인제도로의 전변, 이와 같은 사회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선녀와 같은 한 여인의 사회적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동태적인 노력과정을 체현하였다. 또한 백조처녀형 설화는 인간의 지식과 인지능력의 발전으로, 자연지배의 능동성으로 인한, 자연계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와 신앙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인간의 능동성과 창조성을 과시하는 인간 본능의 항거정신을 체현하였다.

천사성혼류의 백조처녀형 설화에서는 도덕관념의 체현, 통치관념의 실현,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의 재현 등 3개의 범위로 의미를 해명하였다. 설화에서는 ‘선행필보’의 사상을 권장하는 민중의 보편적인 소원이 체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화에서는 또 통치자로서의 서민에 대한 통치의 강화를 위한 ‘왕권신수’ 통치사상의 의도적인 수립과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화의 샤머니즘 세계관의 재현으로서는 샤머니즘의 우주관념의 체현, 샤머니즘 신의 출현, 동식물에 대한 샤머니즘적 숭배, 설화인물의 샤먼 형상, 설화 속에 나타나는 샤먼의 주술도구와 보조령의 출현 등을 통하여 백조처녀형 설화에는 많은 샤머니즘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밝혀냈다. 동북아 제 민족 속에서 예로부터 샤머니즘 숭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 지며, 백조처녀형의 설화에 대한 연구도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 제 민족의 백조처녀형 설화에 대하여 형성과 분포, 전승양상, 그리고 설화의 구조와 문화적 의미에 대하여 민족과 지역을 넘어

선 체계적인 연구에 주력을 하였지만, 필자의 학식과 견해의 부족으로 연구에서 많은 부족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목전 상황에서 아직 본 논문에서와 같이 동북아시아를 범위로 하여, 범세계적인 백조치녀형 설화에 대하여 진행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논문의 연구는 어느 정도로의 연구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의 연구에서 문헌에 기재된 문헌적 자료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데는, 단순한 문자기록으로 된 텍스트의 연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피면 할 수 없다. 자료의 수집이 충분한지, 자료 출처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은 모두 연구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매 장에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함에서 미진한 부분도 앞으로 재차적인 연구가 수요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료:

김재권 등 정리, 『파경노』, 민족출판사, 19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전82권, 1980~1988.

1-3 (경기도 양평군편), 성기열, 1980.

1-4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군편), 조희웅, 1981.

1-5 (경기도 수원시 화성군편), 성기열, 1981.

1-6 (경기도 안성군편), 조희웅, 1982.

1-7 (경기도 강화군편), 성기열, 1982.

2-7 (강원도 횡성군편2), 서대석, 1984.

3-1 (충청북도 청주시 중원군편), 김연진, 1982.

3-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편), 김영진·맹택영, 1981.

4-1 (충청남도 당진군편), 인권환, 1980.

4-2 (충청남도 대덕군편), 박계홍, 1980.

4-3 (충청남도 아산군편), 서대석, 1982.

4-4 (충청남도 보령군편), 박계홍, 1983.

4-5 (충청남도 부여군편), 박계홍, 1984.

5-1 (전라북도 남원군편), 최래옥, 1980.

5-2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편), 최래옥, 1980.

5-7 (전라북도 정읍군편3), 박순호, 1984.

6-1 (전라남도 진도군편), 지춘상, 1980.

6-3 (전라남도 고흥군편), 김승찬, 1984.

6-5 (전라남도 해남군편), 이현수, 1984.

- 6-6 (전라남도 신안군편1), 최덕원, 1984.
- 6-8 (전라남도 장성군편), 최래옥 · 김군태, 1984.
- 6-10 (전라남도 화순군편2), 최래옥 · 김군태, 1984.
- 6-11 (전라남도 화순군편3), 최래옥 · 김군태, 1984.
- 7-1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군편1), 조동일, 1980.
- 7-4 (경상북도 성주군편1), 최정여 · 강은해, 1980.
- 7-12 (경상북도 군위군편2), 최정여, 1984.
- 7-16 (경상북도 구미 선산편2), 최정여, 1984.
- 8-6 (경상남도 거창군편2), 최정여 · 강은해, 1981.
- 8-9 (경상남도 김해군편), 김승찬, 1983.
- 8-11 (경상남도 의령군편2), 정상박 · 유종목, 1984.
- 8-14 (경상남도 울산 울주군편2), 정상박 · 유종목, 1984.
-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Ⅰ)』, 조동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Ⅱ)』, 조동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Ⅲ)』, 박강수 · 서대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Ⅰ』, 평민사, 1991년.
- 幹寶 撰, 『搜神記』, 中華書局, 1980.
- 關寶學, 『錫伯族民間故事集』, 遼寧民族出版社, 2002.
- 關敬吾 著, 『日本民間故事選』, 中國民間文藝出版社, 1982.
- 內蒙古人民出版社 編, 『鄂倫春民間故事集』, 內蒙古人民出版社, 1981.
- 杜梅 搜集 整理, 『鄂溫克族民間故事』, 內蒙古人民出版社, 1989.
- 巴圖寶音 搜集整理, 『鄂倫春民間故事集』, 中國民間文藝出版社, 1984.
- 裴永鎮 整理, 『金德順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1983.
- 傅英仁 搜集整理, 『滿族神話故事』, 北方文藝出版社, 1985.

西木雞介 編, 鄧三雄 等譯, 『日本民間故事選粹』, 湖南人民出版社, 1983.

隋書今 編, 『鄂倫春族民間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1988.

水野 祐 著, 『羽衣傳説の探求』, 産報, 1977.

愛新覺羅·烏拉希春 編著, 『滿族古神話』, 內蒙古人民出版社, 1987.

呂光天 搜集整理, 『鄂溫克民間故事』, 內蒙古人民出版社, 1984.

王士媛等 編, 『赫哲族民間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1986.

王士媛 等 編, 『鄂溫克族民間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1989.

烏丙安 等 編, 『滿族民間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1983.

延邊民間文學研究會 編, 『朝鮮族民間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1982.

峻林 等 編, 『鄂倫春民間故事集成』, 內蒙古文化出版社, 1997.

中國民間文藝研究會 遼寧·吉林·黑龍江·河北四省分會 編, 『滿族民間故事選(第二集)』, 春風文藝出版社, 1985.

中國民間文藝研究會 黑龍江分會, 『鏡泊湖民間故事選』, 黑龍江人民出版社, 1981.

中國民間文藝研究會 黑龍江分會, 『黑龍江民間文學(6)』, 內部資料, 1983.

中國民間文藝研究會 黑龍江分會, 『黑龍江民間文學(7)』, 內部資料, 1983.

中國民間文藝研究會 黑龍江分會, 『黑龍江民間文學(20)』, 內部資料, 1987.

中國民研會東北三省分會 編, 『滿族民間故事選』, 春風文藝出版社, 1981.

張其卓·董明 整理, 『滿族三老人故事集』, 春風文藝出版社, 1984.

靜岡綜合研究機構 編, 『羽衣·竹取の説話』, 靜岡新聞社, 2000.

忠錄 編, 『錫伯族民間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1991.

한국단행본:

곽진석 저, 『한국민속문학형태론』, 월인, 2000.

- 곽진석 저, 『시베리아 만주·통구스족 신화론』, 지식과 교양, 2011.
- 김선자 저, 『중국 변형신화의 세계』, 범우사, 2002.
- 김승찬 외, 『한국구비문학개론』, 새문사, 2003.
- 김승찬 외, 『중국조선족문학의 전통과 변혁』,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 김열규 저,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82.
- 김열규 저,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2004.
- 김열규 외, 『국문학개론』, 학연사, 1998.
- 김열규 외 저, 『민담학개론』, 일조각, 1997.
- 김현주 저, 『토테미즘의 흔적을 찾아서』,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 김화경 저,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3.
- 리복규 저, 『부여, 고구려건국신화연구』, 집문당, 1998.
- 박용식 저, 『한국설화의 원시종교사상 연구』, 일지사, 1992.
- 배원룡 저,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 서은아 저,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부부갈등 연구』, 제이앤씨, 2005.
- 손대준 저,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도서출판, 2002.
- 손진태 저, 『한국민족사개론』, 을유문화사, 1954.
- 손진태 저,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 손진태 저,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1.
- 손진태 저, 『한국 민속· 문화 산고 (손진태선생 전집 6)』, 태학사, 1981.
- 송성근 저, 『신화를 세운 사유뭉치들』, 리북, 2009.
- 실천민속학회 편, 『민속문화의 수용과 변용』, 집문당, 1999.
- 양종민 저, 『샤먼이야기』, 정신세계사, 2003.
- 이신성·고희가 편, 『한·중 민간설화 비교 연구』, 보고사, 2006.
- 임봉길 외, 『세계신화의 이해』, 소화, 2009.
- 장덕순 외 공저,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2,

- 조희웅 저,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 차옥승 외, 『동아시아 여신 신화와 여성 정체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 최래옥 저, 『한국구비문학론』, 제이앤씨, 2009.
- 최운식 저, 『한국설화 연구』, 집문당, 1991.
- 최인학 저, 『구전설화 연구』, 새문사, 1994.
- 최인학 외, 『한·중·일 설화 비교연구』, 민속원, 1999.
- 최인학 외, 『한국민속 새로 읽기』, 민속원, 2001.
- 황패강 지음, 『일본설화의 연구』, 지식산업사, 1996.

국외단행본:

- 가스통 바슐라드 저,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 1993.
- 김관웅·김병활주필, 『비교문학개론』, 연변대학출판사, 2003.
- 김동훈 저,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연구』, 한국문화사, 1999.
- 김동훈, 허휘훈주필, 『중조한일민담비교연구』, 료녕민족출판사, 2001.
- 노롭스 프라이 저,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9.
- 다원 저, 이민재 역, 『종의 기원』, 을유문화사, 1995.
- 도립번 저, 김종식 역, 『중국민속의 이해』, 집문당 1997.
- 라만 셸던 외 저, 정정호 외 역, 『현대문학이론 개관(4판)』, 한신문화사, 2000.
- 박계옥 저, 『한국홍수설화와 그 서사적 계승 연구』, 민족출판사, 2007.
- 블라지미르 뽀르뽀 저, 이종진 역, 『러시아 민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 블라디미르 프롭 저, 안상훈 역, 『민담의 형태론』, 박문사, 2009.

- 스티스 톰슨 저, 윤승준·최광식 역,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 아놀드 반젠넵 저, 김정수 역, 『통과의례』, 울유문화사, 1985.
- 아야베 쓰네오 엮음, 유명기 역, 『문화인류학 20가지 이론』, 일조각, 2009.
- 야노 다카요시 저, 『한일고대혼인설화와 정조관』, 보고사, 2002.
- 월터 J. 옹 지음,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10.
- 카트린 뢰게-알더 저, 이문기 역,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서적, 2009.
- 클라우스-미하엘 보그달 편저, 문학이론연구회 역, 『새로운 문학이론의 흐름』, 문학과 지성사, 1994.
- C.G.웅 외, 설영환 역, 『웅 심리학 해설』, 선영사, 2007.
- C.G.웅 외, 권오석 역, 『무의식의 분석』, 홍신문화사, 2011.
- M.S.가바리노 저, 한경구·임봉길 역, 『문화인류학의 역사』, 일조각, 2009.
- 關敬吾, 『故事學新論』, 遼寧大學出版社, 1992.
- 顧奎相 主編, 『遼海文化十講』, 遼寧教育出版社, 2007.
- 顧祖釗 著, 『文學原理新論』, 人民文學出版社, 2000.
- 郭俊紅 著, 『天鵝處女型故事』, 中國社會出版社, 2010.
- 祁連休 著, 『中國古代民間故事類型研究』, 河北教育出版社, 2007.
- 奇文瑛 著, 『滿-通古斯語族民族宗教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5.
- 內蒙古語言文學歷史研究所 文學研究室 編, 『蒙古族民間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1979.
- 諾思洛普·弗萊 著, 孟祥春 譯, 『世俗的經典』, 上海人民出版社, 2010.

- W·施密特 著，蕭師毅·陳祥春 譯，『原始宗教與神話』，上海文藝出版社，1987.
- 列維-布留爾 著，丁由 譯，『原始思維』，商務印書館，1994.
- 遼寧大學傳播學院 民俗學教研室 編著，『民間文學概論新編』，遼寧師範大學出版社，2001.
- 凌純聲，『松花江下遊的赫哲族（下冊）』，上海文藝出版社，1990.
- 馬林諾夫斯基 著，李安宅 譯，『巫術科學宗教與神話』，中國民間文藝出版社，1986.
- 馬林諾夫斯基 著，李安宅 譯，『兩性社會學』，中國民間文藝出版社，1986.
- 馬清福 著，『東北文學史』，春分文藝出版社，1992.
- 孟慧英 主編，『原始宗教與薩滿教捲』，民族出版社，2008.
- 茅盾 著，『神化研究』，百花文藝出版社，1981.
- 富育光 著，『薩滿教與神話』，遼寧大學出版社，1990.
- 富育光·王宏剛 著，『薩滿教女神』，遼寧人民出版社，1995.
- 傅仁義 等著，『東北古文化』，春風文藝出版社，1992.
- 弗拉基米爾·雅可夫列維奇·普羅普 著，『神奇故事的歷史根源』，中華書局，2006.
- 弗·雅·普羅普 著，『故事形態學』，中華書局，2006.
- 孫進己 等著，『女真史』，吉林文史出版社，1987.
- 孫進己 著，『東北各民族文化交流史』，春風文藝出版社，1992.
- 孫進己 著，『東北民族源流』，黑龍江人民出版社，1989.
- 斯蒂勒 編，『馬克思主義以前的唯物主義史論叢』，商務印書館，1980.
- 斯蒂·湯普森，鄭海 等譯，『世界民間故事分類學』，上海文藝出版社，1991.
- 艾博華 著，王燕生·周祖生 譯，『中國民間故事類型』，商務印書館，1999.

- 呂大吉 主編，『宗教學通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9.
- 呂大吉·何耀華 總主編，『中國各民族原始宗教資料集成(鄂倫春族卷·鄂溫克族卷·赫哲族卷·達斡爾族卷·錫伯族卷·滿族卷·蒙古族卷·藏族卷)』，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9.
- 葉舒憲 編選，『結構主義神話學』，陝西師範大學出版社，1988.
- 葉舒憲 選編，『神話-原型批評』，陝西師範大學出版社，1989.
- 葉舒憲 著，『中國神話哲學』，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2.
- 葉舒憲·田大憲 著，『中國古代神秘數字』，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8.
- 汪立珍 著，『鄂溫克族神話研究』，中央民族大學出版社，2006.
- 汪立珍 著，『滿-通古斯諸民族民間故事研究』，中央民族大學出版社，2006.
- 王肯 等著，『東北俗文化史』，春風文藝出版社，1992.
- 王先霈·王又平 著，『文藝理論批評術語彙釋』，高等教育出版社，2006.
- 王憲昭 著，『中國民族神話母題研究』，民族出版社，2006.
- 烏丙安 著，『中國民俗學』，遼寧大學出版社，1985.
- 於長敏 著，『中日民間故事比較研究』，吉林大學出版社，1996年.
- 袁珂 著，『神話論文集』，上海古籍出版社，1982.
- 韋斯特馬克 著，劉小幸·李彬 譯，『人類婚姻簡史』，商務印書館，1992.
- 劉守華 著，『比較故事學』，上海文藝出版社，1995.
- 劉守華 著，『中國民間故事類型研究』，華中師範大學出版社，2002.
- 劉守華 著，『比較文學故事論考』，黑龍江人民出版社，2003.
- 劉俊文 主編，杜石然·魏小明 譯，『日本學者研究中國史論著選集(第十卷)』，中華書局，1992.
- 李道和 著，『歲時民俗與古小說研究』，天津古籍出版社，2004.
- 詹姆斯·喬治·弗雷澤 著，徐育新 等譯，『金枝』，大眾文藝出版社，2009.
- 張風鑄·蔡伯文 編寫，『鄂倫春民間文學選』，內蒙古人民出版社，1980.

- 張愛萍 著,『中日古代文化源流』,浙江大學出版社,2005.
- 丁乃通 著,鄭建威 等譯,『中國民間故事類型索引』,華中師範大學出版社,2008.
- 趙國華 著,『生殖崇拜文化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
- 鍾敬文 主編,『民間文學概論』,上海文藝出版社,1980.
- 鍾敬文 著,『鍾敬文學術論著自選集』,首都師範大學出版社,1994.
- 周福岩 著,『民間故事的倫理思想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6.
- 朱狄 著,『原始文化研究』,三聯書店出版社,1988.
- 朱天順 著,『原始宗教』,上海人民出版社,1978.
- 陳勤建 著,『中國鳥文化』,學林出版社,1996.
- 漆凌雲 著,『中國天鵝處女型故事研究』,中國戲劇出版社,2008.
- 卡爾·榮格 等著,張舉文·榮文庫 譯,『人類及其象征』,遼寧教育出版社,1988.
- 何星亮 著,『中國圖騰文化』,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6.
- 何新 著,『諸神的起源』,三聯出版社,1986.
- 黃斌·黃瑞 著,『走進東北古國』,遠方出版社,2006.
- 黃任遠 著,『通古斯-滿語族神話研究』,黑龍江出版社,2000.
- 黃任遠 著,『赫哲那乃阿依努原始宗教研究』,黑龍江人民出版社,2003.

논문:

학위논문:

- 김용기, 「인물 출생담을 통한 서사문학의 변모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과, 박사논문, 2007.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91.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의 인물갈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논문, 2004.

신기원, 「〈견우직녀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9.

조산산, 「한·중 선녀결연설화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1.

俞成雲, 「中國古代四大傳說再東北亞的傳播和影響研究」, 中央民族大學 中國少數民族語言文學學院, 博士論文, 2004.

車海鋒, 「朝鮮民族與滿-通古斯諸民族神話傳說中的意象、母題比較研究」, 延邊大學 朝鮮-韓國學學院, 博士論文, 2009.

일반논문:

곽진석, 「探索談의 類型과 構造的 解釋」, 서강어문 제3집, 서강어문학회, 1983.

곽진석, 「韓國 民談의 샤머니즘적인 화소에 대한 研究」, 구비문학연구 제10집, 한국 구비문학회, 2000.

권영철, 「금강산선녀 설화의 연구」, 효성여대 연구논문집 제1집, 효성여자대학교, 1969.

김대숙,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민담적 성격과 주제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제137집, 국어국문학회, 2004.

김기창, 「금강산선녀설화연구」, 국제어문 제5집, 국어국문학과, 1984.

김용덕,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김종대·이주홍,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조력자 사슴과 쥐의 역할과 그 기능 고찰」, 어문논집 제43집, 중앙어문학회, 2010.
- 김화경, 「일본 날개옷 설화의 연구」, 어문학 제95집, 한국어문학회, 2007.
- 김환희, 「〈나무꾼과 선녀〉와 일본 〈날개옷〉설화의 비교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 열상고전연구 제2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 노영근, 「민담과 ‘아내찾기’ 화소」, 어문논총 제20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1.
- 노영근, 「민담 각편 형성 원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겨레어문학 제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 노제운, 「‘나무꾼과 선녀’, ‘우렁각시’ 설화의 정신분석적 의미 비교연구」, 어문논집 제57집, 민족어문학회, 2008.
- 박현숙, 「〈선녀화 나무꾼〉 전래동화의 설화 수용양상과 문제점」,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
- 배원룡, 「〈수탉 유래〉설화의 고찰」, 국제어문 제12·13집, 국제어문학회, 1991.
- 배원룡, 「설화의 현대적 수용과 변용」, 한국민속학 제26집, 한국민속학회, 1994.
- 소재영, 「異類交媾考」, 국어국문학, 제42·43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8.
-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의 부부갈등 중 ‘선녀의 개인적 결점’ 으로 인한 갈등과 그 문 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문학치료연구 제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나는 고부갈등과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여성논총 제 21집,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2006.

-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와 〈견우직녀〉의 이야기 결합방식과 문학치료에
의 적용가능성 모색」, 문학치료연구 제5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
-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의 웅서갈등과 문학치료적 접근」, 국어교육 제
123집, 한국어교 육학회, 2007.
- 성기열, 「민담〈선녀와 나무꾼〉의 한일 비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8,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 신태수,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신화적 성격」, 어문학 제89집, 한국어문
학회, 2005.
- 윤병렬, 「‘나무꾼과 선녀’에서의 종교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18집, 한국현상학 회, 2001.
- 이석래, 「이류교혼설화」, 문리대학보 제11권 제1호, 서울대 문리대, 1963.
- 장두식, 「몽골의 ‘백조소녀’형 설화의 전승양상 연구」, 몽골학 제15집,
한국몽골학회, 2003.
- 장작식, 「금기 설화 연구」, 한국민속학 제17집, 한국민속학회, 1984.
- 장장식, 「설화에 나타난 민주의 고난과 극복」, 국제어문 제12· 13집,
1991.
- 장장식, 「몽골 보리야드족 무속의 특징과 전승 문제」, 한국민속학 제35
집, 한국민속학회, 2002.
- 장장식, 「몽골의 ‘어머니바위’ 신앙과 담론의 의미」, 실천민속학연구 제
5집, 실천민속학 회, 2003.
- 장장식, 「한국과 몽골 설화의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제33집, 비교민속학
회, 2007.
- 전신재,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변이 양상」, 강원문화연구 제18집, 강원
대학교 강원문화 연구소, 1999.

- 전영태, 「‘나무꾼과 선녀’에 대한 통합적 해석」, 선청어문 제3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 한국어교육학, 2005.
- 정옥근, 「중국의 天鵝處女型 이야기와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비교연구」, 중국학 제27집, 대한중국학회, 2006.
- 조산산, 「‘선녀결연 설화’의 유형과 전승 양상」, 비교문학 제51집, 한국비교문학회, 2010.
- 최상수, 「백조처녀설화의 비교연구」, 민속학보 제2집, 한국민속학회, 1957.
- 최운식, 「〈나뭇꾼과 선녀〉설화의 고찰」, 청람어문학, 제1권 제1호, 한국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년.
- 황경숙,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심리학적 시론」, 국어국문학회 제32집, 문창어문학회, 1995.
- 高木立子, 「被欺負的女婿」, 民間文化 Z1期, 中國民間文藝家協會, 2000.
- 高木立子, 「中國中原地區仙妻故事研究」, 河南社會科學 第1期, 河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07,
- 君島久子, 「非稻作民的民俗與傳承」, 民間文學論壇 第3期, 中國民間文藝家協會, 1997.
- 金文學, 「中國日本韓國天鵝處女傳說譜系比較研究」, 社會科學輯刊 第6期, 遼寧省社會科學院, 1994年.
- 萬建中, 「禁忌主題與禁忌民俗之相互關係」, 江西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南昌大學, 1991.
- 萬建中, 「一場關於人與自然關係的深刻對話」, 北京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6期, 北京師範大學, 2000.
- 萬建中, 「對民間故事中禁忌主題的功能主義理解」, 民間文化 第11~12期, 中國民間文藝家協會, 2000.

- 萬建中，「時間差：神聖與世俗邊界的構建及洞穿」，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與社會科學版）第6期，廣西民族大學，2001.
- 萬桂紅，「男權文化下的“天鵝處女”故事的解讀」，湖北教育學院學報第7期，湖北第二師範學院，2006..
- 傅光宇，「“難題求婚”故事與“天鵝婚配型”洪水移民神話」，民間文學研究第2期，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研所，1995.
- 傅光宇，「〈召樹屯〉源流考析」，民族文學研究第3期，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研所，1996.
- 傅修延，「羽衣仙女與贛文化」，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期，江西師範大學，2000.
- 蕭兵，「盤絲洞——兼論志怪中“天鵝處女”之意蘊」，明清小說研究第3期，江蘇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明清小說研究中心，2004.
- 王建章，「論民間幻想故事的形式和藝術特征」，湘潭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4期，1994.
- 王青，「天鵝處女型故事淵源再探」，『民族文學研究』第1期，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研究所，2004.
- 王青，「句道興〈搜神記〉與天鵝處女型故事」，敦煌研究第2期，敦煌研究院，2005.
- 於長敏，「日本牛郎織女傳說與中國原型的比較」，日本學論壇第2期，東北師範大學，1999.
- 苑利，「殷商與滿族始祖神話同源考」，民間文學研究第4期，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研所，1991.
- 袁學駿，「牛郎織女與天鵝處女型故事一兼及中國故事的分類方法」，『七夕文化論文集』，2002.

- 劉守華，「“羽衣仙女”故事的中國原型及其世界影響」，湖北民族學報(社會科學版) 第15卷 第2 期,1997.
- 劉穎，「羽衣仙女故事類型解析」，知識經濟 第22期，重慶市科學技術協會，2010.
- 李道和，「女鳥故事的民俗文化淵源」，文化遺產 第4期，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2001.
- 李子，「遺失的羽衣」，重慶教育學院學報 第1期，重慶教育學院，2003.
- 任聘，「本手:禁忌主題的開創性研究」，民俗研究 第3期，山東大學，2001.
- 張耘，「中國古典小說“人仙妖鬼婚戀”母題初探」，北京教育學院學報 第1期，北京教育學院，2000.
- 鄭土有，「中國螺女型故事與仙妻情結研究」，民俗研究 第4期，山東大學，2004.
- 趙琴琴，「錫伯族散文類口頭傳說中女性形象類型探析」，昌吉學院學報 第1期，昌吉學院，2007.
- 周俐，「鶴：羽化升仙的中介」，淮陰師專學報 第16卷 第3期，淮陰師範學院，1994.
- 陳建憲，「論中國天鵝仙女故事的類型」，民間文學研究 第2期，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研究所，1994.
- 陳玉平，「孤兒角色與成年儀式」，民族文學研究 第4期，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研究所，1996.
- 漆凌雲，「試論中國天鵝處女型故事的起源」，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5期，齊齊哈爾大學，2003.
- 漆凌雲，「中國民間故事起源研究反思」，民俗研究 第2期，山東大學，2006.
- 漆凌雲，「中國天鵝處女型故事的形態學研究」，民間文化論壇 第5期，中國民間文藝家協會，2006.

托和羅·路，「赫哲族天鵝處女型故事的異式」，黑龍江民族叢刊 第4期，黑龍江省民族研究所，1988.

彭松喬，「禁忌藏“天機”」，民族文學研究 第4期，中國社會科學院少數民族文學研究所，2004.

向柏松，「“浴女”母題的傳承與文化內涵的演變」，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6期，中南民族大學，2003.



부록:

표8 백조처녀형 설화의 단락소와 대응 화소

	단락소	화소
단 순 구 조	A.옛날에 어떤 곳이 있었다. (지역, 풍속, 가족 등 설명 부분) B.어떤 한 주인공(나무꾼, 사냥꾼, 어부 혹은 기타)이 있었다. C.주인공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D.주인공이 위험에 처한 어떤 동물(혹은 기타)을 구한다. E.동물이 구명의 보답으로 선녀에 관한 비밀을 알려 준다. F.동물이 선녀(백조 등)와 결합의 금기 사항을 알려 준다. G.주인공이 선녀가 나타나는 곳으로 떠난다. H.선녀(형제)가 하늘에서 살고 있다. I.선녀(혹은 백조로 변하여)가 지상의 못으로 날아내려 온다. J.선녀가 날개옷을 벗고 못에서 목욕을 한다. K.주인공이 못에서 목욕하는 선녀를 발견한다. L.주인공이 선녀의 날개옷(천의)을 숨긴다. M.주인공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는 선녀와 부부로 된다. N.주인공과 선녀사이에 아이가 생긴다. O.주인공이 모종 원인으로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준다. P.선녀가 날개옷을 입(혹은 아이 데리고)고 하늘로 날아간다.	배경 주인공 결핍1 구제 정보획득1 금기 출발1 선녀 천강 목욕 발견1 절의 결핍해소1 후대 금기파괴 결핍2
복 합 구 조	Q.주인공이 아내를 찾아 길을 떠난다. R.동물이 나타나 선녀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S.선녀를 찾는 길에서 기타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T.주인공이 하늘로 올라간다. U.주인공이 선녀와 하늘에서 만난다. V.선녀의 부모(혹은 형제)가 혼인을 반대하여 나선다. W.선녀의 부모가 시험문제를 낸다. X.선녀(혹은 기타 조력자)가 난제해결을 도와 나선다. Y.주인공에게 부과된 난제가 해결된다. Z.선녀와 주인공이 하늘(혹은 인간)에서 행복하게 산다.	출발2 정보획득2 조력자1 승천 발견2 가해자 난제 조력자2 난제해결 결핍해소2

표9 백조처녀형 설화의 계약관계

1	A (배경) → D(구제)	계약의 발단1
	E(정보 획득1) → P(결핍1)	계약1
2	Q(출발2) → V(가해자)	계약의 발단2
	W(난제) → Z(결핍해소2)	계약2

표10 백조처녀형 설화의 8개 대립항

행 동 대 립	①결핍 ②구제 ③금기 ④난제 ⑤천강 ⑥출발	결핍해소 정보 획득 금기타파 난제해결 승천 발견
인 물 대 립	⑦범인(주인공) ⑧조력자	선녀 가해자

표11 백조처녀형 설화 공간 구조 양상

유 형	공간 구조 양상	공간	선녀의 공간 이동	주인공 공간 이동
㉠	1차적 지상 공간 통일	천상	천강	
		지상	지상체류	지상 체류
㉡	천상 공간의 통일	천상	승천	승천
		지상		
㉢	천상과 지상의 공간 대립	천상	승천	
		지상		지상체류
㉣	2차적 지상 공간 통일	천상	재차 천강	천강
		지상	지상체류	지상 회귀

감사문

논문을 끝내면서 홀가분한 마음과 동시에 그 동안 지내었던 일들이 새삼스레 떠오릅니다. 조그마한 결실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저에게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학업과 생활상에서 몇 년 동안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곽진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곽진석 교수님은 저에게 배움의 도리를 깨우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도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곽진석 교수님의 가르침에서 저는 학문 외에 보다 소중한 인간 됬됨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이 보다 완벽한 논문이 되게끔 세심하게 수정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박경수 교수님, 논문의 작성방법을 아낌없이 알려 주시고 더 좋은 결실이 되도록 지도해주신 고순희 교수님,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자료까지 찾아주시면서 논문의 부족한 면에 대하여 수정하여 주신 최호석 교수님, 논문을 세심하게 보아주시고, 보귀한 의견과 향후 더 멀리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오세정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배움의 길에서 고락을 같이 나누고,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신 이광명 박사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2014년 7월 17일

공광철 드림